

종자를 지배하면
식량을 지배한다

식량을 지배하면
인류를 지배한다

녹색혁명과 유전자혁명의 실체

윌리엄 엔달 저
뢰이 역

땅과 얼

www.ppuri.co



저자: F. William Engdahl
원저: Seeds of Destruction: The Hidden Agenda of Genetic Manipulation
출판사: Global Research
출판사 웹사이트: <http://www.globalresearch.ca>
출판연도: 2007

역자: 최이 윤승서 Rei Yoon
역서명: 종자를 지배하면 식량을 지배한다 식량을 지배하면 인류를 지배한다 - 녹색혁명과 유전자혁명의 실체
본서는 원저를 요약·번역했음
출판사: 땅과 얼
출판연도: 2022.8.15

본 역서는 저자의 허락 하에 제작되었으며 무료
다운 및 공유가 가능하므로 인류의 희망을 위해
널리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저자를 후원하시려면 여기로 가세요.
<http://www.williamengdahl.com/>

역자를 후원하시려면 여기로 가세요.
www.ppuri.co ← 여기서 책자를 무료 다운 받으세요

역자 소개: 땅과 사람을 살리는 농사를 지구 곳곳에 보급하는 활동가, 심신단련의 지혜를 알리는 무술가(태극권), 진실을 밝혀 백성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운동가

이메일: yooman@nate.com
페이스북, 유튜브: Rei Yoon 검색

목차

저자 서문	1
역자의 글	4
1. GMO, 미국의 전략이 되다	6
미국 정부의 맹목적인 GMO 지지	6
"충분히 동일하다"는 사기	7
소 성장 호르몬을 둘러싼 은폐와 거짓말	8
돌고 도는 세상, 아니 사람	10
누가 누구의 주인인가?	11
2. 과학, 정치에 무릎 꿇다	12
GMO 식품에 대한 독립적 연구의 결말	12
쥐에게 GM 감자를 먹인 결과	12
양심적 과학자의 수난	13
누가 누구보다 높을까	14
영국 정부의 맹목적 GMO 지지	15
3. 키신저, 닉슨, 그리고 록펠러	18
미국, 새로운 전략을 짜다	18
식량의 무기화	19
국가와 기업의 동맹	20
식량 제국주의	21
4. 인구를 줄이고 자원을 가져간다	24
키신저의 극비문서	24
사실상의 제노사이드	26
5. 저들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라	28
푸에르토리코의 인간 기니픽	28

독일로 흘러간 우생학, 그리고 나치.....	29
우생학의 주요 인물들	31
인구위원회의 설립	32
은밀하게, 치명적이게.....	34
인구학의 탄생, 공포의 조장.....	36
우생학, 유전학의 탈을 쓰다.....	37
6. 미국을 던 자, 세계를 털다	39
팩스 아메리카나, 소프트 파워, 세계 제국.....	39
사조직에 의한 정부 장악	40
“미국의 세기”와 팽창주의.....	41
세계 지배의 방법.....	42
녹색혁명, 중남미에서 시작되다.....	43
적과의 동침	44
넬슨의 수완	44
괴뢰로서 유엔.....	46
농업기술적 경제적 군사적 예측.....	47
록펠러 맨들	49
초기 애그리비즈니스의 형성	49
멕시코에서 브라질과 베네주엘라로, 다시 세계로.....	50
7. 록펠러와 하버드, 애그리비즈니스를 발명하다	53
무기 장사에서 비료 장사로.....	53
미국의 식량, 미국의 비료, 미국의 종자에 의존하게 하라.....	53
원조를 미끼로.....	54
녹색혁명, 대농을 키우다.....	55
전세계 농민을 세뇌하라, 모든 전통농업의 파괴.....	55

녹색혁명, 민중의 삶을 파괴하다	57
기술의 기만	59
세상을 바꿔놓을 야심, 애그리비즈니스.....	60
애그리비즈니스의 부상, 농민의 몰락	63
공장축산, 동물지옥의 시작	64
축산분뇨, 소중한 거름이 오염원/질병원이 되다.....	65
축산 항생제 남용.....	66
산업의 독점화, 독점의 무기화.....	67
인민에게 빼앗아 기업에게 주다.....	68
녹색혁명의 후계자, 유전혁명	69
8. 식량은 권력이다	70
유전자 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다.....	70
환원론-우생학-분자생물학-유전공학.....	71
인류의 주식 벼에 대한 유전자조작.....	73
9. 드디어 세계 식량생산 혁명이 시작되다.....	79
가난한 나라, 가난한 인민을 노리는 GMO	79
아르헨티나의 땅과 인민은 어떻게 수탈 당했는가	79
쿠데타와 반군은 조작이고, 군사독재는 조종이다.....	81
꼭두각시는 교체하고 수탈은 심화한다.....	82
전국적 농업혁명, 식량에서 GM 사료로	84
철저한 파괴	85
콩이 사람을 죽이다	86
농민과 국가를 뛰어넘는 몬산토의 전술	87
GM 콩을 사람에게 먹이자.....	88
유전자 오염과 생태계 오염.....	89
10. 미국이 이라크에 심은 민주주의의 씨앗	91

미국, 이라크를 "재건"하다.....	91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구축하여... 다국적 기업의 배를 불리라.....	91
특허가 붙은 종자로 농민들을 예측시킨다.....	92
"그들의 씨앗" 밖에 심을 수 없다.....	94
밀을 키워 수출하자... 인민은 굶어도.....	95
한 나라의 농업을 완전히 삼키다.....	96
IMF, 이라크 경제를 다국적 기업의 먹이로 내놓다.....	98
미국의 "개혁"을 이어가는 이라크 임시정부.....	99
11. GMO 종자의 세계화.....	100
WTO 로 세계를 공략하다.....	100
카길이 미국 무역정책을 기안하다 - 암스투츠 계획.....	101
거대 다국적기업이 국제무역 질서를 만들다 - 강력한 로비력	102
유전자조작 종자를 세계적으로 펼칠 준비를 마치다 - TRIPS 와 SPS.....	103
라벨은 안되지만 특허는 된다 - 생명에 대한 특허의 개시.....	104
4 대 GMO 및 화학 회사.....	106
고엽제, 계속되는 기형아.....	107
GMO, 사람들 속에 퍼지다, 생태계에 퍼지다.....	109
GMO 종자 외에는 종자가 없게 하라.....	111
제초제 사업에서 종자 사업으로.....	111
늘어나는 인구를 먹이기 위해 GMO 는 필수... 라는 거짓말....	112
GMO 콩을 먹인 어미쥐의 새끼들은 심각한 이상을 나타내다	114
아프리카의 가짜 슈퍼고구마.....	115
12. 터미네이터, 트레이트, 정자 죽이는 옥수수.....	118

터미네이터 종자, 씨앗-식물-씨앗-식물의 순환을 끊다	118
트레이터 종자, 유전자를 끄고 켜는 기술	119
터미네이터 종단을 선언한 기만 전술	120
저들에게 GMO 를 먹이라!	123
식량의 지배, 그리고 식량의 지배를 통한 지배	125
정자를 죽이는 옥수수	125
여성 불임을 만드는 파상풍 백신, WHO 와 미국 정부의 후원	127
유전자조작 병균을 통한 인증청소	129
13. 조류독감과 유전자조작 닭	132
바이러스-제약회사-국방부	132
유전자조작을 통해 바이러스를 무기화	133
조류독감과 애그리비즈니스의 이익	134
유전자조작 닭, GMO 동물 시대를 열다	137
14. 아마겟돈이 열리다 - 터미네이터 기술부터 돼지에 대한 특허까지	139
몬산토가 드디어 D&PL(터미네이터 기술)을 인수하다	139
EU 특허당국, 터미네이터를 승인하다	140
몸집을 불리는 몬산토	141
정액에 특허	141
1980 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 생명에 특허를 허용하다	142
마치는 글	143
유럽을 무너뜨린 미국의 공격	143
교황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44
저항이 희망이다	145

저자 서문

이 책은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자리 잡은 어떤 엘리트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집요하게 세계 지배를 갈망했다.

대영제국을 대체한 이 새로운 미국 엘리트들은 “미국의 세기”를 선포하고, 알렉산더 대왕 이래 처음으로 지구적 군사 지배를 완성했다. 이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어느 국가든 멸망시킬 능력이 있었다.

강력하고 무자비한 이 엘리트들은 그러나 “식민지 해방, 자유, 민주주의, 경제개발, 자유시장, 인권”의 탈을 쓰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고, 다수 사람들은 늑대를 양으로 믿었다.

이 책은 본인의 저서 “A Century of War: Anglo-American Oil Politics and the New World Order”의 후속편이다. 이 책은 우리 생존의 가장 기본적 조건으로서 식량, 그 식량에 대한 권력의 잠식을 분석했다. 세련균형론자이자 현실정치가이자 오늘날 우리 세상의 디자이너인 키신저는 “석유를 지배하면 국가를 지배한다. 식량을 지배하면 인류를 지배한다.”라 말한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을 지배하겠다는 전략 구상은 1930 년대말에 나타났다. 주도자들은 미국에 새로 생겨난 민간 재단들이었다. 이 재단들은 매우 강력한 미국의 新엘리트 가문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이 가문들은 원래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동해안 세력”이라 불렸다. 하지만 전후 권력의 중심지는 시애틀, 휴스턴, 라스베가스, 아틀란타, 마이애미 등으로 퍼졌고 남쪽으로 중남미로 내려가고 아시아와 일본까지 미쳤다.

록펠러 일가야말로 2 차 대전 이후 성립된 미국 엘리트의 대표자다. 록펠러는 석유를 바탕으로 부를 쌓았지만 적극적으로 석유 외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전략을 택했다. 미국의 교육, 의료, 정신의학, 외교

정책에 손을 뻗었고, 이 책이 다루는 바로서, 생물학과 농업, 종자와 식량, 유전자와 생명 그 자체를 장악하고자 했다.

이들의 작업은 은밀히 이뤄졌고 다수 대중은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다. 미국인들의 삶은 자기도 모르는 새 차츰 차츰 이 세력이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물들어갔다.

유전자조작생물, 곧 GMO 의 역사는 사실상 록펠러 가문의 네 형제 (데이빗, 벨슨, 로렌스, 록펠러 3 세)의 정치의 역사다. 이들은 미국의 2 차 대전 승리 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온세계를 만들어, 아니 복속시켜 갔다.

유전자조작과 생명에 대한 특허는 2 차 대전 후 미국의 힘이 확대되는 것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 미국 엘리트들이야말로 다국적 애그리비즈니스라는 개념을 고안해냈고, “녹색혁명”을 후원하면서 석유화학에 바탕한 비료와 농자재를 보급했다. 유전자조작은 그 자연스러운 연장 내지 귀결이었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4 개의 회사가 인류의 식량줄을 쥐고 있었다. 옥수수, 콩, 쌀, 밀, 심지어 채소, 과일, 면화까지도 이들은 유전자조작한 뒤 특허를 받았던 것이다. 조류독감에 면역을 지녔다고 하는 유전자조작 닭도 나왔고, 돼지와 소의 유전자도 곧 이들의 특허상품이 될 것이다. 넷 중 셋은 오랜 기간 미국방부와 함께 생화학무기를 개발한 곳이고, 나머지 하나는 (명목상 스위스지만) 영국 회사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GMO 역시 영미 제국의 글로벌 사업이었다.

2003 년 5 월 바그다드 폭격의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부시는 GMO 를 미국의 전략적 사업으로 택했다. 이제 전지구적 GMO 폭격이 개시됐다. 유럽의 저항이 중대한 장벽이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이 인체 위험성 등을 이유로 GMO 를 불법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 년초 WTO 는 EU 의 문을 강제로 열어 GMO 를 들였다.

GMO 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정치적 압력, 회유, 강제, 사기, 기만, 심지어 암살이 도사리고 있다. 이 책이 범죄소설 느낌이 들면

꼭 틀린 것은 아니다. “소설”은 아니지만 “범죄”에 대한 기록은 맞기 때문이다.

농업 효율성을 높인다, 굶주림을 없앤다, 환경에 친화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인류를 먹인다 따위의 거짓말을 동원해 범죄를 진행해온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이미 돈이나 영리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미 연방준비제도, 영국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을 지배하는 세력들인데 무슨 돈이 아쉽겠는가?

이들의 목적은 지구상 생명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들을 막지 못한다면 GMO 프로젝트는 결국 전지구 식량생산을 완전하게 집어삼킬 것이다. 식량을 지배하면 인류를 지배한다. 지배 당하는 우리로선, 식량을 빼앗기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역자의 글

**“진실을 밝히면 정의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정의가 드러나면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주류 정보가 제공하는 아늑한 세계관에 젖은 사람에게 이 책은 너무 극단적이거나 위협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낄수록 평소 방치했던 비판 의식을 굳이 꺼내 힘껏, 그러나 어설프게 휘두른다.

그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비판 의식을 더욱 세게, 더 자주, 훨씬 근본적이고 전폭적으로 휘두르기 바란다. 특히 주류 세계관에 대해 공평하게 동일한 비판을 기울여달라. 이 책에 오류가 없다는 주장을 할 일은 내게 없고, 독자들이 비판적으로 읽으며 오류를 발견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만일 책의 내용, 아니 종지가 옳다면 부당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세상에 글을 내는 심정이다.

원저가 나온지 15 년이나 흘러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애초 근사한 역사를 목표한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며 요약 글이 쌓이자 역서로 만들어볼 욕심을 부렸던 것이다.

하지만 원저가 나온 2007 년을 기해 진실이었던 바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의미심장하다. 2022 년을 기하여 세상의 불의는 그 전 시대에 뿌리를 두고 오늘에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혀 정의가 드러났다면 용감하게 행동할지 여부는 우리의 선택이다.

2022年 8月 19日
운동의 시발, 미티야나에서
뢰이

제 1 부

준비된 기획, GMO

GMO, 미국의 전략이 되다

미국 정부의 맹목적인 GMO 지지

1980년대초 유전자조작생물(GMO) 개발붐이 일어났다. 여러 애그리비즈니스 업체들이 앞다투어 이 신생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을 규제해야 할 미국 정부는 소비자의 건강이나 환경적 안전보다 이상하리만치 유전공학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했다.

1986년 조지 H. W. 부시 부통령은 몬산토 관계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비공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신생 생명공학 산업에 대해 어떻게 하면 “규제를 없애줄 것인지”에 관해서였다.

부시는 1988년에 대통령이 됐다. 그는 GMO를 규제하는 새로운 기관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의 농업부, 환경청(EPA), 식품의약품청(FDA), 국립보건연구소(NIH)의 네 기관이 GMO 제품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¹ 나아가 네 기관 사이의 책임 구분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었으므로 규제의 혼란, 중복, 공백을 야기했고, 그 틈을 타 몬산토와 여타 GMO 기업들은 자기 상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도입하였다.

사실 정부 규제기관은 대부분 경우 **GMO 회사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근거로 신상품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순이었다.

GMO 업계는 GMO가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미 정부는 GMO 업계가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여러 연구소와 과학

¹ Dr. Henry Miller, quoted in Eichenwald et al., *op. cit.* 1979-94년간 FDA에 근무한 밀러는 뉴욕타임스에 “이 분야에서 미 정부 기관들은 거대 애그리비즈니스 업체들이 하라고 요청한 것을 정확히 그대로 했다”라고 말했다.

자들이 생명공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다. FDA 의 프리빌 박사도 식물 세포에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되면 의도치 않은 독소가 생긴다며 그 위험을 경고했다. 여러 정부 과학자들은 GMO 식품이 판매되기 전에 안전성 실험을 거쳐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주장을 했다.²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상식적 요구를 묵살하며 몬산토의 편을 들어 주었다.

“충분히 동일하다”는 사기

1992 년 부시는 “GMO 식물은 일반 식물과 충분히 동일하다 (substantially equivalent)”고 발표했다. 유전자조작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와 충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결정은 이후 행정부에도 이어진다.

일반 콩을 소비자들이 먹기 전에 정부가 별다른 실험을 거칠 필요가 없듯, 일반 콩과 “충분히 동일한” GMO 콩을 시판할 때도 별도 실험은 필요 없다는 논리다.

양심적 과학자들은 “충분히 동일” 이론이 사이비 과학이라며 비판했다. 정부에게 과학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정책은 GMO 식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실험과 검증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역겨운 것은 몬산토 같은 기업들이 자기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GMO 식물과 일반 식물이 충분히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제품에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GMO 식물과 일반 식물이 충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는 점이었다.

² Quoted in Kurt Eichenwald et al., "Biotechnology Food: From the Lab to a Debacle", *New York Times*, 25 January 2001.

소 성장 호르몬을 둘러싼 은폐와 거짓말

처음으로 대량 판매된 GMO 제품은 rBGH(재조합 소 성장 호르몬)였다. 몬산토가 특허를 가진 유전자조작된 인공 호르몬으로 FDA 는 1993 년 시판을 허용했다. rBGH 는 포실락(Posilac)이라는 상표명으로 판매됐는데, 몬산토는 이를 소에게 주입하면 우유 생산량이 30 프 로까지 늘어난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1) 일리노이대 애플스톤 박사는 rBGH 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rBGH 가 유발하는 다른 호르몬 IGF-1 에 의함). 특히 “몇년 지나서” 암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

(2) 우유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젖소가 도태되는 시간이 빨라졌다. 심할 경우 우유 생산 수명이 2 년씩 단축됐다. 많은 소들 발굽이나 유방에 염증이 발생했다. 염증 증가는 항생제 사용 증가로 이어졌다. 기형 출산도 나타났다.

몬산토는 버몬트 대학에 50 만불을 지원하여 rBGH 안전성 실험을 의뢰했었다. 실험에 참가한 한 과학자는 1991 년 내부 데이터를 폭로했다. rBGH 를 투여한 소들에게 유방염과 기형출산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이터였다. 하지만 실험의 총책임자 과학자는 곧바로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rBGH 를 투여한 소들이 일반 소들에 비해 큰 건강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³

몬산토는 rBGH 가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거쳤다고 했지만, 사람 건강에 대한 “장기적” 영향에 대해 실험한 적이 없다. 장기적 건강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대략 2 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일반적 견해다. rBGH 경우 30 마리 쥐에 대해 90 일간의 실험이 있었을 뿐이다. 몬산토는 이 실험 결과를 FDA 에 제출했으나, 이 단기 실험 결과도 FDA 는 결코 공개하지 않았다.⁴

³ Jennifer Ferrara, "Revolving Doors: Monsanto and the Regulators", *The Ecologist*, September/October 1998.

⁴ *Milk, the Deadly Poison*, Argus Press, Inglewood Cliffs, NJ, 1997, pp. 67-96, 저자(Robert Cohen)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FDA 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

1990 년초 몬산토 최고 과학자 마가렛 밀러는 FDA 에 식품안전 부 국장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우유에 함유될 수 있는 항생제의 양을 100 배로 올렸다. rBGH 관측에 있어서는 쾌거 였다. 규제해야할 기관과 규제받아야할 업계 사이의 매우 부적절한 애정행각이었다.⁵

1991 년 FDA 는 GMO 식품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는 정책 부위원장 자리를 신설했다. 초대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마이클 R. 테일러였다. 테일러는 식품과 의약품 소송 전문 변호사였는데, 이전에 몬산토를 비롯한 대형 생명공학 회사들을 수차례 변호했던 인물이다.⁶

(1) 테일러는 GMO 에 대한 별도 라벨이 필요하지 않다는 FDA 정책 을 초안했다. 따라서 우유 제품에 rBGH 가 들어갔는지 여부가 표시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우유를 마시면서 그 속에 인공호르몬 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2) 테일러 지휘 하에 FDA 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데이터(소 기형 출산, GMO 섭취로 인한 사람 건강 문제 등)는 “기업 기밀 정보”이 므로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테일러는 FDA 를 나온 뒤 몬산토 대외정책 부사장에 임명된다⁷. 몬산토 변호사가 FDA 정부 고위직이 되어 몬산토 뒤를 봐주다가, FDA 를 나와서는 몬산토로 돌아간 것이다.

당했고,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패배했다. FDA 와 법원 논리는 “BGH 를 먹인 쥐가 어떻게 됐는지 대중이 알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몬산토에게 불가역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였다. 가용한 빈약한 자료를 종합, 저자는 실험에 사용된 모든 쥐에게 암이 발생했다고 본다.

⁵ Robert Cohen, *FDA Regulation Meant to Promote rBGH Milk Resulted in Antibiotic Resistance*, 5 May 2000, in <http://www.psrast.org/lbgghsalmonella.htm>.

⁶ Michael R. Taylor, "Biography", in Food Safety Research Consortium, Steering Committee, in <http://www.rff.org/lfrsc/bios.htm>.

⁷ Steven M. Druker, *Bio-deception: How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s Misrepresenting the Facts about Risks of Genetically Engineered Foods...* ,

미국은 rBGH 를 외국에도 판매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으나, 캐나다는 1999 년 보건부에서 제품 판매를 불허했고, 유럽도 유방암 및 전립선암 위험을 거론하며 불법화했다.

FDA 소속 과학자 리차드 부로우 박사는 1985 년부터 5 년 동안 몬산토 rBGH 에 대한 FDA 의 심사를 맡았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rBGH 실험에서 병든 소들은 빼버리는 등 데이터 조작이 이뤄졌다.⁸ 부로우는 FDA 가 국민 건강 지킴이에서 기업 이윤 지킴이로 변질됐다고 비판했고, 기업에서 작성한 안전성 조사들을 무더기로 불승인했다. 그 결과 그는 1989 년 “무능”을 이유로 해고 당했다.

1998 년 4 월 폭스 TV 의 최고 기자 2 명은 rBGH 스캔들, 특히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취재하였다. 몬산토 압력으로 폭스는 제작물을 없애버리고 두 기자(제인 애크리와 스티브)를 해고했다. 둘은 2000 년 플로리다 주법원에서 승소했으나⁹, 자금력이 풍부한 폭스와 몬산토는 상급 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뒤집어버렸다.

돌고 도는 세상, 아니 사람

GMO 종자 회사들(몬산토, 듀폰, 다우 등)과 미국 정부의 유착은 남다른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이 기업과 정부를 오가는 것을 “회전문(revolving door)” 인사라 한다.

(1) 2001 년 부시의 농업장관이 된 앤 베네만은 칼진(Calgene)이라는 생명공학 회사의 이사였다. 이 회사는 몬산토의 자회사가 됐다.

<http://www.psrastr.org/fdaiaawstmore.htm>. 드루커는 1998 년 5 월 FDA 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글을 썼다.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실험 및 라벨링 두 가지를 요구했으나 2007 년 현재 미국에선 둘다 시행하지 않고 있다.

⁸ Robert Cohen, *FDA Regulation Meant to Promote rBGH Milk Resulted in Antibiotic Resistance*, <http://www.psrastr.org>, 5 May 2000.

⁹ RBGH Bulletin, *Hidden Danger in Your Milk?: Jury Verdict Overturned on Legal Technicality*, <http://www.EoxrBGHsuit.com>. 2000

(2) 림스펠드 국방장관은 몬산토의 자회사 G.D. 시얼의 CEO 출신이다. 이 회사는 그 유명한 인공감미료이자 발암물질인 아스파탐을 생산하는 곳이다. 그는 타미플루 특허를 보유한 생명공학 회사 길레트 사이언스의 이사장이기도 했다.

(3) 미키 캔터는 클린턴 당시 미국 무역대표이자 변호사였는데, 정부를 나간 뒤 몬산토 이사회에 들어갔다.

(4) 윌리엄 D. 러켈샤우스도 몬산토 이사였다. 그는 닉슨과 레이건 하 EPA 장관이었다.

(5) 마이클 A. 프리드맨은 몬산토의 제약부문인 G.D. 시얼의 부사장이었는데, 이전에는 FDA 국장 대리였다.

(6) 마사아 헤일은 몬산토의 영국정부 업무 담당이었는데 전에는 클린턴 하 정부간 업무 담당이었다.

(7) 린다 J. 피셔는 몬산토 대외업무 부사장인데 전에는 EPA 의 살충제 및 독극물질 부서 관리자였다.

(8) 몬산토의 법적 자문관 잭 워튼은 카터 행정부 하 백악관 참모장이었다.

누가 누구의 주인인가?

분명 미 정부는 GMO 를 장려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최소한 4 명의 대통령이 GMO 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보낸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일까? 클린턴은 영국 수상에게 압력을 넣어 GMO 비판자를 침묵시키기까지 했다. GMO 제품의 건강 위험성에 대한 무서운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몬산토 따위 회사들이 아무 규제도 없이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유전자 혁명은 원래부터 록펠러 재단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 록펠러 재단은 유전자 혁명에 1 억불 이상을 지출했다. 유전자 혁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전략이었다. 그 전략은 베트남전 시절에 태동, 수십년 준비된 것이었다.

2 장

과학, 정치에 무릎 꿇다

GMO 식품에 대한 독립적 연구의 결말

1995 년 스코틀랜드 애버딘 소재 국립 로weet연구소 소속 아르파드 푸츠타이 박사는 GMO 섭취가 동물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다. 푸츠타이 박사는 생명공학 분야 경력이 35 년이 넘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 중의 전문가였다.

몬산토의 GM 콩이 미국과 아르헨티나로 팔리기 직전에 스코틀랜드 정부는 로weet연구소에 150 만불을 주면서 푸츠타이 박사 지휘 하 3 년의 포괄적 연구를 의뢰했던 것이다.¹⁰

이 연구가 중요했던 것은 GM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세계 최초의 독립적 연구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나와있던 유일한 다른 연구는 몬산토 자체에 의한 것으로 결론은 물론 GM 식품이 건강에 완전히 무해하단 것이었다.

푸츠타이는 GM 감자를 쥐에게 먹이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감자는 진딧물을 퇴치하기 위해 살충제를 자기 몸에서 생산하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것이었다. 푸츠타이 자신도 그러한 GM 기술은 살충제 살포 필요를 없앴으로써 식량생산에 큰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쥐에게 GM 감자를 먹인 결과

하지만 1997 년말이 되자 푸츠타이는 의심을 품게 됐다. 110 일 이상 GM 감자를 먹인 쥐는 심각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들은 일반 감자를 먹인 쥐에 비해 크기와 체중이 적었다. **간, 심장, 뇌가 훨씬 작**

¹⁰ 윌리엄 앵달이 푸츠타이 박사와 인터뷰한 내용, 23 June 2007.

왔고, 면역력이 약했다. 특히 뇌가 작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1998년 8월 푸즈타이는 영국 TV 방송에서 폭탄 발언을 터트렸다. “시민들을 기니픽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GM 감자를 먹은 쥐들은 성장이 살짝 지체됐고 면역체계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제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해질 때까지 GM 식품을 먹지 않을 겁니다.”

양심적 과학자의 수난

방송 이후 48 시간도 지나지 않아 푸즈타이는 고용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의 부인(역시 로웬의 저명한 과학자)도 해고됐다. 그리고는 그의 명예와 신뢰도에 대한 저열한 공격이 개시됐다.

(1) 로웬연구소 스스로 푸즈타이가 실험 상의 “실수”를 했다고 그를 비난했다.

(2) 다른 과학자들과 정부 인사들도 푸즈타이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3) 이에 반발, 1999년 2월, 13개국의 약 30명의 과학자들이 푸즈타이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4)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국 로열소사이어티가 나섰다. 이들은 푸즈타이의 연구를 검토한 후 “실험의 설계와 실행, 분석의 여러 측면에 오류가 있어서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했다.¹¹ 이들은 300년된 명망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이 발언은 무게감이 있었다.

(5) 5월 18일,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도 유사한 내용으로 푸즈타이를 비난했다.

¹¹ The Royal Society, Review of Data on Possible Toxicity of GM Potatoes, June 1999, Ref: 11199, p. 1, in <http://www.royalsoc.ac.uk>.

앤드루 로웰의 조사에 의하면 로열소사이어티와 과학기술위원회가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블레어 정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보다 높을까

48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수년이 지난 뒤에 밝혀졌다. 다른 누구도 아닌 토니 블레어 수상이 직접 푸즈타이의 상사인 필립 제임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블레어는 푸즈타이의 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블레어는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가? 다른 아닌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다. 클린턴은 블레어에게 GMO 애그리비즈니스가 엄청난 성장을 약속하는 미래 산업이며, 영국의 제약 및 생명공학 업계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90년대말이면 월스트리트에선 생명공학 회사들의 주가가 치솟고 있었다. 클린턴이나 블레어는 스코틀랜드 촌구석의 한 과학자가 재 뿌리는 것을 놔둘리 없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푸즈타이의 옛 동료 오르스코프가 제공해줬다. 푸즈타이를 해고한 전화 사슬의 첫 출발점은 몬산토라는 것이다.¹²

몬산토가 클린턴에게 전화했고, 클린턴은 블레어에게 전화했고, 블레어는 제임스에게 전화했고, 24 시간 뒤 푸즈타이는 해고됐던 것이다.

푸즈타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1999년 10월 재기에 도전한다. 영국의 명망있는 학술지 더랜셋에 연구결과를 발표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더랜셋의 편집자 리차드 호튼은 “푸즈타이의 논문을 실어 주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협박 전화를 한 것은 소사이어티의 부회장 피터 라크만 박사였다.

¹² Robert Orskov, quoted in Andrew Rowell, "The Sinister Sacking of the World's Leading GM Expert – and the Trail that Leads to Tony Blair and the White House", *The Daily Mail*, 7 July 2003.

라크만은 푸즈타이를 공격하며 과학의 “독립성”을 운운했는데, 그 자신은 몹시 독립적이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는 게론 바이오메드라는 생명공학 회사(동물 복제)의 컨설턴트였고, 애드프로텍이라는 농업-생명공학 기업의 비상임 이사이며, GMO-제약 거대기업 스미스클라인비참의 과학 자문위원이었다.

더랜셋은 푸즈타이의 연구를 발간한 뒤 로열소사이어티와 생명공학 업계로부터 가혹한 공격을 받고, 결국 푸즈타이와 공저자인 스탠리에웬 박사는 애버딘대학에서 사임한다.¹³

영국 정부의 맹목적 GMO 지지

영국 정부도 GMO 를 지지하기 위해 무리수도 서슴지 않았다.

(1) 2000 년 블레이어 정부는 그레인시드라는 사기업에게 3 년 기간의 연구를 위탁한다. 어느 GMO 씨앗이 영국의 국가종자목록에 들어갈도 안전할지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영국 농업부 내부 문서에 의하면(런던 Observer 신문에서 입수) 그레인시드의 일부 과학자는 데이터를 조작해서 “GMO 씨앗이 실제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게” 했다.¹⁴

(2) 호매완 박사는 오픈대학교의 선임 과학자였다. 그녀는 유전자조작은 일반적 육종과 전혀 다르고, 그 과정이 통제 및 예측 불가능하며, 유전자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GMO 로비 세력들은 결국 그녀를 사임하게 만든다.¹⁵

¹³ Stanley Ewen and Arpad Pusztai, "Effect of Diets Containing Genetically Modified Potatoes Expressing Galanthus Nivalis Lectin on Rat Small Intestine", *The Lancet*, 16 October 1999.

¹⁴ Anthony Barnett, "Revealed: GM Firm Faked Test Figures," *The Observer*, 16 April 2000.

¹⁵ Anastasia Stephens, "Puncturing the GM Myths", *The Evening Standard*, 8 April 2004. 압력에도 불구하고, 호매완 박사는 GMO 위험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냈다.

(3) 블레어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 관련 윤리 위원회(BBSRC)를 신설하여 국가가 지원한 GMO 연구에 참가한 피고용인이 GMO 식물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개 발언하면 해고 또는 고소당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회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됐다.¹⁶

(4) 2003 년 6 월 블레어는 환경장관 마이클 미처를 해임한다. 미처는 영국의 이라크전 참전에도 반대했고, GMO 작물이 시장에 허용되기 전에 훨씬 더 엄격한 실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영국은 이 정도였지만 대서양 건너 유전자혁명의 본고장인 미국은 훨씬 앞서나가고 있었다. 80 년대와 90 년대 유전자 정책의 뿌리는 60 년대 베트남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록펠러의 하수인 키신저가 “식량의 무기화”를 추진하던 시기다.

¹⁶ Norfolk Genetic Information Network, *Scientists Gagged on GM Foods by Public Funding Body with Big Links to Industry*, press release, 1999, <http://www.ngin.tripod.com/scigag.htm>.

제 2 부

록펠러의 세계 구상

3 장

키신저, 닉슨, 그리고 록펠러

미국, 새로운 전략을 짜다

1960년대말 미국 헤게모니는 위기에 놓여있었다.

(1)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전국을 흔들었다. 무수한 젊은이들이 시체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왔고, 명분 없는 전쟁에 절망한 병사들은 마약에 취하거나 전장에서 장교를 사살했다. 미국 지배계급은 시민들의 저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2) 미국 경제는 서유럽과 일본이 부상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누리던 절대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다. 1969년에 이르면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누리던 외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대신 금을 요구했다. 미국 기업들의 전후 수익률은 1965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었다.

이때 미국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해 외국기업들을 사들이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미국 기업의 다국적 기업화가 시작되었고, 이는 나중에 세계화(globalization)로 이어졌다. 자연히 미국 내 일자리는 줄었고 산업이 쇠퇴했다.

1960-74년 사이에 기업과 가계와 소비자와 지역정부 부채는 합하여 3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정부의 부채는 무려 1,000% 증가했다. 달러와 금의 태환이 과연 지속될지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다.

미국 초엘리트층은 돌파구를 찾고자 1970년대초 방향전환을 시도한다.

(1) 1973년 록펠러 형제는 300명 가량의 유력인사들을 유럽, 북미, 일본에서 직접 선발하여 삼극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를 설립했다. 외교위원회(CFR)가 전후 미국의 독주를 배경으로 탄생했다면 삼극위원회는 유럽과 일본의 부상을 반영한 것이다. 창립멤버로는

브레진스키, 지미 카터, 조지 H.W. 부시, 폴 볼커, 앨런 그린스팬 등이 섭외되었다.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브레진스키의 아이디어였고, 데이빗 록펠러는 그를 삼극위원회의 첫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 삼극위원회는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만들고자 했다. 90년대 들어 “세계화”란 이름이 붙은 흐름을 만들어낸 것도 이들이다.

(2) 시민의 저항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다. 1975년 삼극위원회는 하버드대 교수 사무엘 헌팅턴에게 정책제안서 집필을 맡겼다. 그는 “민주주의의 과잉”을 비판하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부 개인이나 단체들은 시사에 무관심해야” 하며, “정부는 비밀과 기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¹⁷

민주주의 정부는 여론, 시위, 시민들의 저항에 휘둘리는 약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삼극위원회는 정부의 영역에 놓여있던 서비스들을 민영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3) 1970년대초 시대적 배경에서 미국 엘리트가 택한 전략 가운데 어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정책이었다. 아래 상술한다.

식량의 무기화

1973년 키신저는 국무장관과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었고, 미국 외교는 키신저의 지배 하에 있었다. 그는 석유와 더불어 식량을 무기로 삼기로 결정한다. 키신저는 다음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를 지배하면 국가를 지배한다. 식량을 지배하면 인류를 지배한다.”

1971, 1972년 흉작이 들었고, 소련은 곡물 수입을 꺾고 있었다. 키신저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소련에 무려 1천만톤의 곡물을 판매했다. 그 일은 농업부 소관이지만 키신저 말에 의하면 “농업은

¹⁷ Samuel Huntington, et al., *The Crisis of Democracy: Report on the Governability of Democracies to the Trilateral Commission*, Trilateral Commissi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농업부가 맡기에 너무 중요해서” 국무부에서 처리했다. 이 정도 양은 정부 보유량으로 충당이 안됐기 때문에 카길 같은 민간 곡물 거래업체들의 힘을 빌려야 했다.

1973년 세계 식량생산량의 거의 1%에 달하는 곡물이 소련으로 흘러들어가자 세계 식량보유고가 고갈되었고 식량가가 폭등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호주 등지는 가물었고 세계적 식량위기가 왔다.

마침 이때는 키신저의 작업으로(옴키푸르 전쟁을 기획하여 OPEC의 대응을 유도) OPEC도 석유가를 인상하여 오일쇼크가 온 시점이었다. 국제시장에서 석유와 식량 가격이 모두 300-400% 뛰었다.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미국, 아니 미국 엘리트의 새로운 식량정책을 펼치기 위한 정지작업이 완료되었다.

국가와 기업의 동맹

냉전 동안 미국은 국제적 곡물 보유고에 반대했다. 공공부문이 곡물을 비축해두면 곡물 거래업체의 농간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 곡물 보유량은 1972년 홍작이었을 때도 2.09억 톤이 있었으나(66일치), 1974년 풍작이었음에도 2500만톤으로 줄었고(37일치), 1975년에는 27일치에 불과했다.¹⁸

곡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곡물이 소수의 미국 곡물 재벌들 손에 있던 것이 문제였다. 미국 정부는 그러한 사기업들에게 곡물 보유량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감시와 비판을 피해 식량 공급을 조종할 수 있었다.

1974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식량회의에서, 펜실베이니아 농업장관 존 맥헤일은 전세계 곡물 보유량의 95%가 여섯 개 다국적 기업 소유임을 밝혔다. 빅식스는 Cargill Grain Company, Continental Grain

¹⁸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orld Grain Consumption and Stocks, 1960-2003*, Washington DC, Production, Supply & Distribution, Electronic Database, updated 9 April 2004.

Company, Cook Industries Inc., Dreyfus, Bunge Company, Archer-Daniel Midland 이다.¹⁹

이 회의에서 국제식량노동자연맹의 장 피에르 라비엑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십년간 애그리비즈니스가 급부상한 것과 똑같은 속도로 굶주림과 식량부족이 확산됐다.”

1973년 식량위기를 거치며 미 정부와 미국 곡물업체가 동맹을 형성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 동맹에 의해 식량은 미 정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또 이 동맹은 훗날 유전자 혁명의 토대가 된다.

식량 제국주의

다음으로 1970년대초 미국 농업정책이 어떠한 전환을 맞는지 살펴보자.

1972년 카길의 홍보 부문 부회장이던 윌리엄 피어스는 닉슨의 무역 협상 특별 부대표가 됐다. 피어스는 대통령의 국제무역투자정책 위원회에 들어가 위원회의 보고서(윌리엄스 보고서)에 기여했다.

윌리엄스 보고서는 미국 농업이 규모, 효율, 기술, 자본에 압도적 우위에 있으므로 세계 식량 수출의 리더가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농업 무역장벽을 없애고, “비효율적 농부”들에 대한 보조와 지원을 철폐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했다.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려는 유럽의 정책은 “비효율”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이 보고서는 가증스럽게도 “냉전 시대 미국이 수행한 국제적 역할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되갚아야 한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다.

피어스의 전략은 닉슨의 1972년 신경제정책의 핵심이 된다. 그는 다시 미국 국내농업 정책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의 목표는 미국 농업 부문의 과잉 인력을 제거하는 것, 구체적으로 수십만 가족농을 도산시키고 애그리비즈니스를 키우는 것이었다. 패밀리팜은 팩토리팜이

¹⁹ Laurence Simon, "The Ethics of Triage: A Perspective on the World Food Conference", *The Christian Century*, 1-8 January 1975.

되어야 하고, 애그리컬처는 애그리비즈니스로 변모해야 했다.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피어스는 다시 카길로 돌아간다. 회전문은 잘 돌아간다.

닉슨 행정부가 채택한 피어스의 전략은 **식량 제국주의(food imperialism)**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은 유럽,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에게 식량자급을 포기하고 미국의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변했다. 영국이 1846 년에 써먹었던 “자유무역” 논리를 가져온 것이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때 쓰는 이론이다.

피어스는 제 3 세계 국가들이 곡물이나 육류는 자급하지 말고 미국 것을 수입해서 먹어야 하며, 대신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경제 논리를 내세웠지만, 개발도상국의 식량자급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적 이유가 더 컸다. 닉슨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개도국의 국내 식량생산 능력을 파괴하고자 했고, GATT 가 동원됐다.

피어스는 유럽과의 GATT 협상 전략도 짚으며,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AP)을 공격했다.²⁰ 피어스는 미국의 공업 부문을 희생하는 대신 농업 부문의 승리를 노렸다. 그 결과 미국의 여러 전통 산업들이 쇠퇴했다. 한때 강성했던 철강산업 벨트는 녹슨 벨트(rust belt)로 전략했다.

결과적으로 1970 년대를 거치며 미국은 (1) 정부와 곡물 거래업체간의 동맹을 형성했고 (2) 국내적으로는 “자유시장” 명분 아래 (“경쟁력” 없는) 가족농, 소농, 자립농을 몰락시키고 대농, 기업농, 기계농, 수출농을 키웠고, 그 결과 압도적 식량공급 능력을 갖추었으며 (3)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외국의 농업 무역장벽(및 식량생산 기반)을 제거하여 미국 곡물에 대한 의존성을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키신저가 말하던 “식량의 무기화”가 완성됐다.

²⁰ A. V. Krebs, Cargill & Co.'s "Comparative Advantage in Free Trade", *The Agribusiness Examiner*, #31, 26 April 1999.

(1) 1973 년 소련에게 막대한 곡물을 제공한 것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했다.

(2) 베트남전 반대여론으로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가 어려워지자, 키신저는 미 의회를 우회하여(PL 480 이용) 식량 원조를 지속했다.

(3) 칠레에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개혁을 시작하자 미국은 PL 480 **식량원조를 차단**했다. 국무부와 CIA 는 칠레 우파 부농들과 합작하여 국내 식량공급을 줄였고, 식량 수입을 위한 외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식량부족 사태가 발발, 아옌데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졌다. 1973 년 미국이 후원한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자 미국은 **식량원조를 재개**한다.

4 장

인구를 줄이고 자원을 가져간다

키신저의 극비문서

1974 년 4 월 키신저는 소수의 핵심 부서장에게 최고 비밀문서를 내려보냈다. 국방장관, 농업장관, 국무 부장관, CIA 국장 등이 수신자였다. 문서 제목은 “세계적 인구 증가가 미국의 안보와 해외 이익에 가지는 함의”였고, 줄여서 NSSM 200 이라 불리게 된다. 존 록펠러 3 세의 건의로 닉슨이 지시하여 작성된 것이다.²¹

1975 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닉슨이 사임한 직후, 후임자 제럴드 포드는 곧바로 NSSM 200 을 미국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다.

이 문서 내용은 너무 폭발적이어서 철저한 비밀에 부쳐졌고, 카톨릭계 한 민간단체의 법적 행동으로 1989 년에 와서 비밀해제됐다.

미국이 이 문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은 1974 년 유엔 인구회의가 미국의 안을 거부한 뒤다. 미국의 안은 곧 록펠러 재단, 주요하게는 록펠러 3 세의 기획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세계적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위한 “행동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카톨릭 교회, 공산국가(루마니아 제외),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 안을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 수뇌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개적 방식이 아닌 은밀한 공작을 통해 인구감소를 실현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키신저에게 NSSM 200 작성을 지시한 것이다.

²¹ Henry Kissinger, *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 200, April 24, 1974: Implications of Worldwide Population Growth for US Security and Overseas Interests*, Initiating Memo. Complete text is contained in Stephen Mumford, *The NSSM 200 Directive and The Study Requested*, 1996, <http://www.populationsecurity.org/11-CH3.html>.

이 문서의 핵심은 “가난한 나라의 열등한 인종들이 너무 증가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그 결과 미국이 자원, 원료, 원자재를 값싸게 얻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그 인구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인구감소 정책을 실시해야 했다. **직접적 수단은 개도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받아들일 때만 원조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간접적 수단은 유엔이나 브레튼우즈 기구(IMF, 세계은행)를 통하는 것이었다.**

이 문서는 피어스와 카길의 대변하는 애그리비즈니스 로비의 흔적을 뚜렷이 담고 있다. 키신저는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1) 최빈국의 식량증산을 강조했고, 이는 록펠러 재단의 **녹색혁명** 확산을 뜻했다. 1960 년대의 녹색혁명이란 화학비료, 관개시설, 개량종자를 도입한 것인데, 비료와 농약과 종자는 물론 모두 미국의 애그리비즈니스 업체들의 제품이였다.

(2)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식량이 이동하기 위한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이는 각국의 무역장벽과 보호정책 제거를 뜻했다. NSSM 200 은 “효율적 생산자가 최대 생산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개방적인 국제 농업무역 시스템”을 강조했다. 이 “효율적 생산자”란 결국 카길, ADM, 컨티넨털 그레인 등 곡물 메이저들이였다.

키신저는 미국이 식량 생산량을 설정하는 데 있어 최빈국(및 선진국)의 일반적 수입량에 더해 간혹 발생하는 흉작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 자체가 타국이 만성적 식량 부족 사태, 곧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진정한 의미의 식량의 무기화다.

나아가 키신저는 인구 급증과 식량 부족이 심각한 불안정 혹은 국제분쟁을 낳을 수 있는 국가로 13 개를 지목했다.²² 곧, 인도, 방글라데

²² Ibid., Part II: Policy Recommendations, I. Introduction-A U.S. Global Population Strategy, B. Key Country priorities in U.S. and Multilateral Population Assistance.

시,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태국, 이집트,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였다. 우연히도 이 나라들은 지구 상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면서, 극도의 정치적 불안정을 겪게 되는 곳이기도 했다. NSSM 200 은 이 나라들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야 미국이 이 자원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제노사이드

이는 제노사이드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키신저는 이미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제국주의로 비난받지 않기 위해 미국은 (1) 부부가 몇 명의 아이를 가질지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그 판단을 돕기 위해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주며, (2) 인구증가가 빈국의 가난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미국은 걱정해주고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라고 말했다.”²³

인구감소가 “선택의 자유, 지속가능한 개발”의 탈을 쓴 것이다. 키신저는 빈국이 산야제한과 식량증산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구를 제한하지 못하는 국가에게 미국은 식량원조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M 200 은 개도국의 인구감소를 미국의 안보 사안으로 삼은 첫 문서다. 이 문서를 요약하면 **미국은 자원 풍부지역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빈국의 인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식량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시각은 키신저 개인의 것이 아니다. 키신저 자신이 전후 미국 엘리트층 가운데 가장 강력한 록펠러 가문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NSSM 200 이 시행되자 미국은 “불운한” 13 개국에 대한 개입을 시작한다. 이 나라들은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도 모른채 당해야 했다.

²³ Ibid., Part II: Policy Recommendations, I. Introduction-A U.S. Global Population Strategy, F. Development of World-Wide Political and Popular Commitment to Population Stabilization and Its Associated Improvement of Individual Quality of Life.

NSSM 200 이 시행된지 14 년이 지났을 때, 1980 년대말부터 브라질 보건부는 브라질 여성이 대규모적으로 불임화됐다는 보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4-55 세 여성의 44 프로가 영구적 불임이었다.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이 불임 기술을 실시했다.²⁴

이들은 모두 USAID 의 지휘를 받았다.²⁵

상황이 이러하자 브라질 정부는 1989 년 USAID 에게 “불임 기술이 과도하며 필요 이상으로 실시됐다”고 항의한다. 일부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 출신의 브라질 인들은 훨씬 많이 불임 기술을 받았다.²⁶

록펠러 형제들 가운데 인구감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자는 존 D. 록펠러 3 세였다. 닉슨은 1969 년 7 월 그를 미국의 미래와 인구증가에 대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록펠러가 이때 작성한 보고서에 들어있던 정책 제안들이 채택된다. 예를 들면, 모든 학교에 성교육 프로그램 도입, 인구증가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도입, 자발적 불임 기술 장려, 피임 및 낙태 자유화 등이었다.

²⁴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the US Pathfinder Fund, the Association for Voluntary Surgical Contraception, Family Health International 등

²⁵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Inventory of Population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cited in Baobab Press.

²⁶ Baobab Press, *op. cit.*

제 5 장

저들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라

푸에르토리코의 인간 기니픽

푸에르토리코는 주권국가라기보다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였다.

록펠러 일가는 1930 년대부터 푸에르토리코를 인체실험장으로 간주했다. 1931 년에 록펠러 의학연구소(록펠러 대학교의 전신)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된 코넬리우스 로즈의 암 실험을 재정 지원했다.

로즈는 미친 과학자였다. 그는 실험대상자들에게 고의로 암 세포를 감염시켰고, 그중 8 명이 사망했다. 로즈는 이렇게 말했다. “푸에르토리코 인들은 가장 더럽고 게으르고 열등하고 도둑놈 같은 인종이다. 이 섬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건 정책이 아니라 쓰나미가 와서 이들을 청소하는 것이다. 나는 8 명을 죽임으로써 청소에 기여했다.”²⁷ 로즈의 이 편지는 1932 년 2 월 타임 지에 공개됐다.²⁸

로즈는 살인죄로 기소 당하기는커녕 메릴랜드, 유타, 파나마에 미 육군 생물학 전투 시설을 설립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그뒤 미국 원자력에너지위원회에서 일했는데, 이곳에서는 죄수, 환자, 미군들에 대한 비밀 방사선 피폭 실험이 진행됐다.²⁹

²⁷ Susan E. Lederer, "Porto Ricochet", *Joking about Germs, Cancer, and Race Extermination in the 1930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2, p. 732. Also "Porto Ricochet," *Time*, 15 February 1932, in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743163,00.html> for the quote by Rhoads.

²⁸ *Time*, *op. cit.*; see also, Douglas Starr, "Revisiting a 1930s Scandal: AACR to Rename a Prize," *Science*, vol. 300, no. 5619, 25 April 2003, pp. 573-574.

²⁹ *Ibid.* The ACHE Report on the Rhoads cancer experiments is available at <http://www.seas.gwu.edu/nsarchive/radiation/>. See also Stycos, J.M., "Female Sterilization in Puerto Rico", *Eugenics Quarterly*, no. 1, 1954.

록펠러 3 세는 50 년대부터 이곳을 미국인들이 강제 불임시술을 당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모든 정신박약 또는 정신병자는 퇴원 전에 불임시술을 받아야 했다. 같은 죄를 세번 저질렀을 때는 의사의 재량 하에 강제 불임시술을 할 수 있었다. 결국 캘리포니아는 총 9,782 명을 불임시켰는데, 이들 대부분은 여성, 그것도 곤궁한 형편으로 매춘을 하던 사람들이었다.³⁰

독일로 흘러간 우생학, 그리고 나치

1920 년대 록펠러 재단의 우생학 사랑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돈은 독일로 흘러가 1922-26 년에 독일 우생학자 수백 명에게 무려 41 만불을 제공했다. 1926 년에는 25 만불을 지원하여 베를린 카이저 빌헬름 정신의학 연구소를 설립했다(당시 25 만불은 지금 2500 만불 이상의 가치). 1929 년에는 카이저 빌헬름 두뇌연구소에 31 만 7 천불을 제공했다.³¹

당시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의 탁월한 정신의학자로 에른스트 뤼딘이 있었다. 뤼딘은 1932 년 세계우생학연합의 회장이 됐다. 이들은 “사회적 짐”이 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임화시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뤼딘은 히틀러의 우생학의 설계자가 된다. 그는 1933 년 나치 불임법의 설계자였고, 나치의 강제 불임시술 프로그램을 지휘했다. 뤼딘은 독일 우생학 발달과 인종청소에 대한 공로로 히틀러에게 두번이나 포상을 받았다. 이 불임법에 따라 약 40 만 명의 독일인들이 조울증이나 정신분열 진단을 받고 강제로 불임되었다. 장애를 가진 아동들 수천명은 그냥 죽여버렸다.³²

³⁰ Edwin Black, *op. cit.*, p. 122.

³¹ Rockefeller Foundation Archives, Series 717 A: Germany, Box 10, Folder 64, *Kaiser Wilhelm Institute, Berlin-Brain Research, 1928-1939*, in <http://archive.rockefeller.edu/publications/guides/psychiatry.pdf>.

³² Edwin Black, *op. cit.*, p. 299.

뤼딘은 “히틀러를 만남으로써 인종 청소를 사회적으로 실시한다는 우리 꿈이 실현되었다”고 했다.³³ 히틀러 자신이 미국 우생학의 열렬한 팬이었다.

1940 년이 되면 양로원이나 정신병원에 있던 수천 명의 독일인들이 학살되었다. 이는 20 년 전 미국의 포피노가 꿈꾸던 바였다. 독일 우생학연구소를 견학하고 돌아온 미국우생학회 사무총장 레온 휘트니는 나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소꿉장난할 때 독일은 제대로 일했다.”³⁴

히틀러가 수상이 되기 1 년 전인 1932 년 록펠러 재단은 카이저 빌헬름 인류학 연구소의 생식질 연구를 후원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최소한 1939 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제 3 제국 시기다.³⁵

베를린 우생학연구소 소장은 오토마르 프라이헤르 폰 베르슈어였다. 1936 년 그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신설된 유전학 및 인종위생 연구소를 맡게 되었다. 베르슈어의 오랜 조수가 조세프 멩겔레 박사였다. 멩겔레가 1954 년 5 월 이후 아우슈비츠의 인체실험을 지휘하게 되자, 베르슈어는 “우리의 과학적 연구가 방해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며 기뻐했다.³⁶

1939 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분기점이 됐다. 계산이 빠른 록펠러 재단은 나치 우생학에 대한 거의 모든 후원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 15 년의 록펠러 후원으로 독일 우생학은 탄탄하게 자리 잡은 뒤

³³ Thomas Ruder and Volker Kubillus, "Manner Hinter Hitler", *Verlag fur Politik und Gessellshaft*, Malters, 1994, pp. 65-66.

³⁴ Leon Whitney quoted in Edwin Black, *op. cit.*, p. 317.

³⁵ Raymond B. Fosdick, Letter to Selskar M. Gunn, 6 June 1939, Rockefeller Foundation RF 1.1 717 16150, cited in Edwin Black, *op. cit.*, p 365. 재단은 나치를 재정 후원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한다. 물론 건에 의하면 이는 거짓말이다.

³⁶ Otmar Freiherr von Verschuer cited in Edwin Black, "Eugenics and the Nazis the California connection", *San Francisco Chronicle*, 9 Nov 2003.

였다. 나치 우생학 후원을 지휘한 것이 앨런 그래그다. 그의 팀이 여러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에 대한 펀딩을 했다.

우생학의 주요 인물들

미국우생학회의 주요 인물로 레이몬드 B. 포스틱를 빼놓을 수 없다. 포스틱은 1913 년부터 록펠러 가문을 위해 일했다. 1919 년 파리강화회의에 하우스 대령의 비밀 팀("The Inquiry")의 일원으로 파견됐다. 이 비밀팀은 베르사유에서 미국 협상가들을 조종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베르사유 이후 포스틱은 록펠러의 개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록펠러 재단을 30 년 넘게 운영했다.³⁷

포스틱이야말로 1924 년 록펠러 2 세에게 산아제한과 우생학의 중요성을 설득한 인물이다. 그는 1936 년 록펠러 재단의 회장이 되었다.

베르슈어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베를린에서 도망쳐서 뉴렘버그 재판을 피할 수 있었다. 1946 년 그는 오랜 친구인 포피노에게 도움을 청했고, 베르슈어의 과거 기록은 모두 깨끗이 없어졌다. 베르슈어는 1949 년에 미국인간유전학회의 원격회원이 되었다. (미국인간유전학회는 우생학이란 이름을 버리고 1948 년 새로 창설된 단체다)

베르슈어는 나아가 코펜하겐 인간유전학부로에 자리를 얻는다. 베르슈어는 아우슈비츠의 연구 결과들을 1947 년에 코펜하겐으로 모두 옮겼다. 이 자료는 덴마크의 책임자 자게 켐프의 관리 아래 들어갔다. 켐프는 미국우생학회 회원이었다.

록펠러 3 세가 인구감소에 집착했던 이유는 우생학을 신봉했기 때문이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으로 있던 1928 년 그의 아버지는 그를 산아제한 단체인 사회위생국의 이사로 등재했다. 대학시절 록펠러 3 세의 멘토였던 경제학자 프랭크 페터는 미국우생학회 회원이

³⁷ Eugenics Watch, *Eugenics: An Antidemocratic Policy*, http://www.eugenicswatch.com/eugbook/euod_ch1.html#6.

었다. 페터는 “민주주의로 인해 저열한 인구가 늘어나고, 탁월한 인물은 줄어들었다”며 분개했다.³⁸

1931년 록펠러 3세는 록펠러 재단의 이사가 됐다. 그는 거기서 레이몬드 포스틱, 프레데릭 오스본 등 미국우생학회 창설자들의 영향을 받고, 인구감소에 대한 평생의 신념을 갖게 된다. 1934년에 록펠러 3세는 아버지에게 인구문제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³⁹

인구위원회의 설립

록펠러 3세는 1952년 자신의 인생 과업이 될 인구위원회를 설립했다. 인구과다의 위험 및 관련 문제들을 연구하겠다고 내세웠다. 사실 그 시기는 미국 우생학자들 대부분 수십년간 지속한 자신들의 불임 시술 정책이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던 때였다. 위기감의 가운데 록펠러 3세는 “인구통제”를 통해 음의 우생학(죽여 없애는 방식)을 펼치기 위한 해답을 찾았다고 믿었다.

존 포스터 델레스(당시 록펠러 재단 이사장, 이후 아이젠하워의 국무장관)와 프레데릭 오스본(인구위원회의 첫 위원장) 등이 인구위원회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오스본은 1960년대말까지 인구위원회의 중핵으로 있었다. 오스본은 1946년 미국우생학회 회장이었고, 인종차별주의적인 파이어니어 펀드의 회장이기도 했다. 오스본은 1937년 나치의 우생학 프로그램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실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찬양했다.⁴⁰

그외 인구위원회의 창립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다음이 포함된다.

³⁸ Thomas C. Leonard, "Retrospectives: Eugenics and Economics in the Progressive Er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Fall 2005, p. 210. John Ensor Harr and Peter J. Johnson, *The Rockefeller Century: Three Generations of America's Greatest Family*, Scribner's, New York, 1988, p. 272.

³⁹ Frederick Osborn, *Summary of the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Eugenics in Relation to Nursing, 24 February, 1937*, American Eugenics Society Papers.

⁴⁰ *Ibid.*

- (1) 데틀레브 W. 브롱크: 록펠러 연구소와 국립과학아카데미 소장
- (2) 워렌 S. 톰슨: 스크립스 인구문제 연구 재단 이사
- (3) 토마스 파란: 미군 외과의장으로 투스카기 매독 실험⁴¹과 과테말라 매독 실험⁴²을 관장했다.
- (4) 파스칼 K. 헬프턴: 유엔 인구분과
- (5) 프랭크 노트스타인, 킹슬리 데이비스: 미국우생학회 회원으로 이후 유엔 인구팀을 맡게 된다.⁴³

그뒤 25 년 동안 록펠러 인구위원회는 세계적 인구감소를 위해 무려 1.73 억불을 지출한다. (1) 노플랜트(Norplant)는 피부 밑에 장착하면 수년 간 피임효과를 주었다. (2) IUD 피임 장치와 (3) 프랑스의 낙태약인 RU-486 도 성과였다.⁴⁴

⁴¹ 투스케기 매독 실험은 1932-72 년간 미국 보건부(PGS)와 질병통제예방본부(CDC)가 수행한 연구로 약 400 명의 매독 감염 미 흑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질병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실험 후반기에는 매독은 이미 1947 년 나온 페니실린으로 치료 가능했으나 실험 대상자들은 치료받지 않았으며 그 결과 100 명 이상 사망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Tuskegee_Syphilis_Study

⁴² 과테말라 매독 실험은 1946-48 년간 미 정부가 수행한 인체실험으로 다양한 극빈자 그룹을 매독에 감염시켰고 그 결과 최소 83 명이 사망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Guatemala_syphilis_experiments

⁴³ John Cavanaugh-O'Keefe, *The Roots of Racism and Abortion: An Exploration of Eugenics, Chapter 10: Eugenics after World War II*, 2000, <http://www.eugenicswatch.com/roots/index.html>.

⁴⁴ Population Council, "The ICCR at 30: Pursuing New Contraceptive Leads", *Momentum: News from the Population Council*, July 2000.

은밀하게, 치명적이게

1952년 인구위원회를 창립할 당시에 록펠러 3세는 “우생학”이란 말을 피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대신 사용된 용어는 “인구억제와 가족계획”이었다. 인종적 순수성이나 열등종자의 제거 같은 언어는 더 이상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언어가 바뀌었다고 본질이 바뀐 것은 없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치명적이 되어갔다. 미국우생학회가 본부를 예일대학교에서 나와 뉴욕 한가운데 록펠러 센터의 인구위원회 사무실로 이전한 것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록펠러 3세는 **미국 내 가난한 이민자나 정신박약자 따위가 아니라,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과잉인구에 눈을 돌렸다.** 인구위원회의 목적은 나치와 다를바 없었으나, 훨씬 은밀하게 활동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부터 이들은 “은밀한 우생학(crypto-eugenics)”이란 이름을 갖게 된다. 우생학의 본질 내지 목적을 유전학 또는 인구억제의 “명분” 아래 숨겨야 한다는 것은 오스본의 아이디어였다. **“우생학의 목적은 우생학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성취될 수 있다.”**⁴⁵

1950년대 매카시즘 광풍이 몰아칠 때 수많은 죄없는 지식인들이 “은밀한 공산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아 인생이 망가졌다. 은밀한 공산주의자라 함은 뱃속깊이 공산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과 신념을 숨기며 미국 사회 속에서 활동하면서 결국 미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뜻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은 영국 우생학회 블랙러 前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영국우생학회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좀더 모호해보이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미국우생학회는 이미 그런 방법을 통해 성공하고 있다.”⁴⁶ 블랙러는 오스본의 친한 친구였다.

⁴⁵ Frederick Osborn, *The Future of Human Heredity: An Introduction to Eugenics in Modern Society*, Weybright and Talley, New York, 1968, pp. 93-104.

⁴⁶ John Cavanaugh-O'Keefe, *op. cit.*, Chapter 10: Eugenics after World War II, C. P. Blacker and "Crypto-Eugenics."

1960 년이 되면 영국우생학회도 블래커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다음 결의안을 채택한다. “우리의 목표는 은밀한 우생학 아래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협회(생어 단체의 영국 지회)와 국제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⁴⁷

오스본은 우생학의 철학이 왜 대중에게 외면 받는지 분석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류 인간이라는 것, 자신의 저열한 유전자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했다.”⁴⁸

게다가 2 차 대전이 끝난 뒤 “우생학”이란 이름은 나치의 학살정책이 연상됐기 때문에 대중의 거부감이 생겼다는 문제도 있었다.

오스본은 포장을 완전하게 바꿔버린다. “열등한 인간을 강제 불임이나 산아제한을 통해 제거해나간다”는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의 숫자에 대해 개인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선전될** 것이었다. 오스본은 1952 년 인구위원회 창설 당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대중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을지 직감했다. 이를 위해 피임 기구와 약에 대한 대대적 펀딩이 이뤄졌다.⁴⁹

오스본은 “무의식적 자발적 선택(unconscious voluntary selection)”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사람들은 인종 청소를 당하면서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 제대로 사랑받고 돌봄받을 수 있는 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방식을 택해야만 갈턴⁵⁰이 설정했던 우생학의 목표, 곧 지배 인종의 탄생과 저열 인종의 감소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⁵¹

⁴⁷ *Ibid.*

⁴⁸ *Ibid.*

⁴⁹ *Ibid.*

⁵⁰ 우생학은 유사과학이다. 우생학이란 말은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갈턴이 1883 년 만든 것으로, 다윈의 “종의 기원”에 기초했다.

⁵¹ *Ibid.*

오스본은 백인우월주의 단체(Pioneer Fund)의 회장 직을 1947-56년 간 맡았는데 이 단체는 흑인이 백인보다 지능이 낮다고 믿는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⁵² 이 단체 돈을 받은자들 가운데는 스탠포드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 윌리엄 쇼클리도 있었다. 그는 백만불 이상의 연구비를 받았는데, 아이큐가 100 이하인 모든 사람은 강제 불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⁵³

1959년 오스본은 미국우생학회 연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유전학이 크게 진보했습니다... 우생학이 비로소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형태를 갖출 것입니다.”⁵⁴ **우생학은 이제 유전학의 탈을 쓸 것이었다.**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존의 어설픈 인간을 개조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쉬운 것이다.”⁵⁵

인구학의 탄생, 공포의 조장

록펠러의 인구위원회는 “인구학(demography)”이라는 분야를 키우고 있었다. 프린스턴의 인구사무소(프랭크 노트스타인이 지휘, 오스본의 친구, 1959년 인구위원회 회장이 됨)도 연구비를 받았다. 인구학의 목적은 통계를 활용해서 “가까운 미래에 어두운 피부색 인종들이 온 지구를 뒤덮는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대중의 인식과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1958년 쿠바혁명 성공은 이들에게 다시 빌미를 제공했다. 인구위원회는 미국 언론들로 하여금 “가난한 국가의 인구과잉은 가난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공산혁명의 요람이 된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게 했다.

⁵² Grace Lichtenstein, "Fund Backs Controversial Study of Racial Betterment", *The New York Times*, 11 December 1977.

⁵³ Lichtenstein, *op. cit.*

⁵⁴ Frederick Osborn, *Eugenics: Retrospect and Prospect*, Draft Prepared for the Directors' Meeting, April 23rd, Draft of 26 March 1959,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AES Records-Osborn Papers, cited in Edwin Black, *War Against the Weak*, p. 423.

⁵⁵ Frederick Osborn, *The Future of Human Heredity: An Introduction to Eugenics in Modern Society*, Weybright and Talley, New York, 1968, pp. 93-104.

1952년 마가렛 생어는 록펠러 재단의 돈으로 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을 창설했다. 이는 그녀의 미국가족계획연맹의 국제판이었다. 생거는 1947년 록펠러 3세를 처음 만났을 때 대대적인 산아제한의 중요성을 설득했었다.

IPPF는 록펠러 후원으로 설립됐으나 듀폰, US 설탕, 체이스맨해튼은행, 뉴몬트광업사, 국제니켈, RCA, 걸프오일 등이 참여했다. 미국의 대자본과 금융자본들은 세계적 인구감소라는 록펠러의 비전에 동참하여 나란히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록펠러 3세의 동생 로렌스 록펠러는 1958년 보존재단(Conservation Foundation)을 설립했다. 인구위원회를 돕기 위해서다. 인구위원회와 보존재단의 입장은 같았다. “자연 자원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국적 대자본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빈국이나 로컬기업, 자원에 대한 다수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전략이었다.

열등한 인간들을 세계적 차원에서 제거한다는 이들의 목표는 이제 (1) 개인 선택의 자유 또는 가족계획의 권리를 존중하고, (2) 인구과잉의 위험(자원 고갈, 환경 파괴, 사회 동요 등)을 피한다는 논리 하에 진행되었다.

우생학, 유전학의 탈을 쓰다

프란츠 J. 칼만 박사는 튀딘의 동료였다. 그는 정신분열자들을 죽이거나 강제 불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가 정신분열일 경우 자녀가 건강하더라도 그 자녀를 죽여야 한다고 했다. 유전자를 없애기 위해서다.⁵⁶

전후 칼만은 베르슈어가 미국 과학계에 받아들여지도록 도왔고, 그 자신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가르쳤고, 뉴욕주립 정신의학연구소의 유

⁵⁶ John Cavanaugh-O'Keefe, *op. cit.*, Chapter 10, The Shift to Genetics.

전학자였다. 칼만은 1948 년 새로운 야심을 가지고 설립된 미국인간 유전학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다.

“인간유전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생학을 숨기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미국인간유전학회의 창설 회원들 대부분이 미국우생학회 소속이었다.

칼만의 미국인간유전학회는 훗날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스폰서가 된다. 수십억불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1920 년대에 우생학등기소가 있던 바로 그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제 유전학이 우생학의 얼굴이 될 터였다.

우생학은 유전학으로 이어졌고, 뒷날 유전자 혁명으로 꽃핀다.

6 장

미국을 던 자, 세계를 털다

팍스 아메리카나, 소프트 파워, 세계 제국

1939 년말 미국 엘리트들은 전쟁과 평화 스터디 그룹(War and Peace Studies Group)을 만들었다. 이 정책그룹의 목표는 전쟁 후의 미국의 경제 및 정치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가정은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고, 미국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이 그룹을 만든 시점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지 몇주 밖에 지나지 않았고, 진주만 공습이 있기 2 년 전, 미국이 참전하지도 않은 때란 점이다.

사실 미국의 대기업과 금융자본은 미국 시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이 힘을 뺏어나가기 원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자 했다.

이 정책 기획 그룹은 뉴욕의 CFR 에서 만든 것이었고, “사적 모임”에 불과한 이 그룹은 곧이어 미 국무부의 모든 전후 정책 기획 기능을 삼켜버렸다. 1942 년이 되면 이 그룹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무부 직원으로 변신했다.

전쟁과 평화 스터디 그룹은 물론 록펠러 재단의 돈을 받았다. 1939-42 년간 전후 미국 경제의 헤게모니 확립을 위한 아젠다를 초안하는데에 이 그룹은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35 만불 이상 받았다. 하지만 재단 입장에서 이 정도 비용은 훗날 수천 수만 배로 돌아오는 투자였다.

이 그룹은 전후 미국 경제를 세계 제국(global empire)으로 정의했다.⁵⁷

1930년대 전반기, 대부분 미국인들은 대공황의 파국에서 허덕일 때 이들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이 영국의 뒤를 이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기에.

CFR 소속의 이 정책결정자들은 미제국은 영제국과 달리 물리적 영토를 점령하기보다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영국이나 유럽 제국이 취했던 방식은 너무 비용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 경제를 장악하는 것만으로 패권이 가능했다. 소위 조세프 나이의 연성권력(soft power)이다.⁵⁸ 그 덕에 미국 거대기업들은 자유 경제, 시장개방, 민주주의, 인권, 식민지 인민의 해방 따위의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어서 탐욕을 추구할 수 있었다.

사조직에 의한 정부 장악

CFR는 1919년 5월 창설됐다. 1차 대전 후 베르사유 강화 회담이 한창 진행될 때였다. (1) 미국측에서는 J.P. 모건 은행(토마스 라몬트), 록펠러 스탠더드 오일 그룹의 대표들, 하우스 대령(윌슨의 보좌관) 등 그리고 (2) 영국측에서는 세실 로즈의 비밀 라운드테이블 그룹 멤버 등이 파리의 마제스틱 호텔에 모여 “사적 네트워크(private network)”를 결성하여 외교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한다는 방식에 합의했던 것이다.

1차 대전 시대에 해외에 진출하는 미 기업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주요 기업들은 동부 해안인 뉴욕에 본부를 두었기 때문에 이들을 동해안 기성세력이라 불렀다. 1차 대전 후 이 세력의 사실상 본부는 뉴욕의 CFR였다. CFR 창설에 필요한 자금은 J.P 모건, 존 D. 록펠러, 오토 칸, 버나드 바루크, 제이콥 슈프, 폴 워버그 등에서 왔다. 당시 미국 최강의 기업가들이었다.

⁵⁷ Peter Grose, *Continuing the Inquir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rom 1921 to 1996*,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6. pp. 23-26.

⁵⁸ Joseph S. Nye Jr, "Propaganda Isn't the Way: Soft Power",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0 January 2003.

이 엘리트 세력은 의회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독점 또는 反트러스트 규제를 피해가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합법적 해외 진출의 문도 열렸다. .

(1) 1918 년 의회는 웹-포머린 법을 통과시켰다. “수출을 진흥할 경우” 독점을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스탠더드 오일이 큰 수혜자였다.

(2) 1919 년 의회는 에지 법을 통과시켰다. 마찬가지로 수출을 위할 경우 미국 은행들을 反트러스트의 규제에서 면제시켜주는 내용이었다. 주요 수혜자는 체이스은행, 내셔널시티은행, JP 모건 뉴욕이었다.

(3) 1920 년 미 대법원은 철강산업 관련 거의 완전한 시장 지배를 형성하는 합병이 “반드시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⁵⁹ 록펠러와 모건 가문의 이익이 관련되었다.

“미국의 세기”와 팽창주의

미국 기업가와 은행가들은 유럽 제국들의 잔재를 집어삼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깨달았다. 미국 국경 내에서 좁게 놓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제 이들은 세계로 진출하여 이윤(profit)과 권력(power)을 모두 장악할 것이었다.

헨리 루스는 1941 년 2 월 17 일 라이프 지에 “미국의 세기”란 글을 썼다. 그의 견해는 CFR 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 기성세력(록펠러, 모건 등)의 생각을 잘 나타낸다.

“독재국가들도 거대한 생활공간을 필요로 할지 모르나, 민주국가들은 훨씬 더 큰 공간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자신의 임무와 기회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⁶⁰

⁵⁹ U.S. Supreme Court, *US v. US Steel Corporation*, U.S. 417, 1920, p. 251.

⁶⁰ Henry Luce, "The American Century," *Life*, 17 February 1941.

미국 자본은 전후 세계의 자원과 시장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을 원했다. 이를 위한 정지작업은 주요 강대국들이 전쟁으로 파탄이 난 때보다 더 적절한 때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활개를 펼칠 공간을 어떤 이들은 “광대한 영역(Grand Area)”이라 불렀다. 전쟁과 평화 스터디 그룹은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우월성에 기반하여” 태평양을 지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⁶¹ 광대한 영역은 사실상 소련의 영향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구를 포함했다.

이사야 보우맨(CFR 창설회원, 스터디그룹의 리더 중 하나)은 광대한 영역을 “미국의 경제적 생활공간(American economic Lebensraum)”⁶²이라 불렀으나, 나치의 용어라서 나중에 폐기되었고, 2 차 대전 후 부상하는 미국적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용어로는 결국 (무난한 어감을 지닌)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가 채택됐다.

세계 지배의 방법

CFR 스터디 그룹이 제시했던대로 미국은 자신을 식민지 인민의 해방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 제국주의자들의 적으로 포장해서 세계에 팔았다. 보우맨은 1 차 대전 말기의 윌슨의 비밀팀(The Inquiry) 일원이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에 자유 민주 인권의 가면을 씌운 핵심 설계자가 보우맨이다.

보우맨을 비롯한 CFR 의 설계자들은 1945 년 이후 미국(정확히는 미 엘리트층)의 세계 지배는 유엔, IMF, 세계은행, GATT 등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유엔 기구의 틀을 짜서 루즈벨트에게 제시한 것도 이 그룹이었다. 오늘날 국제 체제가 왜 등장했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생겨났을까?

⁶¹ Handbook, The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tudies of American Interests in the War and the Peace*, New York, 1939-1942, cited in Neil Smith, *American Empire: Roosevelt's Geographer and the Prelude to Globaliz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2003, pp. 325-328.

⁶² Neil Smith, *op. cit.*, p. 287.

전쟁과 평화 스터디 그룹은 600 건이 넘는 정책문서를 작성해서 국무부와 루즈벨트에게 제공했다. 이 방대하고도 촘촘한 세계 구상에서 빠진 곳은 지구상 한 구석도 없었다. 대륙의 운명부터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까지 다뤘다. 이 문서들은 하나같이 그때까지 미국이 참전하지도 않은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이 그룹을 뒤에서 후원하는 것은 록펠러 가문이었다. 넬슨, 록펠러 3세, 로렌스, 데이빗 이 네 형제는 세계경영의 포부를 키우고 있었다. 넬슨 록펠러는 특히 교묘한 방법으로 록펠러의 이익을 “미국의 국익”으로 일치시켜나갈 터였다.

녹색혁명, 중남미에서 시작되다

종전 직후 넬슨은 식량에 관심을 가졌다. 가난한 저개발국의 식량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멕시코에서 시작된 넬슨의 작업은 이후 녹색혁명으로 불리게 된다.

사실 전쟁 중에도 넬슨은 CIAA(미주간 사안 코디네이터)라는 정부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지위를 통해 넬슨은 핵심 국가에 위치한 록펠러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미 정부의 지원을 쏟아 부을 수 있었다. 브라질, 페루, 멕시코,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에서 작업이 진행됐다. 물론 명목은 나치의 중남미 침투를 막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확산한다는 것이었다. 넬슨은 종전 후 미국 기업들이 활동할 기반을 이미 닦고 있는 것이었다.⁶³

넬슨이 CIAA 에 임명된 것은 1940 년 8 월이다. 이는 미국 참전 이전으로 전쟁에서의 중립이라는 공식 입장에 위배되었다. 이를 감추기 위해 CIAA 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문화”를 진흥하는 기관이라는 포장이 주어졌다.

⁶³ Kramer, Paul, "Nelson Rockefeller and British Security Coordin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16, 1981, pp. 77-81.

적과의 동침

1941 년에 세계 최대 석유회사는 뉴저지 스탠더드오일이었다(이후 엑슨으로 개명). 이 회사는 미국 석유시장의 84 프로를 장악하고 있었고, 대주주는 물론 록펠러 그룹이었다. 록펠러 다음 주주는 놀랍게도 I.G. 파벤이었다. I.G. 파벤은 독일의 거대 석유화학 트러스트였으며, 독일 전쟁산업의 근간이었다.

록펠러와 I.G. 파벤의 관계는 1927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록펠러 재단이 독일의 우생학 연구에 대대적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이다.⁶⁴

넬슨은 CIAA 로서 표면적으로 나치의 라틴 아메리카 침투를 싸우고 있는 동안, 스탠더드 오일은 독일 공군에게 有鉛 휘발유(테트라에틸 납) 공급을 준비하고 있었다. 독일 공군에게 폭격 당하던 영국이 항의하자, 스탠더드오일은 유연 휘발유 운송 선박의 등록지를 파나마로 바꿔버린다. 이 배들은 카나리 제도의 테네리프까지 가서 독일 유조선과 접선하여 기름을 가득 채워줬다.⁶⁵

상원 조사에서 트루먼 상원의원은 록펠러와 I.G. 파벤의 밀월이 “반역에 가깝다”고 비난했다.⁶⁶

넬슨의 수완

넬슨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첩보활동과 비밀작전들을 담당했다(CIA 가 창설되기 전). 남북 아메리카에 대한 영국의 정보책임자는 윌리엄 스티븐슨 경이었다. 넬슨은 루즈벨트를 대신하여 처칠을 대신하는 스티븐슨과 직통했다. 스티븐슨의 사무실(BSC, British Security Coordination)은 뉴욕 록펠러 센터의 3603 호에 위치해있

⁶⁴ Charles Higham, *Trading with the Enemy: An Expose of the Nazi-American Money Plot, 1933-1947*, Delacorte, New York, 1983, pp.53-54.

⁶⁵ *Ibid.*, p. 56.

⁶⁶ *Ibid.*, pp. 67-69.

었다. 록펠러와 스티븐슨은 아메리카에서의 첩보활동에 긴밀히 협조했다.⁶⁷

넬슨은 또한 사업상 긴밀한 관계에 있던 인물들을 대거 미 정부로 영입했다. 체이스 은행의 조세프 로벤스키, 앤더슨 클레이튼 사의 윌 클레이튼(텍사스 면화 재벌)⁶⁸ 등이 여기 해당된다. 넬슨의 보좌관이던 존 맥클린톡은 전후 중미에서 거대한 과일 플랜테이션(United Fruit)을 운영했다. 1954년에 CIA는 맥클린톡을 위해 과테말라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준다.

넬슨이 전쟁 중 닦아놓은 기반 덕에 1950년대에 록펠러 가문의 이익은 세계적으로 확장된다. 넬슨은 냉전 시기에 중남미의 군부 엘리트를 미국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 무자비한 군부 독재자들이라도 록펠러 사업을 보호해줄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넬슨은 이러한 협조적 군사 독재자들을 “신군부(New Military)”라 불렀다.⁶⁹

넬슨과 라틴아메리카의 인연은 깊다. 그는 1930년대에 이미 스탠더드오일의 베네주엘라 자회사 크레올 페트롤륨의 이사였다. 1938년에 그는 멕시코 대통령 라자로 카르테나스와 협상에 실패했다. 카르테나스는 스탠더드오일을 국유화했다.

1940년대에 그는 멕시코-미국 개발회사(Mexican American Development Corp.)를 설립했고, 전후 개인적으로도 멕시코에 많이 투자했다. 동생 데이빗에게 체이스은행의 라틴아메리카 지부를 멕시

⁶⁷ William Stevenson, *A Man Called Intrepid*, Ballantine Books, New York, 1976, pp.308-311.

⁶⁸ Gerard Colby and Charlotte Dennett, *Thy Will Be Done: The Conquest of the Amazon-Nelson Rockefeller and Evangelism in the Age of Oil*, HarperCollins, New York, 1995, pp. 115-116.

⁶⁹ Thomas O'Brien, *Making the Americas: U.S. Business People and Latin Americans from the Age of Revolutions to the Era of Globalization*, History Compass 2, LA 067, 2004, pp. 14-15.

코에 설립하라고 설득한 것도 그였다. 녹색혁명이 멕시코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⁷⁰

넬슨은 미 정부의 국제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트루먼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그의 수법은 주로 미국의 보증을 통해 체이스, 내셔널시티뱅크(오늘날 시티그룹) 및 기타 뉴욕의 은행들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출해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쟁 중에 넬슨은 CIAA 수장으로서 라틴아메리카의 언론인과 언론사주들을 네트워크로 조직했다. 중립적 입장을 가진 언론사들에겐 캐나다로부터의 종이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협박해서 굴복시켰다. 신문 인쇄에 쓰는 종이는 미국 배로 들여와야 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록펠러는 1,200 개의 신문사를 통제하고 있었다.⁷¹

이들은 친미 성향, 특히 친록펠러 성향의 기사들로 도배됐음은 물론이다. 나치와 싸운다는 가림막 뒤에서는 전후 세계를 지배할 록펠러 제국이 건설되고 있었다.

괴뢰로서 유엔

2 차 대전 막바지에 넬슨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달성한 위업은 유엔 창설과 관련된다. 라틴아메리카에는 19 개 표가, 유럽에는 9 개 표가 있었다. 록펠러는 라틴아메리카의 표를 모두 매수하고자 했다.

예컨대, 록펠러와 미 정부는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으로 하여금 독일과 이태리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도록 압박했다. 결국 원래 친독일이던 페론은 종전 2 주를 남겨놓고 선전포고를 했고, 그 덕에 아르헨티나는 “전승국” 측에 서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⁷⁰ Los Angeles Times, *Mexico 75 Years Later, Today's Zapatistas Still Fight the Rockefeller Legacy*, 14 May 1995.

⁷¹ William Stevenson, *op. cit.*, p. 309.

미국 정부, 미국 기업인, 미국 은행가들은 전후 세계질서 개편을 주도할 수 있었고, 이들이 IMF, 세계은행, 그리고 유엔을 사실상 지배하게 됐다.⁷²

록펠러 가문은 뉴욕에 유엔이 지어질 땅을 기부하기까지 했다.

농업기술적 경제적 군사적 연속

1941 년 록펠러와 윌러스(미 부통령, 前농업장관, Pioneer Hi-Bred 종자회사의 설립자, 이 회사는 훗날 듀폰이 된다. 듀폰은 세계 4 대 GMO 종자회사의 하나다)는 멕시코에 팀을 파견하여 어떻게 식량을 증산할지 멕시코 정부와 논의하게 한다.

윌러스-록펠러 보고서는 소출이 높은 종자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1943 년 록펠러 재단은 멕시코농업프로그램(MAC)을 개시했다. 그 수장은 록펠러 재단의 조지 하라르였고, 그 팀에는 노먼 블락이라는 청년 식물병리학자가 속해있었다.

이것은 록펠러가 추진한 전후 세계 농업시장 개편을 알리는 효시였다.

넬슨과 윌러스는 미국을 위한 농업 기회를 조사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록펠러 가문은 석유에서 농업으로 다각화를 진행 중이었다.**⁷³ 1941 년 3 월 로렌스 록펠러는 컬럼비아 막달레나 강 주변에 최고급 농토를 150 만 에이커 샀고, 넬슨은 베네주엘라에서 거대한 목장(시몬 볼리바르가 이전 주인)을 매입했다.

⁷² John Loftus and Mark Aarons, *The Secret War Against the Jews: How Western Espionage Betrayed the Jewish People*, St. Martin's, New York, 1994, pp. 165-171.

⁷³ Margaret Carroll Boardman, *Sowing the Seeds of the Green Revolution: The Pivotal Role Mexico and International Non-Profit Organizations Play in Making Biotechnology an Important Foreign Policy Issue for the 21st Century*, http://www.isop.ucla.edu/profmexivolume4/3summer99/Green_Finalm.htm.

1943년 멕시코 차폴테펙에서 미 국무부 주최 남북미 협력회의가 열렸다. 넬슨 록펠러는 32세에 라틴아메리카 담당 차관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정부들이 미국 제품, 특히 농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함을 역설했다.⁷⁴

록펠러는 차폴테펙에서 미 국방부 장성들과도 합의에 이르렀다. 즉, 미국에서 남아도는 무기를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에게 수출하면 이 국가들이 전후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⁷⁵

결국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기업과 금융가들에게 경제적 군사적으로 예속됐다. 록펠러 가문이 미국의 거대한 국방산업에서 대주주였음은 불문가지다.⁷⁶

1940년대 후반 냉전이 확산될 때 트루먼이 미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공산주의 확장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루먼은 미국의 기술 지원, 전문가 파견, 그리고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미국의 **민간부문(정부가 아닌)이 기술 이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상이 넬슨 록펠러에게서 나온 것이다.

군사 부문 외 농업 부문도 미국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1950년대초가 되면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군사 및 제조업 수출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중요했다. **미 농업부의 잉여식량은 대외정책**

⁷⁴ Gerard Colby and Charlotte Dennett, *op. cit.*, p. 166.

⁷⁵ *Ibid.*, p. 169.

⁷⁶ Committee on Rules and Administration, U.S. Senate, 93rd Congress, 2nd Session, Hearings, *The Nomination of Nelson A. Rockefeller of New York to b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cited in Gerard Colby and Charlotte Dennett, *op. cit.*, p. 373.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 외에도 다수 방산업체에도 투자했다. 예컨대, McDonnell Aircraft, Chrysler Corp., Boeing, Monsanto, Dow Chemical, Hercules, Bendix, Motorola 등.

의 무기로 간주되었다. 이는 “평화를 위한 식량(P.L. 480)” 따위 정책을 통해 실현되었다.

록펠러 맨들

냉전이 한창이던 1952-1979 년간 국무장관을 지낸 이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록펠러 재단의 사람이었다.

아이젠하워의 국무장관이던 존 포스터 덜레스(윌스트리트 변호사)는 록펠러 재단 이사장으로 있다가 1952 년 미 정부로 들어갔다. 존 케네디의 국무장관이던 딘 러스크는 록펠러 재단의 회장을 사임한 뒤 1961 년 워싱턴으로 왔다. 닉슨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러스크의 후임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 역시 록펠러 재단의 핵심 인물이다. 지미 카터의 국무장관 사이러스 밴스는 록펠러 재단의 이사장이었다.

덜레스-러스크-밴스-키신저는 모두 록펠러 맨이었다. 이들은 록펠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농산물도 석유처럼 지배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했고, 필요에 따라 넘쳐나거나 부족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했다.

록펠러 재단과 CFR 는 이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알려지길 원치 않았고, 이 역시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초기 애그리비즈니스의 형성

1947 년 벨슨 록펠러는 IBEC(국제기본경제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IBEC 의 목표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자본을 통해 개도국의 농업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IBEC 의 목적은 미 달러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국가에 50-60 년대를 거치며 **대대적인 애그리비즈니스를 도입**시키는 것이었다.

IBEC 는 카길을 불러들여 브라질에서 함께 일한다. IBEC 와 카길은 함께 하이브리드 옥수수 개발에 착수한다. 이들의 합작 덕에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 위의 옥수수 생산국이 됐다. 옥수수는

콩과 섞여 가축 사료로 판매됐다. 이것이 1990 년대말 시작되는 GMO 콩 사료 세계 확산의 시초다.

카길과 기타 미국 곡물자본은 콩을 주요 수출상품으로 삼았다. 이는 미국의 식량무기 가운데 핵심 총알이었다.

레스터 브라운(1974 년 록펠러 형제 재단 자금으로 월드워치 인스티튜트 설립)은 록펠러 재단의 녹색혁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새로운 씨앗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재들을 써야한다. 화학비료는 그 자재들 가운데 핵심이다. 선진기술이 적용되면 온갖 종류의 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애그리비즈니스는 이런 자재들을 효율적으로 농가에 공급해준다.”⁷⁷

나아가 브라운은 다국적 기업이야말로 농업 기술이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종자와 비료를 공급하는 애그리비즈니스는 구체적으로 듀폰, 파이어니어하이프레드 인터내셔널, 카길, 아처다니엘스미드랜드 등을 뜻했다. 1950 년대 녹색혁명의 덕에 애그리비즈니스 수출은 석유와 무기 수출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축이 되었다.

멕시코에서 브라질과 베네주엘라로, 다시 세계로

녹색혁명이 멕시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을 때 넬슨은 브라질과 베네주엘라에도 유사한 조직을 만들었다. CIAA 동료들과 더불어 AIA(경제사회개발을 위한 아메리카 국제협회)를 설립했다. AIA 가 내세운 목적은 기술이전과 교육이었다. AIA 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현대화가 실패하면 브라질과 베네주엘라는 인구폭발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넬슨은 냉전 하에 미국의 국익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록펠러의 이익을 챙기는 데 달인이었다. 마찬가지로 델레스(전 록펠러 재단 수장) 국무장관은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대대적 보복”이라는 행정책을 공언했기 때문에 미국민들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과 핵공포에 사로잡

⁷⁷ Lester Brown, *Seeds of Change*, Praeger, New York, 1969, *Chapter 1: New Seeds and Mechanization*.

혔고, 그런 패닉 하에서 “안보”를 구실로 삼으면 되지 않는 일이 별로 없었다.

미국의 금융재벌과 대기업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진행한 작업은 세계 식량 판도에 불어닥칠 혁명의 전조였다. 식량을 통해 인류를 지배하려는 이들의 의도는 그러나 늘 자유시장의 효율성, 근대화, 기아 극복 따위의 프로파간다 뒤에 숨겨졌다.

제 3 부

애그리비즈니스의 탄생

록펠러와 하버드, 애그리비즈니스를 발명하다

무기 장사에서 비료 장사로

록펠러의 녹색혁명은 멕시코에서 시작되어 50-60 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 확산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에 도입됐다. **녹색혁명의 본질은 중요 저개발국들의 식량생산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물론 표면에 내세운 명분은 “공산주의적 비효율”에 대항하여 자유시장의 효율성을 선양한다는 것이었다.

2 차 대전 후 미국 화학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었다. 듀폰, 다우케미컬, 몬산토, 허큘리스파우더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업들은 전쟁 기간 동안 납세자들의 돈으로 어마어마한 질소 생산능력을 키웠다. 질소는 TNT 등 폭약을 만드는 필수 재료였지만, 역설적이게 질소는 식물의 필수 영양소이기도 하여, 질산염 비료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자 화학기업들은 폭탄 대신 비료를 마케팅하기로 결정한다. 비료를 비롯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농자재 시장은 무기 시장을 잃은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전후 활로를 열어준다.

화학 농자재가 전세계로 팔려나가면서 거대 곡물기업(카길, 컨티넨털 그레인, 번지, ADM)도 새로운 시장을 얻었다. 60-70 년대 녹색혁명을 통해 특수한 하이브리드 종자를 개발한 덕에 이 기업들이 성장했다. 케미컬 농자재와 하이브리드 종자를 독점한 미국 애그리비즈니스 거대 기업들은 전세계 농업 시장을 장악하고자 했다. 키신저 말대로 “식량을 지배하면 인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식량, 미국의 비료, 미국의 종자에 의존하게 하라

유럽을 비롯하여 소련과 중공까지도 흉작이 왔을 때는 미국 곡물기업 카르텔이 제공하는 식량에 의존하게 됐다.

록펠러 3 세는 인구위원회를 설립한 다음해인 1953 년에 농업개발위원회(ADC)를 창설했다. 넬슨은 중남미에서 활동했다면, ADC 의 관심은 아시아였다. 이 형제의 목적은 전세계 농업과 식량공급을 독점하는 것이었다.

록펠러 그룹이 50-60 년대에 추진한 녹색혁명의 뒤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있었다. 이 전략은 “근대적” 농업을 이식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농업 근대화를 통해 식량을 증산하면 굶주림이 줄고 가난과 불안정을 틈타 발생하는 공산혁명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뒷날 일어나는 유전자 혁명에도 똑같은 논리가 사용됐다).

하지만 **녹색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세계 식량생산의 독점이었으며, 이는 수십년 뒤 유전자 혁명으로 완성됐다.** 1970 년 노먼 볼락은 노벨상을 탔다. 생물학도 아닌 평화 부문이었다. 몇년 뒤 키신저도 같은 상을 받는다. 두 사람 다 록펠러 맨이다.

1966 년 멕시코 정부는 록펠러 재단과 함께 국제옥수수수밀개발센터(CIMMYT)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개량된 하이브리드 밀 종자를 내놓았다. 이 밀 품종은 화학비료, 기계화된 경운, 농기계, 관개시설 등을 필요로 했다. 엔진과 펌프가 필수가 되었고 물론 이들은 전부 석유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했다. **석유산업과 농업산업이 결합되었다.**

1966 년 록펠러 재단은 포드 재단과 동맹을 맺는다. 포드 재단 역시 막대한 재력을 가진 면세 민간재단으로 미 정부, 정보기관, 외교기구 등과 깊은 커넥션이 있었다. 포드 재단이 합세하자 록펠러의 녹색혁명 은 급물살을 탄다.

원조를 미끼로

린든 존슨은 PL 480 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미국의 식량원조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한다. 수원국이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식량원조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원국은 록펠러가 농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들(화학비료, 농약, 기계 등)을 받아들여야

했고, 인구억제 정책을 실시하거나 강화하고, 또 미국 투자자들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했다.⁷⁸

녹색혁명, 대농을 키우다

녹색혁명의 기술은 비옥한 땅을 가진 부농에게 유용했고, 일부러 부농들에게 보급됐다. 이를 통해 부유한 지주와 가난한 소작농의 간극이 더 커졌다. 멕시코에서 하이브리드 밀 품종은 관개시설이 설치된, 비옥한 북동부에 심어졌다.

인도의 녹색혁명은 북부와 북서부의 관개시설을 갖춘 20 프로의 땅에 국한됐다. 봉건적 대지주와 대다수의 빈농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 녹색혁명의 성과는 드넓은 빈곤의 땅에 듬성듬성 솟아나는 부유한 애그리비즈니스 업체들로 나타났다. 빈농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통계상 인도의 밀 생산은 증가하였다.

전세계 농민을 세뇌하라, 모든 전통농업의 파괴

록펠러 및 포드 재단이 주도하여 세워진 아래 연구소들은 1971 년 함께 모여 국제농업연구컨설팅그룹(CGIAR)을 결성했다.⁷⁹

- (1) 멕시코 소재 국제옥수수밀개량센터(CIMMYT)
- (2) 나이지리아 소재 국제열대농업연구소(IITA)
- (3) 필리핀 소재 국제벼연구소(IRRI)

CGIAR 는 이태리 소재 록펠러 재단의 회의실에서 열린 논의 끝에 설립된 것이다. 이 회의에 참여한 핵심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 (1) 록펠러 재단의 조지 하라르
- (2) 포드 재단의 포레스트 힐
- (3) 세계은행의 로버트 맥나마라
- (4) 모리스 스트롱(록펠러 맨으로 국제환경운동 주도자, 1972 년 스톡홀름 유엔지구회의 개최)

⁷⁸ Harry Cleaver, *op. cit.*, p. 3.

⁷⁹ CGIAR, *The Origins of the CGIAR*, in <http://www.cgiar.org/who/history/origins.html>.

CGIAR 는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을 끌어들이므로써 1970 년대에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적 농업정책을 만들어갈 위치를 점한다.⁸⁰

록펠러 재단과 포드 재단의 재정 후원 덕에 CGIAR 는 개도국 인재들에게 넉넉한 장학금을 제공했다. 제 3 세계의 농학자, 과학자, 교육자 등을 미국으로 데려와 “근대적” 농업, 곧 애그리비즈니스를 가르쳤고, 이들은 충실한 신봉자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 유학파로 이뤄진 국제 네트워크는 다시 미국 애그리비즈니스를 발달시키는 발판이 돼주었다.

결국 세계는 록펠러가 원하던 방식의 농업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알아서 전통농업을 버리고 앞다투어 애그리비즈니스를 도입했다.

록펠러 3 세의 농업개발위원회는 미국 대학 교수들을 아시아의 대학에 파견하여 녹색혁명을 가르쳤다. 가장 총명한 아시아 과학자들에게는 미국 유학 기회가 주어졌다. 이들은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록펠러 농업의 완전한 추종자가 되었다.

이러한 꾸준한 세뇌 작업과 인맥 형성 덕에 훗날 유전자조작 작물이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세계적 환영을 받게 된다.

농업개발위원회의 아더 모셔는 농민 교육용 핸드북에 이렇게 썼다. “농민들이 더 욕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협동하는 버릇을 버리고 농업을 사업으로 대해야 한다.” 모셔는 농민들로 하여금 녹색혁명이 제시하는 상품들(비료, 농약, 기계, 관개, 종자 등)을 절박하게 원하게 만들고자 했으며, 농민들이 이를 얻기 위해 대출을 받아 신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자재만 구입하게 만든게 아니라 대출

⁸⁰ *Ibid.* For background on the very influential Rockefeller friend, Maurice Strong, see Elaine Dewar, *Cloak of Green*, Lorimar & Co., Toronto, 1995, p. 254, and Henry Lamb, *Maurice Strong: The New Guy in Your Future!*, January 1997, <http://www.sovereignty.net/p/sd/strong.html#3>.

-상환의 영원한 고리에 몰아넣음으로써 자립적으로 살던 농민들은 자본주의 속으로 더 철저히 편입되었다.⁸¹

녹색혁명, 민중의 삶을 파괴하다

록펠러 재단과 포드 재단의 녹색혁명은 미 정부의 국제개발청 (USAID)과 CIA의 대외정책 목표를 위해 복무했다.

녹색혁명의 주요 효과 가운데 하나는 **농촌지역 인구를 도시 슬럼가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이걸 녹색혁명의 우연한 부작용이 아니라 애초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도시빈민들은 미 다국적 제조업체들을 위한 값싼 노동력이 돼주었다.

녹색혁명의 결과는 “녹색”과 거리가 멀었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농민과 소비자 건강을 위협했다. 하이브리드 종자를 대규모 단작하자 토양이 망가지면서 최초에는 늘어났던 수확은 줄어갔다. 밀과 옥수수 수의 개량종들은 처음에는 2 배, 심지어 3 배 증산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으나, 그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곧 사그라들었다.⁸²

개량 밀은 다량의 화학비료를 뿌려야 고수확이 보장됐다. 무시무시한 양의 제초제와 살충제가 살포됐다. 이는 모두 석유화학기업들의 이윤이 되었다. 개도국이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살 돈이 있을리 없었다. 미 정부가 보증을 서고 세계은행의 신용 특혜를 받아 체이스 은행 또는 기타 뉴욕의 거대 은행으로부터 특별 대출을 받았다. 또 녹색혁명의 또다른 요소로서 관개시설 혹은 댐 건설에 필요한 자금 역시 세계은행이 대출해줬다.

종자와 비료를 구입할 돈이 없는 농민들도 대출을 받았다. 정부의 저리대출을 받지 못하면 민간의 고금리를 사용해야 했다. 농민은 화학제품, 개량종자, 기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업자들에게도 종속되었다. 전력을 다해도 빌린 돈 갚기가 쉽지 않았고, 자칫 갚지 못하면 땅을 뺏겼다.

⁸¹ Harry Cleaver, *op. cit.*, p. 5. A. T. Mosher, *Getting Agriculture Moving*, ADC, New York, 1966, p. 34.

⁸² *Ibid.*, P. 11. Also, "Who's for DDT?", *Time*, 22 November 1971.

삶의 요소들을 자립하던 농민과 그 공동체는 철저히 상품경제와 금융권에 예속되었다. 돈이 안되는 농사는 쓸모가 없었다. 수백년 농민 손에서 내려오던 종 다양성을 자랑하는 전통 작물들이 사라지고, 애그리비즈니스가 만들어낸 하이브리드 개량 환금작물 종자들이 주류가 됐다.⁸³

경운기도 녹색혁명의 괄목할만한 성과다. 경운기는 물론 석유를 연료로 썼고, 잡초를 없애고 작물을 심기 위해 땅을 준비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지만, 토양 구조를 파괴하고 흙을 망가뜨리는 데도 역시 탁월한 역할을 했다.

하이브리드 종자는 여러 재래종을 교잡해서 우수한 형질들만 나타나도록 해서 만든다. 문제는 하이브리드의 후손은 우수한 형질보다 열성 형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씨를 받아서 다시 심는 것이 무의미해 진다는 것이다. 즉, 소출이 높은 하이브리드 종자를 심었다고 해서 그 씨를 받아서 다음 농사에 쓸 수가 없고, 매 작기마다 씨를 새로 사야 했다.

하이브리드 씨앗의 특허권은 세계적으로 소수의 거대 종자회사에 집중되었다. 파이어니어하이브리드와 몬산토의 데칼브 등이 그 리더였다. 파이어니어는 윌러스(루즈벨트의 농업장관)가 설립했는데, 그는 미 농업부가 하이브리드의 장점(고수확 등)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숨기는 연구들을 진행하게 했다. **하이브리드는 거대 종자회사를 출현 시켰다.**

하이브리드는 아직 유전자조작은 아니지만, 이러한 생명에 대한 독점과 특허, 정부의 편파적이고 맹목적인 후원 등은 이후 GMO 종자혁명의 토대가 되었다.⁸⁴

⁸³ A. Parsons, "Philippines: Rebellious Little Brother", *Pacific Research and World Empire Telegram*, January 1971.

⁸⁴ Jeroen van Wijk, "Hybrids Bred for Superior Yields or for Control?", *Biotechnology and Development Monitor*, 1994, No. 19, pp. 3-5.

미국식 농업기술,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 하이브리드 종자 등은 결국 개도국 농민들이 이러한 수입자재에 종속되게 만들었다. 이것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진행될 “계획”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화학산업도 종자산업과 나란히 발전했다. 이들은 하이브리드의 고수확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화학 농자재를 사용해야만 달성 가능하다고 선전했다. 미 정부는 USAID 를 통해 맞장구쳤고, 수원국 정부들이 미국식 농자재를 받아들이게 했다. 하이브리드 고소출품종(HYV) 밀, 옥수수, 벼 등을 심고, 화학 농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금새 주류가 되었다. 록펠러와 포드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증산 방식, 시비법 등을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낙인 찍었다.⁸⁵

오랜 전통 농업국가의 정부들조차 선조들의 방법을 버리고 농민들에게 미국식 농업기술과 자재를 가르치고 보급했다.⁸⁶

기술의 기만

1959 년 미 농업부는 포드 재단의 “인도 식량위기와 해결방법”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토지 소유문제, 빈부격차, 고리대금 등의 문제는 놔둔채 오직 기술적 해결(개량종자, 화학비료, 농약 등)만 제시했다. 인도 내에 관개시설을 이미 갖춘 몇개 지역에 이런 기술 투입을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그 실현을 위해 포드는 인도의 집약적 농업개발 프로그램(IADP)을 편당했다. 관개시설을 갖춘 부농들에게 자재를 쓰게 했다. 자재에 대해 보조금을 주거나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줬다. 대출금은 세계은행이 넉넉히 제공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 정부가 록펠러-포드 녹색혁명을 받아들인다. 관개시설을 갖춘데다 집중적 농자재 투입을 받은 지역에서 하이브리

⁸⁵ Harry Cleaver, *op. cit.*, p. 9.

⁸⁶ *Ibid.*, p. 9.

드 밀과 벼는 즉각적 증산을 보였다. 인도 정부도 이제는 토지개혁, 소작농 처지 개선, 고리대 폐지 등에 관심을 잃었다.⁸⁷

화학자재를 투입하면 초기에 급격한 생산증대가 이뤄진다. 이 생산성 증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 부분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녹색혁명은 다국적기업이 화학제품, 석유, 기계, 종자, 기타 자재를 팔아먹을 수 있는 개도국 시장을 열어주었다. 이것이 애그리비즈니스의 시초다.

세상을 바꿔놓을 야심, 애그리비즈니스

녹색혁명이 개도국들 사이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을 때, 록펠러 형제는 조용히 하버드 대학에서 “애그리비즈니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애그리컬처는 먹기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었다면, 애그리비즈니스는 팔기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애그리컬처가 애그리비즈니스가 되면, 결국 농업은 다수 민중의 손을 떠나 극소수 대기업 손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때 그들이 세운 목표인 세계 식량 생산의 독점은 무려 40년의 착실한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

하버드에서 애그리비즈니스 연구를 주도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1) 존 H. 데이비스는 50년대초 아이젠하워 아래 농업 차관보였다. 그는 1955년 정부를 떠나 하버드 경영대에 들어갔다. 당시로서 농업 전문가가 택하기에는 이상한 진로였으니, 확실히 그의 생각은 시

⁸⁷ Research Unit for Political Economy (R.U.P.E.), "Economics and Politics of the World Social Forum, Appendix I: Ford Foundation-A Case Study of the Aims of Foreign Funding", *Aspects of India's Economy* September 2003. For background on the postwar close ties between the Ford Foundation and the CIA during the 1950's and 1960's see James Petras, "The Ford Foundation and the CIA: A Documented Case of Philanthropic Collaboration with the Secret Police", *Rebellion*, 15 December 2001, <http://www.rebellion.org/jpetras/english/ford010102.htm>.

대를 한참 앞서나갔던 것이다. 그의 꿈은 애그리컬처를 애그리비즈니스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⁸⁸

(2) 레이 골드버그는 하버드 경영학 교수였다.

(3) 와실리 레온티에프는 미국의 전체 경제를 투입-산출 분석에 의해 파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트랜지스터와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경제에 대한 방대한 통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록펠러 재단이 후원하였고, 이후 미 공군, 포드 재단이 참가했다.

골드버그가 훗날 고백한 바에 의하면 애그리비즈니스의 본질은 미국 식량생산에 “수직적 통합”을 실현시키는 것이었다.

미국 산업 가운데 최초로 완전하게 수직통합된 것은 석유다.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은 1882년 완벽한 독점을 달성하며, 석유 가격은 물론 화물 운송비까지 통제하게 된다. 여러 주와 법원이 독점을 꺼려했으나 실패했다.

록펠러-하버드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스탠더드오일 모델이었다. 이들은 농업 분야에 바로 그 수직통합을 이루고, 농업 이외 분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었다.

육류산업의 경우, 1920년대 미 정부 조사에 따르면 5개 거대회사(Armour, Swift, Morris, Wilson, Cudahy)가 거의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다.⁸⁹ 냉장기차와 가공라인의 도입으로 막대한 육가공능력을 갖춘 이들은 위로는 마케팅을 통합했고, 아래로는 소와 돼지의 공급을

⁸⁸ John H. Davis, *Harvard Business Review*, 1956, cited in Geoffrey Lawrence, "Agribusiness", *Capitalism and the Countryside*, Pluto Press, Sydney, 1987. See also Harvard Business School, *The Evolution of an Industry and a Seminar: Agribusiness Seminar*, <http://www.exed.hbs.edu/programs/agb/seminar.html>.

⁸⁹ Robert M Aduddell, and Louis P. Cain, "Public Policy Toward The Greatest Trust in the World", *Business History Review*, Summer 1981, Harvard College, Cambridge, p. 217.

통합했다. 빅파이프는 가축집하장, 저온저장고, 냉장수송차량, 철도, 대출, 언론 등을 지배하고 있었고, 불법으로 카르텔을 유지하며 새로운 경쟁자를 퇴출시켰다.⁹⁰

수직통합의 불법화는 미 의회가 이러한 거대 재벌과 트러스트들과 싸워서 힘겹게 얻어낸 승리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록펠러 맨인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된 후, 국민건강, 식품안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유지해오던 규제들이 하나둘 풀리고 수직통합이 차츰 허용되기 시작했다.

이 세력이 내세운 슬로건은 “탈규제”였다. “경제적 효율성 또는 규모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사용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에 너무 깊이 침투해있어서 미국인들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프로파간다에 앞장선 것은 주류언론이었다.

하지만 탈규제의 진정한 목표는 미국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 거대기업의 독점과 권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탈규제와 민영화를 주장한 사람으로 카터, 레이건, 대처 등이 유명하지만, 이를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록펠러 3세대. 그는 1973년 책에 정부 기능을 탈중앙화하고 민영화해야 한다고 적었다.⁹¹

데이비스-골드버그-레온티에프의 첫 작품은 플로리다 오렌지 산업을 수직통합하는 것이었다. 가족농 자립농 소농은 몰락하고 대형 주스 회사가 나타났다. 선키스트는 주스의 가공과 판매를 장악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선키스트가 정하는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다.⁹² 이들

⁹⁰ *Ibid.*, p. 218.

⁹¹ John D. Rockefeller III, *The Second American Revolution*, Harper & Row, New York, 1973, p. 108.

⁹² Current Biography, 1967, W. Leontief and Ray Goldberg, "The Evolution of Agribusiness", *Harvard Business School Executive Education Faculty Interviews*, <http://www.exed.hbs.edu/faculty/rgoldberg.html>. W. Leontief, *Studies in the*

의 다음 작업은 밀과 콩이었다. 독점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식품 산업의 수직통합이 가속화됐다.

1970년대 애그리비즈니스는 과거 미국 내 식량산업 독점과는 스케일이 달랐다. 이 거대기업들은 미국의 식량산업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지배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애그리비즈니스의 부상, 농민의 몰락

레이건 하에 탈규제는 급진전하였고, 정부 규제가 사라진 곳에 4-5개의 독점기업들이 규제를 만들었다. 가족농은 몰락하고 기업농에게 땅을 내줬다. 자립농은 기반을 잃고 자기 땅을 빼앗은 대기업의 “계약농”이 되었다.

레이건-부시 기간 동안 미국 농업은 지각변동을 겪었다. 식량생산은 자립농, 가족농, 로컬농, 소농을 떠나 대기업의 손에 들어갔다. 이들은 애그리비즈니스의 초대형 규모의 경영과 경쟁할 수 없었다. 공장 축산은 육류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렸고, 자립농들은 그 가격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1979년에서 98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30만 명의 농민이 사라진다.⁹³

미국의 돼지농장 숫자는 60만 개에서 거의 1/4로 줄었지만 돼지 총 두수는 증가했다. 전체 돼지 농장의 3프로가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다. 2004년 하킨 상원의원 보고에 의하면 4개의 소고기 회사가 거세소와 암소 도살의 84프로, 돼지 도살의 64프로를 담당했다.

Structure of the American Economy, International Science Press Inc., White Plains, New York, 1953.

⁹³ The Humane Farming Association, *Factory Farming: The True Costs*, San Rafael California, 31 July 2005, <http://www.hfa.org>.

4 개 회사가 곡물 시장의 89 프로를 장악했다.⁹⁴ 카길은 1998 년 컨티넨털 그레인을 인수했다. 법무부는 합병을 승인했다. 그 결과 출현한 카길은 미국 곡물 엘리베이터 용량의 40 프로를 장악했다. 4 개의 거대 농자재 및 종자 회사(Monsanto, Novartis, Dow Chemical, DuPont)가 미국 옥수수 종자 시장의 75 프로, 콩의 60 프로를 지배했다. 물론 이들은 그 종자에서 나온 작물에 사용할 화학 농자재도 생산·판매했다.⁹⁵

새로 부상하는 애그리비즈니스 업계는 미국 농업을 탈바꿈시키며 높은 이윤을 누렸다. 이익률을 비교해보면, 가축농은 70 년대 10 프로에서 90 년대 2 프로로 떨어졌고, 애그리비즈니스는 1993 년 13 프로에서 1999 년 23 프로로 올랐다.⁹⁶

농민들은 계약직 직원이 되었다. 이들은 더 이상 땅을 소유하지도, 가축을 갖지도 못했고, 거대기업의 시설 속에서 동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사실 중세 농노와 다를 바가 없었다. 영주는 카길, ADM, 스미스필드, 콘아그라 등이었다.

전통적 의미의 농업이 몰락하고 농민이 사라지면서 지역정부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 애썼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애그리비즈니스 업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치한다.

공장축산, 동물지옥의 시작

80 년대에 공장축산이 본격 도입된다. 자동차 생산에 조립라인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였듯, 가축 공정에도 공장식 원리들이 들어왔다.

⁹⁴ Tom Harkin, *Economic Concentration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Food and Agriculture Sector*, Prepared by the Democratic Staff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Nutrition, and Forestry United States Senate, 29 October 2004, p.6.

⁹⁵ *Ibid.*, pp. 5-6. Also Mark Spitzer, "Industrial Agriculture and Corporate Power", *Global Pesticide Campaigner*, August 2003, <http://www.panna.org/iacp>.

⁹⁶ James MacDonald et al., *Growing Farm Size and the Distribution of Farm Payments*,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Economic Brief No.6, Washington, D.C. March, 2006, p. 2.

원래 가축은 목초지에서 주인의 개별적인 돌봄을 받으며 자랐으나, 이제는 CAFO(집중가축사육활동)에 의해 대체됐다. 주주만족을 우선 시하는 월스트리트 방식대로 무조건 최소 비용에 최대 이윤이 목적이었다.

CAFO 는 최대한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동물을 몰아넣었다. 돼지는 콘크리트와 철창으로 된 방에서 태어나 도살될 때까지 그곳에 살았다. 방은 딱 돼지 몸집만한 크기였고, 돼지는 누울 수가 없어 심각한 발굽 이상이 생겼다. 살아있는 동안 한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다. 돼지들은 미쳐서 철창을 씹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미국 돈육의 거의 1/10 을 생산하는 아이오와 아메스를 가면 10 마일 동안 가도가도 돼지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⁹⁷

미 농업부 통계로 CAFO 에 갇힌 동물의 10 프로그가 스트레스, 질병, 부상으로 죽는다고 추산했다. 어떤 종류의 닭들은 무려 28 프로그가 죽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이 놓인 처참한 여건은 애그리비즈니스에게 중요치 않았다. 동물이 죽도록 놔두는 것(재고 손실)이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공장축산 업자들은 의원들의 후원금을 넉넉히 제공해줬기 때문에 동물학대방지법으로부터 면제를 누렸다.⁹⁸

축산분뇨, 소중한 거름이 오염원/질병원이 되다

CAFO 에서 쏟아져 나오는 축산 분뇨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양의 130 배에 달했다.⁹⁹ 한 마리의 돼지는 사람의 2-4 배, 젖소는 24 배의 분뇨를 배설했다. CAFO 는 분뇨를 땅에 살포하거나 거대한 탱크

⁹⁷ The Economist, "Growing Pains," *The Economist*, US Edition, 25 March 2000.

⁹⁸ The Humane Farming Association, *op. cit.*

⁹⁹ OMB Watch, *OMB Waters Down Standards on Factory-Farm Runoff*, 28 May 2003, <http://www.ombwatch.org/article/articleview1540>. See also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 *Facts about Pollution from Livestock Farms*, Washington, D.C., 15 July 2005.

에 저장했다. 땅에 뿌리거나 탱크에서 새나온 폐수는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사람의 병(위장염, 발열, 신장병, 사망 등)을 일으켰다.¹⁰⁰

축산분뇨는 병원균(살모넬라, 대장균, 크립토스포리듐, 분변 대장균)이 사람 분뇨에 비해 10-100 배 많았고, 사람에게 40 종 이상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었다.¹⁰¹ 물에 질산염 농도가 높아지자 청색증으로 인해 영아들이 사망했다.

조지 W. 부시 아래 EPA 는 애그리비즈니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축산 분뇨 오염에 대해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법을 철회했다. EPA 는 또한 기업들이 축산 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측정해야 한다는 규제를 없앴다.¹⁰²

90 년대말이 되면 공장축산 덕에 농업이 미국 수질오염의 제 1 원인을 차지한다. 원래 가족농들에게 축산분뇨는 오염원이 아니라 소중한 거름이었다.

축산 항생제 남용

의약품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CAFO 의 밀집사육 방식에서는 질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항생제를 다량 소비했다. 90 년대말이 되면 항생제의 70 프로가 동물에게 사용되었다. 사람이 아닌 짐승이 제약회사 최대 고객이 되었다.¹⁰³ 애그리비즈니스에게 제약산업은 필수 요소였고, 2000 년대로 넘어가면서 제약과 농업 두 산업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한다.

1954 년 미국 농민들은 1 년에 가축사육에 약 50 만 파운드의 항생제를 썼다. 2005 년에 이 수치는 4 천만 파운드로 늘어났다. 80 배다.

¹⁰⁰ NRDC, *op. cit.*

¹⁰¹ NRDC, *op. cit.*

¹⁰² OMB Watch, *OMB Waters Down Standards on Factory-Farm Runoff*, 28 May 2003, <http://www.ombwatch.org/article/articleview1540>. See also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 *Facts about Pollution from Livestock Farms*, Washington, D.C., 15 July 2005.

¹⁰³ NRDC, *op. cit.*

항생제의 80 프로는 사료에 쏟아부어 동물에게 먹였다. 동물이 더 빠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나타났고, 항생제 따위가 범벅이 된 고기를 먹음으로써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산업의 독점화, 독점의 무기화

90 년대말에 이르면 4 개 거대회사(Tyson, Cargill, Swift, National BeefPacking)가 미국 소고기 포장육 시장의 84 프로를 장악했다. 돼지고기 역시 4 개사(Smithfield Foods, Tyson, Swift, Horme)가 64 프로를 지배했다.

3 개사(Cargill, ADM, Bunge)가 콩 분쇄의 71 프로, 3 개사(Cargill, ADM, ConAgra)가 밀가루 제분의 63 프로를 장악했다.

2 개의 GMO 거대기업 Monsanto 와 듀폰(Pioneer-HiBred)은 미국 옥수수와 콩 종자시장의 60 프로를 지배했다. 모두 회사가 특허를 가진 GM 종자였다.

새천년이 시작됐을 때 수직통합을 완성한 애그리비즈니스가 가진 시장지배력은 1920 년대 독점의 시대 기업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이었다. 애그리비즈니스는 제약산업 다음 가는 수익률을 자랑했다. 미국 국내 판매액이 4 천억불이 넘었다.¹⁰⁴

¹⁰⁴ Ray Goldberg, *The Genetic Revolution: Transforming our Industry, Its Institutions, and Its Functions*, address to The International Food and Agribusiness Management Association (IAMA), Chicago, 26 June 2000, pp. 1-2. Goldberg founded and headed the IAMA as well as holding seats on the boards of agribusiness giants Archer Daniels Midland, Smithfield Foods and DuPont Pioneer HiBred. He practiced what he preached.

2003 년, 미 국방부 국방대학교의 한 보고서는 이렇게 썼다. “중동에
게 석유가 미국에게는 애그리비즈니스다.”¹⁰⁵ 애그리비즈니스는 사업
일 뿐 아니라 초강대국의 전략무기였다.

인민에게 빼앗아 기업에게 주다

1862 년 링컨 대통령이 농업부를 창설할 때 “인민을 위한 부처”라
불렸다. 당시 농민은 미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백여년이
지난 뒤 가족농은 멸종위기가 됐고, 농업은 애그리비즈니스에게 장
악되었다. 농업부는 명백히 애그리비즈니스를 위한 부처였다.

1995-2003 년간 농업부는 천억불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나,
이 돈은 가족농들에게 가지 않고, 농업분야 거대기업 10 프로가 보조
금의 72 프로를 가져갔다. 우습게도 정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
변하는 데이빗 록펠러에게도 수백만불이 흘러갔다.¹⁰⁶

1996 년 애그리비즈니스 로비는 또하나의 중대한 승리를 거둔다. 미
국 농업정책에서는 1933 년부터 농업부가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할 수 있게 돼있었다. 즉, 정부가 휴경을 명령하거나,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일부 작물의 관측을 위해 쿼타를 정하거나, 농산물 수출
을 장려할 수 있었다. 이러한 농업장관의 권한이 1996 년에 폐지된
다.

이미 미국의 농산물 생산량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었으나, 농업장관
이 휴경 또는 비축을 실시할 수 없게 되자, 당연한 일이지만 가격은
폭락했다. 가족농은 한층 더 몰락했으며, 애그리비즈니스는 열심히
그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

¹⁰⁵ Col. Eddie Coleman, US Army, *Agribusiness Group Paper*,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03, in
<http://www.ndu.edu/icaif/industry/IS2003/papers/2003%20Agribusiness.htm#>.

¹⁰⁶ Tom Harkin, *op. cit.*

녹색혁명의 후계자, 유전혁명

분명 90 년대말은 골드버그가 말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일보다 우리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날 준비가 돼있었다.¹⁰⁷

1998 년에 골드버그는 77 세였으나 여전히 왕성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40 년전 하버드에서 녹색혁명을 통한 애그리비즈니스의 전망을 제시했듯이, 다시 하버드에서 연구팀을 조직하여 유전혁명이 세계식량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

골드버그는 향후 30 년 동안 세계 식량생산 체제의 변화를 예측했다. 만일 전통적 애그리비즈니스 모델이 지속된다면 2028 년에 8 조불 규모의 산업이 되어있을 것이나, 제약, 보건, 생명공학 등이 결합되면 15 조불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¹⁰⁸

¹⁰⁷ Ray Goldberg, *The Genetic Revolution*, *op. cit.*, p. 1.

¹⁰⁸ *Ibid.* p. 2.

식량은 권력이다

유전자 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다

1984 년 레이건이 재선에 성공했다. 민영화와 탈규제의 기조는 더 탄력을 받았다. 미국 애그리비즈니스는 이미 미 농업부 정책에 침투 할대로 침투해있었고, 세계 식량시장에 대한 지배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 이제 새로운 혁명을 위한 토대가 마련돼있었다.

1985 년 록펠러 재단은 유전자조작 식물을 상용화하는 가능성을 최초로 본격 연구했다.¹⁰⁹ 록펠러의 자금은 전세계의 과학 연구를 진흥 시키면서 유전혁명을 일으켰다. 그뒤 20 년 동안 록펠러는 재단 자금 1 억불을 직접, 수억불을 간접 사용했다.¹¹⁰

록펠러 재단이 유전공학에 투자한 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다. 이는 1930 년대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30 년대말 록펠러 재단은 한편 우생학을 후원할 당시, “분자생물학”이라는 과학분야를 만들어냈다. 이는 고전생물학과 구분됐다.

30 년대 록펠러 재단의 회장이던 워렌 위버는 물리학자였다. 그와 맥스 맥슨이 분자생물학의 토대를 세웠다. 특히 대공황 시기에 이들은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할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과학연구 사업들이 이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록펠러 재단은 과학 자체를 만들

¹⁰⁹ Gary H. Toenniessen, *Vitamin A Deficiency and Golden Rice: The Role of the Rockefeller Foundation*, 14 November 2000, <http://www.rockfound.org/library/111400ght.pdf>, p. 3.

¹¹⁰ J.C. O'Toole, G.H. Toenniessen et al., *The Rockefeller Foundation's International Program on Rice Biotechnology*, Rockefeller Foundation archives, http://www.rockfound.org/library/01rice_bio.pdf.

고, 그 진행 방향을 결정했다. 1932-57 년 사이에 록펠러 재단은 분자생물학을 창설하는 데에 9 천만불을 투자했다.¹¹¹

분자생물학,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유전공학은 말 그대로 록펠러 재단의 작품이었다.

환원론-우생학-분자생물학-유전공학

분자생물학은 우생학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유전자와 화학물질을 조작함으로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버는 1938 년에 처음으로 “분자생물학”이란 말을 만들었고, 이는 더 이전에는 1920 년대 록펠러의학연구소의 자크 로엠펜과 맥을 같이 했다. 이들은 고전생물학이 좀더 “과학다워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생명현상은 결국 과학에 의해 분석·이해·통제될 수 있다고 믿었다. 록펠러 사람들은 분자생물학을 사회통제와 사회공학의 궁극적 수단으로 보았다.¹¹²

위버는 1932 년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중추신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과 학습과 기억과 망각 등을 모두 분자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인간행동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정보만이 지혜로운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¹¹³

록펠러 재단의 접근은 무한히 복잡한 생명현상을 단순하고 결정론적이며 예측가능한 모델로 환원시키는 것이었다. 환원주의는 데카르트로 거슬러 올라갔으며, 찰스 다윈의 견해와도 같았다. 생명체는 유전자 복제라는 목적을 가진 기계에 불과했고, 복잡한 생명체는 단순한 구성요소로 “환원”될 수 있다.

¹¹¹ Philip J. Regal, *A Brief History of Biotechnology Risk: The Engineering Ideal in Biology*, Edmonds Institute, 18 July 1999, <http://www.cbs.umn.edu/~pregal/GEhistory.htm>.

¹¹² Pnina Abir-Am, *The Biotheoretical Gathering, Transdisciplinary Authority and the Incipient Legitimation of Molecular Biology in the 1930s: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ical Sociology of Science*. Hist. Sci. 25:1-70,1987, pp. 18-22,33.

¹¹³ Cited in Robert Bruce Baird, *We Can Change the World*, <http://www.government.articlesarchive.net/we-can-change-the-world.html>.

생명체는 유전자로 환원되었다. 유전자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은 곧 유전자였다. 생명이 소중하거나 존엄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환원론은 그 자체가 결함이 있는 관점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견해다. 자연계, 특히 생물계는 디지털 컴퓨터처럼 예측가능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DNA 는 실험관에서는 안정적이었지만, 실제 생물체 속에서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활동했다. 컴퓨터 개발자는 원하는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유전자 과학자는 원하는대로 생명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록펠러 재단 사람들은 분자생물학을 통해 유전자를 매핑할 야심을 가졌고, 그 정보를 통해 범죄, 가난, 굶주림, 정치적 불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보았다.¹¹⁴ 복잡한 사회문제도 결국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유전자 자르기는 1973 년 이뤄졌다. 1970 년대 미국의 분자생물학자들 사이에는 재조합 DNA 연구(recombinant DNA, 유전공학의 옛 이름)가 허용되어야 할지 금지되어야 할지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었다.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인간이 알 수 없고, 인공 유전자가 생태계에 유입됐을 때 가져올 파국은 예측도 안된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다. 누가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지는 모두 알 것이다.

특히 레이건의 탈규제 아래 유전자조작 생명체가 자연계로 방출되는 문제에 대한 안전성 또는 위험성 평가는 ‘사기업’의 몫이 되었다.

육종학은 같은 종의 식물 내의 다른 품종을 교배하여 하이브리드 종자를 얻어내는 것이었으나, 유전공학은 다른 종의 생명체 사이에 자유로운 재조합(recombinant)의 문을 열었다. 예컨대, GE 옥수수(또는 Bt 옥수수)는 토양박테리아(Bacillus thuringiensis 또는 Bt) 유전자를 옥수수에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이 옥수수는 자기 몸에서 스스로 살충제를 만들어서 해충(European Corn Borer)을 퇴치할 수 있

¹¹⁴ Philip J. Regal, *op. cit.*

었다. 이 방법은 그러나 해충이 곧 내성을 발달시킴으로써 GE 옥수수가 무력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부 생명체의 유전자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대포(Gene cannon)가 사용됐다. 이 기술은 1987년 코넬대학교 존 샌포드가 개발했다. 하지만 호매완 박사에 따르면 외부 유전자의 삽입은 대중이 생각하듯 정교한 절차가 전혀 아니고, 통제불가능하고 불안정한 방법으로서, 대부분 경우 호스트 생명체의 유전자는 심각한 파손 또는 영김을 받고, 그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¹¹⁵

인류의 주식 벼에 대한 유전자조작

녹색혁명의 30년 동안 아시아의 벼 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했다. 재래종은 밀려나고 고소출품종(HYV)이 재배되었고, 덩달아 비료, 농약, 기계, 관개, 대부, 마케팅 세일즈가 함께 들어갔다. 이 흐름을 주도한 것은 필리핀 소재 IRRI(국제벼연구소)다.

그러한 벼를 다시 유전혁명의 첫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록펠러 재단의 전략적 결정이었다. 쌀은 24억 이상의 세계 인구의 주식이며, 12,000년 이상 세계 각지에서 재배되어온 작물 중의 작물이었기 때문이다.¹¹⁶ 수천년 벼를 재배해온 농민들은 이미 가뭄, 해충, 상이한 기후조건을 견디는 품종을 개발했었다. 생명공학 없이도 인류가 개발한 벼 품종은 14만 개가 넘었다.¹¹⁷

1984년 록펠러 재단은 벼 계놈을 매핑하기로 결정한다. 록펠러 재단은 국제벼생명공학프로그램(IPRB)을 설립해서 연구비를 밀어주었

¹¹⁵ Mae-Wan Ho, *Puncturing the GM Myths*, <http://www.unobeserver.com>, 4 August 2004.

¹¹⁶ Gary H. Toenniessen, "Vitamin A Deficiency and Golden Rice: The Role of the Rockefeller Foundation", *The Rockefeller Foundation*, 14 November 2000, in <http://www.rockfound.org/library/111400ght.pdf>.

¹¹⁷ M. T. Jackson, "Protecting the Heritage of Rice Biodiversity": *GeoJournal* March 1995, pp 267-274. Quoted in K.S. Fisher (editor), "Caring for the Biodiversity of Tropical Rice Ecosystems", *IRRI*, 1996. See also Anna-Rosa Martinez I. Prat, "Genentech Preys on the Paddy Field", *Grain*, June 1998.

다. IPRB 에는 세계 유수의 실험실들(스위스연방기술연구소, 독일 프 라이부르크 대학 응용생명과학센터 등)이 참가했다. 그뒤 17 년간 재 단은 1 억불 이상을 사용했고, 1989 년부터는 매년 5,400 만불을 교 육과 역량강화에 투자했다.

벼의 녹색혁명을 이끌었던 IRRI 가 유전혁명에도 핵심역할을 했다. 세계 모든 벼 품종의 1/5 이상이 IRRI 의 유전자 은행에 있었다. 이 들 벼 품종들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가져간 것들이었다. 그리고 미국 에서 만들어낸 벼 품종의 유전자의 3/4 이상은 IRRI 로부터 온 것이 다. 미국은 다시 그 벼를 아시아 국가들에게 강매하면서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종자은행의 벼들은 원래는 지역 내 원주민 농민들에게 “벼 품종을 보호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가져간 것으로, 신탁(trust) 관계 하에, 소유주는 농민이었다. 신젠타나 몬산토는 불법적으로 IRRI 의 종자은행에서 종자를 가져갔다. 이들은 가져간 벼를 유전자조작한 뒤, 자기 회사의 고유한 지식재산으로 특허를 받았다. 1994 년 GATT 우루과 이 라운드에서 만들어진 WTO 는 TRIPS 라는 급진적 내용을 도입하 여, 다국적 회사가 식물 및 기타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1993 년 유엔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합의되어 개도국의 종자 자원에 대한 도둑질을 막고자 했다. 하지만 미국은 본문에 아주 작은 수정 을 제안했다. 즉, CGIAR(IRRI 도 그 일부다)가 보유한 유전자원들은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는 50 만 종의 씨앗, 또는 유전자 은행이 보유한 식량작물 종류의 40 프로에 해당되었다. 결국 유전공학 대기업들은 여전히 이 종자들을 가져가서 특허를 낼 수 있었다.¹¹⁸

1990 년대 초부터 IPRB 는 “비타민 A 결핍을 해소하는 벼 품종 개발”을 연구의 목표로 선정한다. 이는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가리는

¹¹⁸ The Crucible II Group, *Seeding Solutions: Volume 1: Policy Options for Genetic Resources, Policy primer Major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in http://www.idrc.ca/en/ev-64406-201-1-DO_TOPIC.html.

탁월한 선전 전략이었다. 대중들은 유전공학자들이 세계 식량문제와 영양결핍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갖게 됐다.

록펠러 재단의 프로파간다 작업자들은 비타민 A 결핍이 개도국 신생아들이 눈이 멀거나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1-1.4 억 어린이들이 비타민 A 가 부족했고, 25-50 만명이 장님이 되었다.

유전자조작 벼의 도입은 24 억 명의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뜻했다. 사실 유전혁명 전에 벼는 다국적 애그리비즈니스 종자회사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1) 벼 재배지역과 농민들이 구매력이 없었고 (2) 벼는 하이브리드화하기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민 자가 채종이 아시아 벼 종자의 80 프로 이상을 차지했다.

아시아의 쌀 생산자들에게 유전자조작 벼 종자를 판매할 수 있다면 이는 어마어마한 시장이었다. 그 작업에 착수하고자 록펠러 재단과 록펠러형제재단은 ISAAA(국제농생명공학기술획득서비스)를 창설했다. ISAAA 창설 목적에는 작물 생산성과 소득을 증대시켜 개도국의 빈곤을 완화하고, 특히 자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있었지만, 사실 ISAAA 는 유전자조작 식물을 개도국에 도입시키기 위한 플랫폼에 불과했다. ISAAA 를 후원한 것은 록펠러 재단 외에도 몬산토, 노바티스(신젠타), 아그레보(Aventis Crop Science), USAID 등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1974 년 키신저가 NSSM 200 전략문서에서 인구감소 대상 우선순위 13 개국을 설정한 그 시점에, ISAAA 역시 유전자조작 식물과 작물을 도입해야할 우선순위 국가 12 개국을 선정했다. 12 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케냐, 이집트,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스타리카, 멕시코였다. ISAAA 의 12 개국 가운데 절반이 키신저 리스트와 겹쳤다.

2000 년에 록펠러 재단과 스위스연방기술연구소는 수산화와 박테리아에서 유전자를 가져와 벼의 DNA 에 삽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쌀은 프로비타민 A 또는 베타카로틴쌀이라고 명명되었다.

비타민 A 를 생산하게 되는 베타카로틴 때문에 짙은 오렌지 색을 띠었고, 황금쌀이라 불렀다. 그 이름도 마케팅에 있어 신의 한 수였다.

황금쌀은 생명공학 분야를 미화하기 안성맞춤이었다 1999 년 클린턴도 거들었다. “황금쌀을 개도국에 더 널리 보급한다면 하루에 4 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¹¹⁹ 신젠타와 몬산토는 황금쌀에 특허를 등록하면서 개도국에서 인도주의적 용도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¹²⁰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어린이들은 비타민 A 를 여러 종류의 식품을 통해 섭취해왔다. 비타민 A 가 함유된 식품이 없어서 쌀에다 비타민 A 를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A 가 든 식품 자체를 충분히 섭취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록펠러의 나팔수들이 프로파간다를 불어대자 이성이나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록펠러 재단의 보도자료에는 결코 언급되지 않는 내용으로, 비타민 A 과다는 몸에 독소로 작용하였다. 영유아의 경우 이는 영구적 뇌 손상을 야기했다.¹²¹

록펠러 재단은 2000 년에 자신들의 벼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이 정보는 애그리비즈니스 생명공학 대기업에게 넘어갔다. 5 월에 아스트라제네카(이후 스위스 신젠타의 일부가 됨)는 황금쌀을 상업화할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스미스는 스위스 신젠타 종자회사에서 유전자조작 종자를 생산하는 데 관여했던 인물이다. 스미스는 2003 년 죽기 얼마 전에 고백했다. “GM 이 인류를 먹일 것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건 사실이

¹¹⁹ Bill Clinton, quoted in Paul Brown, *op. cit.*

¹²⁰ Paul Brown, *op. cit.*

¹²¹ Razak Lajis, “Vitamin A Toxicity”, <http://www.prn2.usm.my/mainsite/bulletin/sun/1996/sun43.html>. Original report cited is from *Australian Adverse Drug Reactions Bulletin*, Vol. 15, No.4, November 1996.

아니다... 인류를 먹인다는 것은 정치적·재정적 의지가 필요한 것이
지, 생산과 유통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¹²²

하지만 “인류를 먹인다(feeding the world)”는 너무 강력한 프로파간
다로 자리를 잡은 뒤였다. 대다수 우매한 대중은 급증하는 인구 문
체에 대해 GM 식품만이 인류를 먹일 수 있다는, 록펠러의 선전을
그대로 믿었다.

ISAAA, CGIAR, IRRI, 그리고 록펠러 재단의 펀딩을 통해 유전자조
작 종자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틀이 갖춰졌다. 인류 식량공급 장악이
라는 다음 단계로 이행할 때가 되었다. 그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
이 필요했다.

그 조직의 이름은 세계무역기구(WTO)였다.

¹²² Alex Kirby, *op. cit.*

제 4 부

전세계에 퍼지는 GMO 종자

드디어 세계 식량생산 혁명이 시작되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인민을 노리는 GMO

2004 년이 되면 세계적으로 GMO 작물이 자라는 면적이 1.67 억 에이커였다. 이는 8 년만에 무려 40 배 증가한 것으로, 세계 총 경작지의 1/4 에 해당했다. 10 년내 GMO 작물이 세계 작물생산을 지배할 것임을 예고하는 통계였다. GMO 작물 면적의 2/3 이상(1.06 억 에이커)은 GMO 의 원조인 미국이었다.

2004 년에 세계 2 위의 GMO 재배 국가는 0.34 억 에이커의 아르헨티나였다. 그외 브라질, 캐나다, 남아프리카, 중국도 GMO 를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이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전 소련 위성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컬럼비아, 온두라스, 스페인 등도 규제를 약화시키면서 GMO 를 급격히 늘리고 있었다.

가난한 국가들일수록 GMO 회사들의 마케팅 표적이 되었다. 이 회사들은 GMO 종자와 더불어 그에 맞춰진 특수한 제초제나 살충제를 함께 팔았다.¹²³

퓨 연구에 따르면 2004 년 GMO 작물을 심은 농민의 85 프로가 빈곤했다. 이들은 대개 개도국 농민이었으며, 그들의 국가는 IMF 개혁 조치로 곤란을 겪으면서 높은 대외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땅과 인민은 어떻게 수탈 당했는가

록펠러 일가는 80 년대말 거대한 토지와 인구를 지닌 아르헨티나를 GMO 실험장으로 골랐다. 아르헨티나인들은 생체실험 대상이 되었다.

¹²³ Pew Initiative on Food and Biotechnology, *Genetically Modified Food Crops in the United States*, <http://www.pewagbiotech.org>, August 2004.

데이빗 록펠러와 그의 은행 체이스 맨해턴은 새로 취임한 칼로스 메넴 대통령과 친했다.

아르헨티나 같은 급변을 겪은 국가는 이 세상에 없다. 아르헨티나가 유전자조작 콩으로 뒤덮여버린 이야기는 주권국가가 어떻게 식량주권, 식량안보, 식량자급을 잃는지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원래 아르헨티나는 인구 전반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고 있었다. 후안 페론 시대의 농업은 다변화돼있고, 소농 가족농 위주로 구성돼있었다. 70 년대의 아르헨티나 농부는 채소나 밀, 닭, 젖소, 옥수수 등을 작은 면적의 땅에서 기르면서, 세계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내놓았다. 당시 아르헨티나 쇠고기는 텍사스와 비견되었다. 80 년대 GMO 침투가 시작되기 전에 아르헨티나의 비옥한 땅과 자립적 농사 문화는 자급하고도 남는 식량을 생산했다. 정부 보조금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농민 부채도 최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1980 년대 아르헨티나에 채무 위기가 오면서 이 사정은 영원히 변할 것이었다. 70 년대 세계적 유가 폭등 이후, 국제적 은행들 (Chase Manhattan, Citibank, Chemical Bank, Bank of Boston, Barclays 등)은 유혹적 조건으로 아르헨티나에 대출을 해줬다. 이 돈으로 아르헨티나는 급한 석유를 구입했고, 런던의 이자율이 낮게 유지되는 이상 값는 데 문제는 없었다.

1979 년 10 월 미 연준은 갑자기 이자율을 무려 300 프로 인상한다. 1982 년이 되면 아르헨티나는 빛의 덩어리에 걸렸다. 이 수법은 영국이 1880 년대에 이집트로부터 수에즈 운하를 뺏기 위해 썼던 것과 같다. 데이빗 록펠러 등 뉴욕의 은행가들은 영제국 수법을 제대로 배웠던 것이다.¹²⁴

¹²⁴ F. William Engdahl, *A Century of War: Anglo-American Oil Politics and the New World Order*, Pluto Books Ltd., London, 2004, Chapters 10-11. John Perkins, *The Confessions of an Economic Hit Man*, Berrett-Koehler Publishers, San Francisco, 2004.

쿠데타와 반군은 조작이고, 군사독재는 조종이다

페론 초기에 아르헨티나는 강한 노조와 중앙정부의 경제 개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와 노조는 강한 규제 하에 활동하는 소수의 사기업과 협업했는데, 전후 평화로운 경제발전 시대에 이는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했다. 하지만 페론 시대는 1976 년 군부 쿠데타로 유혈종식된다. 이 쿠데타는 테러와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이용한 미국의 작품이었다.

훗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인민혁명군(ERP) 및 몬토네로 게릴라 위협은 사실 아르헨티나 군의 작품임이 밝혀졌다. 이들 군부 지도자들은 대부분 미 국방부 산하 남북 아메리카 육군학교에서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1976 년 3 월 권력을 잡은 호르헤 비델라는 혼자서 군사독재를 할 것이 아니었다. 10 월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은 미국에서 키신저 국무 장관과 벨슨 록펠러 부통령을 만났다. 아르헨티나측은 반대자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키신저와 록펠러는 이를 승인했다. 심지어 록펠러는 제거해야 할 인물들을 록 집어주었다.¹²⁵ “더러운 전쟁” 기간에 최소 15,000 명의 지식인, 노조 지도자, 야당 정치인 등이 사라졌다.

록펠러 가문은 아르헨티나 정권 교체와 밀접히 관련돼있었다. 쿠데타 주도인물 중 하나인 경제장관 마르티네스 데 오스는 체이스 맨해튼 은행과 깊은 관련이 있었고, 데이빗 록펠러의 친구였다. 그는 아

¹²⁵ U.S. Embassy, *Document #1976 Buenos06130*, 20 September 1976, part of declassified US State Department documents. Cynthia J. Arnson (editor), *Argentina-United States Bilateral Relations*, Woodrow Wilson Center for Scholars, Washington D.C., 2003, pp. 39-40. Kissinger's conversation with Guzzetti in Santiago was first reported by Martin Edwin Andersen, "Kissinger and the Dirty War", *The Nation*, 31 October 1987. Andersen's article was based on a memo by Assistant Secretary for Human Rights Patricia Derian, who was told the story by Hill during a visit to Argentina in March 1977. Hill demarche on human rights: Buenos Aires 3462, May 25, 1976, "Request for Instructions", State 129048,25 May 1976, "Proposed Demarche on Human Rights."

르헨티나에서 최고로 부유한 지주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과격한 경제정책을 도입했는데, 바로 이 정책을 원했기 때문에 록펠러는 쿠데타를 지원했던 것이다.

록펠러 형제는 최소한 빌슨이 1940년대 루즈벨트 하 CIAA를 맡았을 때부터 라틴아메리카를 자기들 집안의 놀이터로 생각해왔다. 록펠러들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부터 브라질 농업에 이르기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그들은 70년대 빛의 덩어리에 빠진 아르헨티나를 보고 이를 비상한 기회로 활용하기로 한다.

마르티네스 데 오스는 임금을 동결하면서, 그전까지 정부 가격통제하에 있던 생필품(식품, 석유 등)의 가격을 자율화한다. 수입관세를 대폭 낮춤으로 수입품이 시장에 넘쳐났다. 외국 투기자본도 대거 밀려들어왔다. 체이스맨해튼과 시티은행이 가장 먼저 입성했다.

노조들은 삶의 질 하락에 항의했으나 군부는 이를 가혹하게 짓밟았다. 데이빗 록펠러는 아르헨티나 신정부에 대해 만족스럽게 평했다. “비로소 아르헨티나에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정부가 들어선 것 같다.”¹²⁶

꼭두각시는 교체하고 수탈은 심화한다

군사독재에 대한 불만과 추문이 쌓여가자, 뉴욕 금융가들과 미국 권력자들은 새로운 카드를 쓰기로 한다. 메넴은 부패한 인물로 페론당 소속이었다. 1989년 미국은 그를 대통령으로 앉혔고, 그는 대처의 80년대 영국 신자유주의 혁명보다 더 급진적인 경제 충격요법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는 페론당이었기 때문에 당 내부 및 노조로부터의 저항을 줄일 수 있었다.

메넴은 미국과 절친한 인물로, 조지 H.W. 부시는 그를 백악관 손님으로 8회 초대했고, 그의 아들 빌 부시는 메넴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관저 손님으로 머물렀다.

¹²⁶ Asad Ismi, "Cry for Argentina", *Briarpatch*, September 2000.

뉴욕 금융가들에게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경제장관이였다. 도밍고 카발로가 경제장관이 되었다. 카발로는 마르티네스 데 오스의 제자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으며,¹²⁷ 뉴욕 금융가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¹²⁸

메넬의 경제정책은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데이빗 록펠러의 사람들이 써주었다. 급진적 경제자유화와 민영화가 중점이었고, 보건과 교육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수립된 규제들을 해체해나갔다. 군부독재 당시보다 수입상품에 대해 시장을 더 개방했다. 민영화는 미국과 IMF의 요구였다. 민영화는 폐소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대출의 조건이었다. 군사정부의 엉망인 경제 및 통화정책으로 인해 당시 아르헨티나는 한달에 200 프로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으며, 외국은행들에게 진 빚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군사정부 마지막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메넬은 이를 기회로 대담하고 과격한 경제정책을 취했다. 카발로는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했고, 24 억불의 긴급 자금을 받으면서 IMF의 칭송을 들었다. 민영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었다. 통신, 석유, 연금 등 모든 분야가 민영화되면서, 부패는 이루말할 수 없었고, 메넬의 친구들은 납세자들 돈으로 줄부가 되었다.

¹²⁷ David Rockefeller, "Lo que pienso de Martinez de Hoz", *Revista Gente*, 6 April 1978.

¹²⁸ Government of Argentina Ministry of Education, *La Dictadura Militar en Argentina:24 de marzo de 1976-10 de diciembre de 1983*, <http://www.me.gov.ar/efeme/24demarzo/dictadura.html>, 2001. Cavallo was indicted in 2006 by the Government of Argentina for knowingly conspiring with US banker Mulford in a 2001 debt swap that was declared "fraud" and cost Argentina tens of billions more in debt servicing to Mulford and other creditor banks. That swap led to the Argentine default later in 2001. Details in MercoPress, Former Argentine Leader Indicted for 2001 Bond Swap, <http://www.mercopress.com>. Details of the debt fraud are also well described in Jules Evans, Bankers Accused of Dirty Tricks in Argentina, <http://www.euromoney.com>. 28 January 2002.

국가독점의 공기업이 차지하던 자리에 외국인 소유 민간 거대회사가 들어왔다. 이 회사들은 대개 록펠러의 체이스맨해튼 또는 시티뱅크의 용자를 받아서 활동했다. 공기업 직원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인플레이션은 1991 년에 종식됐다. IMF 가 지배하는 일종의 중앙은행인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에 모든 정책결정권을 넘겨주면서다. 폐소는 70 년대에 심각하게 평가절하돼있었으나, 통화위원회는 미불과 일대일로 환율을 고정했다. 통화위원회 계좌의 미불이 동일하게 증대하지 않는 이상 폐소를 짝어낼 수 없게 했다. 주권국가의 통화정책은 불가능했고, 폐소 환율이 고정되자 해외투자자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투자를 했다. 이들은 90 년대 동안 민영화 흐름 속에 큰 이윤을 챙겼다.

아르헨티나 국가부채 1320 억불이 채무불이행에 빠지자, 2001 년 4 월 카발로가 처음 한 일은 외국 은행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그가 만난 은행들은 록펠러의 JP Morgan-Chase Bank, CSFB 의 David Mulford, 런던 HSBC 등이었다. 이들은 290 억불 어치의 구 아르헨티나 국채를 신 국채로 바꿨다. 이 비밀거래는 은행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줬다. 전체 채무가 커지면서 아르헨티나가 패배자가 됐다. 1 년 뒤 카발로와 7 개 외국은행들은 이 교환이 외국은행들에게 수익을 주기 위한 불법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 사법 조사를 받았다. 미국의 금융투자자들에 의하면 이 조치는 사실 국가채무 불이행을 가속화시켰다. 2003 년에 총 외채는 1980 억불로, 메넬이 1989 년 집권할 당시의 3 배에 달했다.

전국적 농업혁명, 식량에서 GM 사료로

90 년대 중반에 메넬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전통농업을 수출 지향의 단작으로 바꾸는 작업에 나섰다. 역시 뉴욕과 워싱턴의 록펠러 맨들이 구체적 방침을 지도해주었다. 메넬은 **전통적 식량생산을 수출용 GM 콩으로 바꿔야 외채를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1 년 미국에서 재배실험이 실시되기 수년 전에 이미 아르헨티나에서는 비밀리에 유전자조작 작물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메넬 정부는 “생명공학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무려 569 개가 넘는 허가를 내줬다. 유전자조작 옥수수, 해바라기, 면화, 밀, 특히 콩의 개발이 가

속화됐다.¹²⁹ 위원회는 비밀리에 회합하고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의 탈을 쓰고 외국자본에게 복무하는 기관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위원회의 위원들 자체가 몬산토, 신젠타, 다우 등 GMO 회사들 출신이었다.

1995년 몬산토는 라운드업레디(RR) 대두를 출시했다. RR 콩은 박테리아(*Agrobacterium* sp. strain CP4)의 유전자가 삽입돼있었기 때문에 비선택성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견딜 수 있었다. 라운드업은 글리포세이트를 원료로 한 몬산토의 제초제 상품이었다. 재래 콩은 글리포세이트를 맞으면 죽었다.

RR 콩밭 근처에 있는 재래 콩들은 바람에 의해 RR 콩의 꽃가루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전자 오염이 발생했다.¹³⁰ 이는 몬산토의 콩이 크게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됐다.

1996년 메넬은 몬산토에게 GM 콩을 아르헨티나 전역에 유통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준다. 종자와 제초제는 함께 판매됐다.

RR 콩이 심겨진 땅에는 거대한 기계가 도입되었다. 트랙터들은 GPS 인공위성 항법을 통해 사람없이 가동했다. RR 콩은 특수한 기계를 사용하여 “직접 뚫기”란 기법으로 심어졌다. 이 거대한 기계를 이용하면 한 사람이 수천 에이커를 심을 수 있었다. 반면 전통적 과수원은 7 에이커에 70 명이 필요했다.

철저한 파괴

곤경에 빠진 농민들에게 몬산토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GM 종자와 라운드업 제초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었다.

¹²⁹ Canadian Market Research Centre Market Support Division (TCM)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Market Brief: *The Biotechnology Market in Argentina: Government Support for Biotechnology*, May 2003, http://www.ats.agr.gc.callatin/3720_e.htm.

¹³⁰ American Chemical Society, "Growing Evidence of Widespread GMO Contamination",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Environmental News*, 1 December 1999, Vol. 33, No. 23, pp. 484 A-485 A.

한편, 망가진 경제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농지는 헐값(달러 기준)에 외국회사들에게 팔려나갔다. 카길 같은 곡물회사, 콰텀펀드 같은 국제투자펀드, 외국보험회사, 시보드 같은 외국기업 등이 땅을 사들였다. 농민들은 푼돈을 받고 땅에서 쫓겨나가거나, 판매를 거부할 경우 테러 공격(무장강도들이 가축을 뺏거나, 작물을 불태우거나, 사람을 협박하는 등)을 당하거나 자국의 경찰이 그들을 몰아냈다.

IMF 개혁 덕에 시장에는 값싼 수입식품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농민들은 파산했다. 수만 개의 농가가 땅을 포기했다.

아르헨티나의 국토는 외국기업들에게 넘어가 하나의 거대한 GM 종자 생산장이 되었으며, 국민은 유전자조작 작물과 제초제의 인체실험 대상이 되었다.

콩이 사람을 죽이다

아르헨티나 농업의 변신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70년대까지 대두 생산면적은 9,500 헥타르에 불과했다. 2004년에 이르면 GM 콩이 심겨진 면적은 1,400 만 헥타르가 넘었다. 이는 1,500 배 증가이며, 전국 농토의 48 프로에 해당했다. 원시림이 개간되고 원주민들이 쫓겨난 곳에 콩이 심어졌다. 북부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지역의 대지주들은 콩을 심기 위해 대대적으로 삼림을 벌목했다.

애그리비즈니스가 침투하기 전, 70년대 이전까지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해당했다. 1970 년대에 5 프로에 불과하던 빈곤층은 1998년에는 30 프로, 2002년에는 51 프로로 증가했다. 2003년 인구의 11-17 프로가 영양실조로 추정됐다.¹³¹

무려 20 만의 농민이 땅에서 분리되어 도시 빈민이 되었다. 범죄, 질병, 자살이 만연했다.¹³²

¹³¹ Lillian Joensen and Stella Semino, "Argentina's Torrid Love Affair with the Soybean", *Seedling*, October 2004, p. 4.

¹³² *Ibid.*, p. 3.

농민과 국가를 뛰어넘는 몬산토의 전술

아르헨티나의 법은 몬산토의 GM 콩 종자의 특허를 보호하지 않았다. 즉, 아르헨티나 농부들이 콩을 채종하여 다음 작기에 심는 것은 합법이었고, 몬산토는 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었다. 미국 농민들은 대조적으로 “자가채종 씨앗을 쓰지 않고 매년 로열티를 내겠다”고 몬산토와 계약했었다.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몬산토의 로열티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가 실패하자, 몬산토는 훨씬 교활한 방법을 선택한다. 처음에 몬산토는 농민들에게 종자를 팔면서 로열티를 의도적으로 면제해주었다. 콩을 산 농민은 제조제를 사게 돼있었다. 몬산토의 우선적 목표는 일단 유전자조작 콩 종자와 라운드업 제조제를 최대한 널리 보급하는 것이었다.

GM 콩 재배면적은 급속히 늘어났고, 콩 종자는 브라질,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로 밀수됐다. 이러한 “불법적인 종자 확산”에 대해 몬산토는 일부러 손을 놓고 있었다.¹³³

3 년이 지난 뒤 1999 년 드디어 몬산토가 행동에 나섰다. 몬산토는 농민들에게 “밀린 로열티”를 내라고 요구했다. 물론 몬산토의 요구는 아르헨티나 법에서는 불법이었지만 메넴 정부는 방관했다. 농민들은 당연히 이 요구를 무시했다. 하지만 몬산토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2004 년 몬산토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몬산토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로열티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르헨티나 콩이 수출되는 항구, 곧 미국이나 EU 등의 수입지점에서 로열티를 건겠다고 선언했다. 몬산토는 “로열티를 받아야만 GM 종자 연구개발에 들어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85 프로 이상의 콩이 “암시장” 종자로 심어진 것이며, 자신을 농민들의 도둑질로 인한 피해자로 묘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¹³³ *Ibid.*, p. 3.

이때 캄포스 농업장관이 나서서 정부와 몬산토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즉, 농업부가 기술보상펀드(Technology Compensation Fund)를 설립하며, 농민들은 여기에 콩 매출의 거의 1 프로를 로열티로 내야했다. 이 세금은 콩 가공지점에서 걷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수확물을 가공할 수 없게 됐다.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2004 년 펀드가 가동됐고, 정부는 이렇게 걷은 돈을 몬산토에게 줬다.¹³⁴

2005 년 초 브라질의 룰라도 항복하고, 브라질에 GM 종자를 심는 것을 합법화했다. 이미 퍼질대로 퍼진 GM 콩의 확산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2006 년 통계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세계 대두 생산의 81 프로를 차지했다. 전세계 모든 가축에게 이 콩을 먹이겠다는 애그리비즈니스의 목표는 어렵지 않게 달성됐다.

GM 콩을 사람에게 먹이자

2002 년 아르헨티나에 불황이 닥쳤다. 과거에는 경제난이 심각하면 아르헨티나 인들은 농부뿐 아니라 도시인들도 텃밭을 가꿀 수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대두 단작이 전국토를 차지하면서 이것은 불가능해졌다. 다양한 품종의, 자연스럽게 영양가 높은 식품들이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영양상태도 열악해졌다.

경제난과 더불어 기아가 퍼져나갔고, 시위를 두려워한 정부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료 식량을 나눠줬지만 그 식량이 문제였다. 몬산토, 카길, 네슬레, 크라프트 등이 합작한 이 사업은 유전자조작 콩으로 만든 식품을 배급했으며, 사람에 의한 GM 콩 직접 소비를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채소, 곡물, 고기, 우유, 달걀 등을 먹지 말고 콩을 먹으라는 전국적 캠페인이 전개됐다. 콩 취식의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숨겨졌다. 듀폰은 “생명을 위한 단백질(Protein for Life)”이라는 근사한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사람의 콩 섭취를 장려했다. 듀폰은 부에노스아

¹³⁴ *Ibid.*, p. 3.

이레스의 빈민들에게 콩을 섞은 음식들을 나눠줬다. 이렇게 대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수 인구에게 다량의 유전자조작 콩을 먹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아르헨티나 인들은 진정한 의미의 기니픽이 됐다.¹³⁵

유전자 오염과 생태계 오염

농촌에서 콩 단작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대면적의 콩 플랜테이션에는 제초제 항공살포가 이뤄졌기 때문에, 제초제가 퍼져나가 인근의 다른 작물이 초토화됐다. 라운드업 제초제는 비선택성으로 제초제 내성 유전자조작 작물만 빼놓고 모든 식물을 죽였다.

2003 년 조사에 의하면 인근 농부의 작물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었다. 닭이 죽어나갔고 다른 동물들, 특히 말이 심한 영향을 받았다. 사람들은 현기증, 설사, 구토, 피부병을 겪었다. 기형 동물들이 태어났고, 고구마나 바나나도 기형이 생겼다. 호수에 물고기들이 갑자기 죽어 떠오르기도 했다. 농촌 아이들은 온몸에 끔찍한 반점이 퍼졌다.

파라과이 근처 차코 지역의 소중한 삼림이 개간됐다. 엔트레 리오스에서는 2003 년까지 120 만 에이커 이상의 숲이 베어졌다. 숲을 터전으로 살던 원주민들은 심각한 질병에 시달렸다. 모래파리가 옮기는 기생충(leishmaniasis)이 확산됐다. 이 병은 치료가 비쌌고 몸에 끔찍한 흉터를 남겼다.

1996 년 몬산토는 유전자조작 콩 종자를 판매할 때 이렇게 주장했다. “라운드업 제초제는 콩을 제외한 모든 식물을 죽이므로, 이 제초제 하나만 쓰면 되므로 다른 케미컬이 필요 없어서 비용을 줄인다. 비료도 적게 필요하며 수확이 늘어난다.”

평균적으로 유전자조작 콩은 재래 콩에 비해 5-15 프로 수확이 적었다. 제초제 사용이 줄어들기는커녕 시간이 지나 풀들이 내성이 생김에 따라 용량의 3 배 이상을 뿌려야 했다. 실제로 농약행동네트워크 과학자들은 제초제 내성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해서는 일반 작물에 비해 3 배의 제초제를 뿌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농민들은 자기 작물

¹³⁵ Lillian Joensen, *op. cit.*, p. 5.

이 제초제에 내성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제초제를 맘껏 뿌렸다. 결국 케미컬 사용량이 늘어나서 재래종 작물에 비해 자재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¹³⁶

¹³⁶ Genetic Concern, *New Study Links Monsanto's Roundup to Cancer*, June 1999, in http://www.biotech-info.net/glyphosate_cancer.html.

미국이 이라크에 심은 민주주의의 씨앗

미국, 이라크를 “재건”하다

조지 W. 부시가 이라크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겠다고 했을 때, 그 씨앗이 몬산토 종자라는 것을 상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2003 년 3 월 이라크를 점령한 뒤 미 국방부가 이라크 경제를 지배했다. 5 월에 폴 브레머 3 세가 CPA(연합군 임시행정당국) 수장으로 임명됐다. CPA 는 위장된 군정이었다. 브레머는 과거 국무부에서 테러를 담당하다가 키신저가 세운 컨설팅사의 전무이사를 하던 인물이다. 그는 통상 국가재건을 담당하는 국무부를 배제하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직보했다.

브레머는 이라크 인민에 대해 명실상부한 생사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CPA 수장으로서는 당시 헌법도 정부도 없는 이라크 땅에 100 개의 법(이들은 “명령”으로 불렸다)을 신속히 만들어 선포했고 이들은 2004 년 4 월 발효됐다.¹³⁷

이 명령들은 이라크인들에게 “따르든지 죽든지”였다. 기존 이라크 법이 100 개 신법과 충돌할 시 이라크 법은 무효가 됐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구축하여... 다국적 기업의 배를 불리라

럼스펠드의 국방부 지도부는 브레머에게 분명한 지시를 줬다. 국영 기업 중심의 이라크 경제에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민간기업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¹³⁷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CPA Official Documents, Orders*, <http://www.cpa-iraq.org/regulations/#Orders>.

사실 미군이 점령한 이라크가 제시하는 기회는 아르헨티나에 비해 훨씬 매력적이었다. 30년 동안 미국이 채무를 이용해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취한 조치들에 비해, 한달만에 브레머가 이라크에 취한 조치들이 더 대폭적이고 급진적이었다.

이라크 침공 전 이라크 非석유부문은 약 200개의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있었다. 2003년 6월 브레머는 이 기업들이 모두 즉시 민영화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라크 민영화는 소련 붕괴 후 가장 큰 규모의 국유자산 매각이었다. 브레머는 50만명의 군인,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등을 해고했다.

CPA 명령 37호는 법인세를 40에서 15프로로 낮췄다. 명령 39호는 외국기업들이 자연자원 부문 외에서 이라크 자산의 100프로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외국 기업인들은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 투자자들은 이라크에서 얻은 수익의 100프로를 나라밖으로 빼갈 수 있었고 재투자 또는 과세 의무가 없었다. 39호는 외국기업들이 40년 기간의 임대나 계약에 서명할 수 있게 했다. 40호는 동일한 우호적 조건 아래 외국은행들이 이라크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 그는 일찍이 국경에서의 관세와 검사와 세금을 모두 철폐하여 무제한적 수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라크는 하루밤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 가장 열린 국가가 됐다. 하지만 민영화 열풍 속에서 자국의 기업을 사들일 자산을 가진 자국인 자본가는 많지 않았다. 결국 전리품으로서 이라크 경제를 뜯어먹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들의 잔치가 됐다.

특허가 붙은 종자로 농민들을 예속시킨다

브레머 명령 81호는 “특허를 가진 자는 이라크 농업에서 그 종자에 대해 20년간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줬다. 종자에 대한 특허를 가진 자는 몬산토나 듀폰 등 다국적기업이었고, 특허를 내준 자는 미정부 또는 기타 외국 특허당국이었다. 원래 이라크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체에 대한 상업적 특허를 인정하지 않던 국가였다.

특허로 보호받는 작물은 유전자조작 식물들이었고, 이 종자를 심으려는 이라크 농부는 특허권을 가진 종자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했다. 농부는 이 계약에 따라 회사에 “기술료” 및 연간 면허료를 내야 했다. 81 호의 핵심은 식물품종보호(PVP) 조항이었다. PVP 하에서 종자의 채집과 사용은 불법이었다. 특허 종자, 심지어 그와 “유사한” 종자를 사용하는 농민은 무거운 벌금을 내거나 투옥되었다.

이라크는 문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했다. 이라크 농부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의 비옥한 계곡에서 만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양한 밀 품종들을 개발해냈다.

이라크 정부는 이 소중한 종자 자원을 아부그라입(미군 고문으로 유명한 곳) 소재 국립종자은행에 보관해왔지만 미국의 폭격과 점령 이후 이 종자은행은 파괴됐다.

하지만 이라크 농업부는 이 종자은행을 백업하는 종자은행을 시리아 알레포에 하나 더 두고 있었다. 여기는 소중한 밀 종자들이 보관돼 있었으므로 CPA 가 요청만 했다면 이라크인들에게 종자를 제공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CPA 는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라크 식량의 미래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라크 농업은 “근대화”될 것이었다. 전통적 가족농 혼작 경축복합을 탈피하여 미국식 애그리비즈니스가 도입되어 “세계 시장”을 위해 생산하게 될 것이었다.

81 호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특정한 이라크 해충에 대해 저항성이 있는 종자를 개발할 경우, 이라크 농민이 그와 동일한 저항을 가진 (특허 종자와 관계없는) 다른 품종을 기른다 해도, 그 작물의 씨를 받는 것이 불법이었다.

90 년대말 미국 생명공학회사 썬진은 올레산 함유량이 몹시 높은 해바라기를 개발했다. 썬진은 유전자 구조만 특허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올레산 다량 함유”라는 특징 자체에 특허를 받았다. 썬진은 따라서

해바라기 육종업자들에게 “올레산이 높은 품종”을 개발하면 특허 침해라고 경고했다.

81 호는 식물에 대한 특허법을 규정했는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른 국내법과 달리 이 법은 정부 간에 또는 WTO 와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는 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라크와 협의 없이 부과한 것이었다. 81 호의 구체적 내용들은 몬산토가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씨앗” 밖에 심을 수 없다

서류상으로 볼 때 이라크 농부가 다국적 회사로부터 구입한 종자에 한해서 특허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순진하지 않았다.

이라크는 10 년 넘게 미영 주도의 제재를 받아서 농기구를 들여올 수 없었다. 또한 전쟁 발발 3 년 전부터 심한 가뭄이 들어 밀 생산이 급감했다. 제재, 전쟁, 흉년이 겹치면서 2003 년 곡물 생산량은 1990 년 1 차 걸프전 발발 전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2003 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이라크인들은 유엔의 석유-식량 교환 배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라크 식량생산을 “근대화”한단 명목으로 USAID 와 ARDI(미국의 이라크 농업재건개발프로그램)는 이라크 전통농업에 일대 수술을 가한다. 미국이 임명한 선봉장은 다니엘 암스투츠였다. 그는 前 미 농업부 관리이자 **카길** 부회장이었다. 그는 GATT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의 농업부문 요구사항들을 설계한 인물이었고, 그 방향은 1995 년 WTO 를 창설로 이어졌다.

81 호의 대외적 목적은 “이라크를 위해 우량한 종자를 확보하고, 이라크의 WTO 가입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우량 종자가 무엇인지는 점령군이 결정할 터였고, WTO 가입은 이라크 시장이 강력한 국제 애그리비즈니스 재벌들의 영향 아래 들어감을 뜻했다.

81 호가 반포되자마자 USAID 는 농업부를 통해 수천톤의 “우량의 인증된 미국산 밀 종자”를 이라크의 절박한 농민들에게 거의 무료로

보급했다. GRAIN(GMO 에 비판적인 NGO)에 의하면 USAID 는 독립적 과학자들이 이 종자들이 GMO 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씨앗들이 GMO 라면 자연스럽게 이라크 농민들은 한두 작기가 지난 후에 외국종자회사에게 로열티를 내야 하는 처지에 빠질 터였다.

GRAIN 은 81 호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CPA 는 이라크 농민들이 신종작물을 자가재종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이 법의 목적은 이라크에 새로운 종자에 대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국적 회사들은 유전자조작 종자를 포함한 종자를 판매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농민이 모든 작기마다 새로 종자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¹³⁸

식물품종 보호(PVP) 조항은 결국 재래 식물품종 멸절 조항이었다.

밀을 키워 수출하자... 인민은 굶어도

미 국무부는 농업부와 합작하여 북부 이라크에 56 개 밀 시범농장을 건립했다. 개량 밀 종자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텍사스 A&M 대학의 국제농업사무소가 미 정부를 대신해서 밀 농장을 운영했다. 이 대학은 800 에이커에 걸쳐 밀을 비롯한 보리, 이집트콩, 렌틸 등의 “고수출 종자 품종” 재배법을 가르쳤다.¹³⁹

1.07 억불 짜리 USAID 농업재건 프로젝트의 목적은 첫해에 3 만 이라크 농장의 생산량을 2 배로 늘리는 것이었다. 10 년전 미국 농민들이 속아 넘어갔듯이, 절박한 처지에 놓인 농민들은 고수확의 약속에 넘어가 밭에 걸려들었다. 이들은 외국 다국적 종자회사에 의존하게 될 것이었다.

물론 종자 뒤에는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의 제품이 따라들어왔다.

¹³⁸ GRAIN Press Release, *Iraq's New Patent Law: A Declaration of War Against Farmers*, Focus on the Global South and GRAIN, October 2004, <http://www.grain.org/articles/?id=6>.

¹³⁹ *Ibid.*

아리조나 피닉스의 비즈니스저널은 이렇게 보도했다. “아리조나의 농업연구회사가 이라크 식량 증산을 위해 이라크 농민들에게 밀 종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이름은 WWWC(World Wide Wheat Company)였다. 이 회사는 텍사스 A&M 을 비롯한 3 개 대학과 제휴하여 “바그다드 북부 이라크 농민들에게 천 파운드의 밀 종자를 공급”할 것이었다.¹⁴⁰ 시드퀘스트에 따르면 WWWC 는 특허가 있는 민간회사 소유의 곡물 종자 개발이 전문이었다.¹⁴¹ 이는 명령 81 호의 보호를 받는 GMO 작물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피닉스 비즈니스저널에 의하면 “이라크 프로젝트에서 6 종류의 밀 종자가 개발됐다. 3 가지 밀은 파스타용으로, 3 가지는 빵 만드는 데 쓰일 것이다.”¹⁴² 이라크인들은 파스타를 먹지 않는다. 결국 2004 년 이후 이라크에서 개발된 곡물의 절반이 수출용이었음을 뜻한다. 명령 81 호는 전쟁으로 찢긴 2,500 만 이라크 민중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GM 종자로 식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애그리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었다.

한 나라의 농업을 완전히 삼키다

USAID 의 1.07 억불 농업재건 사업은 이라크 정부를 식량생산에서 손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더그 폴(USAID 이라크 재건사무소 농업전문가)은 “완전하게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¹⁴³ 정부 보조금이 폐지됐고, 국영 종자회사 등은 민영화될 것이었다.¹⁴⁴ 몬산토 같은 외국자본이 아니면 피폐한 이라크 국내인 가운데 누가 그 회사들을 사겠는가?

¹⁴⁰ Jeremy Smith, "Iraq: Order 81", *The Ecologist*, February 2005.

¹⁴¹ Portal Iraq, *Seeds for the Future of Iraqi Agriculture*, 27 September 2004, http://www.portaliraq.com/news/Seeds+for+the+future+of+Iraqi+agriculture_529.html.

¹⁴² Daniel Stolte, "In the Trenches", *The Business Journal of Phoenix*, 10 June 2005.

¹⁴³ Christopher D. Cook, "Agribusiness Eyes Iraq's Fledgling Markets", *In These Times*, <http://www.mindfully.org/GE/2005/Iraq-US-Agribusiness-Profit15mar05.htm>, 15 March 2005.

¹⁴⁴ *Ibid.*

사우산 알리 마기드 알샤리피 이라크 농업장관은 이라크 농민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른 보조금은 깎더라도 **개량종자, 농약, 비료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¹⁴⁵ 보조금은 개량 GMO 종자를 구입함으로써 결국 외국 대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라크 시장에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들도 탐욕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前 농업장관 앤 베너맨(정부 들어오기 전에 몬산토와 관련)은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는 미 농산품의 큰 시장이었다. 1980년대에는 10 억불에 달했다… 다시 그런 중요한 시장이 될 잠재력이 있다.”¹⁴⁶

베너맨은 이 말을 할 때 미국의 대이라크 농산품 수출 금액이 컸던 이유와 비리를 숨겼다. 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는 후세인의 이라크에 무기(화학무기 포함)를 팔았는데, 이 거래는 미 농업부 수출 프로그램(Commodity Credit Corporation export program)으로 위장돼있었다. 이 스캔들은 수십억불의 세금이 관련됐고, 특히 前 국무장관 키신저와 국가안보보좌관 브렌트 스퀴크로프트, 이태리 BNL 은행 아틀란타 지부 등이 연루됐다.

미국 쌀위원회 부의장인 존 킹은 80년대말(91년 걸프전 전)까지 이라크가 미국 쌀의 최고 수출시장이었음을 상기하며, 이라크 시장이 열리면 미국 쌀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그는 2003년 미국산 쌀 대부분 유전자조작이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점령군의 횡포에 대하여 알하우자(al Hawza) 신문은 브레머가 이라크 국민들을 일부러 굶기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들이 일용할 양식에 매달려야만 정치적·개인적 자유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썼다. 2004년 봄, 미 헌병은 알하우자 신문을 폐간했다.

¹⁴⁵ IRIN News, *IRAQ: Interview with Minister of Agriculture*, <http://www.irin-news.org>, Baghdad, 16 December 2004.

¹⁴⁶ Ann M. Veneman, *Remarks by Agriculture Secretary Ann M. Veneman to the National Association of Farm Broadcasters Annual Convention*, 14 November 2003,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hington D.C., Release No. 0384.03.

IMF, 이라크 경제를 다국적 기업의 먹이로 내놓다

2004년 11월 21일 채권국 정부들이 모인 파리클럽은 이라크 정부의 390억불 채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후세인 시절의 1200억불 외채의 일부였다. 선진국들은 후세인을 전복시켰지만 빚을 탕감해줄 생각은 없었다. 빚만큼 한 국가를 움아매고, 원하는 조치를 강요하기 좋은 수단은 많지 않았다.

390불 가운데 미국 몫은 22억불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주요 채권국은 러시아,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미국은 이라크 채무를 줄여주는 데 적극적이었다. 물론 조건이 붙었다. 이라크가 IMF의 “표준 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것이었다. 표준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에 적용된 것과 동일했다.

이라크는 경제주권을 IMF에게 넘겨야 했다. 그런데 IMF는 미 재무부와 행정부의 지시를 받는 곳이었다.

IMF는 “세계화의 경찰”이라 부를 수 있다. 1980년대 채무위기부터 IMF는 개도국에 대해 가혹한 긴축정책과 채무상환을 강요했다. 채무국은 불어나는 빚을 갚기 위해 자국의 가장 소중한 경제자산들을 매각해야 했다. IMF 조치들 뒤에는 사실 거대 은행 또는 기업의 이권 추구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IMF와 브레머는 전후 이라크를 “재건”해나갔고, 그 핵심 정책들은 국가 역할 축소, 노동 유연성, 국경 개방, 세금 최소화, 이라크로부터 자본 유출에 대한 규제 철폐, 관세 철폐, 소유 제한 철폐 등이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다국적 기업의 이권에 복무했다.

IMF의 먹이가 된 국가는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달러를 벌 수 있는 수출로 돌아선다. IMF의 당근은 구제금융이고, 채찍은 (IMF 조건을 이행 안하면) 외국으로부터의 모든 대출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이라크 인민 수십만명이 직장을 잃었고, 외국제품들은 이라크산 상품을 시장에서 밀어냈으며, 수입식품이 밀려들면서 국산 식료품도

사라져갔다. “경쟁력”이 부족한 로컬 토종 기업들과 중소기업과 가족 농들이 퇴출되는 것은 당연했다.

미국의 “개혁”을 이어가는 이라크 임시정부

민영화에 대한 저항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는 와중에 미국은 이라크 임시정부를 구성, 2004 년 6 월 CPA 는 임시정부에게 주권을 양도한다. 임시정부 지도자는 이야드 알라위였는데, 그는 CIA 를 위해 수년간 일한 인물로 미 정부가 직접 뽑았다. 이제 그가 브레머 백법(百法)을 이행할 책임을 갖게 됐다.

브레머는 이라크 임시정부 헌법 26 조를 통해 주권 양도 후에도 브레머 백법을 바꿀 수 없게 했다. 브레머는 미국이 직접 뽑은 친미 인사를 모든 정부부처에 심었다.

이라크 전역에는 2003 년 후 14 개의 미군기지가 신설됐고, 132,000 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브레머 백법의 차질없는 이행을 보장해주었다.

이것이 미국이 심은 민주주의의 씨앗이었다.

GMO 종자의 세계화

WTO 로 세계를 공략하다

GMO 작물이 인류 식량의 근간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개별국가보다 상위의 국제기구가 필요했다. 1995년 설립된 WTO가 그 일을 맡을 것이었다.

1986년 9월 록펠러 재단이 쌀 유전자조작에 뛰어들기 2년 뒤, 미국 애그리비즈니스는 GATT 우루과이 라운드에 총력을 기울였다. GATT UR은 50년대 시작된 록펠러 재단-하버드대학의 수직통합 프로젝트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애그리비즈니스 집단이 미국 농업부문에서 독점 금지, 수직통합 금지, 보건, 안전 등과 관련된 규제를 30년에 걸쳐 해체했기 때문이다.

GATT 우루과이는 애그리비즈니스가 30년간 축적한 자신감과 야심의 표현으로, 이제 일국을 넘어 세계적 지배를 기획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GATT에는 무역 규칙을 위반 시 제재나 벌칙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신설된 WTO는 달랐다. WTO는 무거운 벌금이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었다. WTO는 개별국가들의 국경을 열고 GMO 작물을 퍼뜨릴 수 있는 신무기였다. WTO는 1986년 시작되어 1994년 4월까지 진행된 GATT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물이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업 무역을 핵심 의제로 삼은 점에서 기존 GATT 무역회담들과 달랐다. 1948년 GATT가 처음 결성됐을 때부터 미 정부는 농업을 국제무역의 의제로 삼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미국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 자국 농업 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와서 입장이 변한 이유는 간단했다. 이제 미국 애그리비즈니스는 세계를 상대로 불어볼만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카길이 미국 무역정책을 기안하다 - 암스투츠 계획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업분야 미국의 입장은 카길에서 써졌다. 다니엘 암스투츠(前 카길 전무로 GATT 특별대사)가 4 개항의 암스투츠 계획을 작성했다.¹⁴⁷

이건 고스란히 카길의 계획이었다. 카길은 세계 매출이 560 억불이 넘었고, 66 개국에 플랜트를 두었다. 카길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록펠러와 협조하면서, 그리고 70 년대 키신저의 미국 밀의 對소련 판매에 관여하면서 급성장했다. 미 정부, 특히 농업부에 대한 입김이 대단했다.¹⁴⁸

암스투츠의 4 개 요구는 (1) 정부의 농업 보조금 철폐 (2) 정부의 농산물 수입금지 철폐 (3) 정부의 농산물 수출규제(기아 시에도) 철폐였다. (4)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법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특히 마지막 네번째는 안전이나 건강을 위한 규제를 제거해서 유전자조작 농산물 판매가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암스투츠는 훗날 2003 년 부시행정부 농업부의 이라크 특별연락관으로 임명되어, 이라크 농업을 탈바꿈시키는 역을 맡는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은 “농업무역자유화” 명분 하에 각국의 수출보조금 철폐를 요구했다. 이는 유럽연합의 공동농업프로그램(CAP)을 겨냥한 것이었다. 물론 그 수혜자는 미국 애그리비즈니스였다.

¹⁴⁷ Letter from Daniel G. Amstutz, Undersecretary for International Affairs and Commodity Program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published in *Choices*, Fourth Quarter, 1986, p. 38.

¹⁴⁸ *Who's Who in Corporate Agribusiness*, <http://www.electrarrow.com/CARP/tiller/archives/backlog.htm>, 3 April 1997.

거대 다국적기업이 국제무역 질서를 만든다 – 강력한 로비력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의 입장은 거의 카길의 작성한 것이었다. 카길 일당은 미 의회 주요멤버들에게 수백만불의 정치후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의회는 쉽사리 GATT와 WTO를 지지했다.¹⁴⁹

카길은 “세계무역을 위한 소비자 연맹(CWT)”이란 단체를 만들어 GATT를 지지하는 로비를 했는데, 이름과 달리 이 단체에 소비자는 없었고 애그리비즈니스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있었다. 입회비만 65,000불이었다. 카길은 “미국무역을 위한 긴급위원회”라는 단체도 만들어서 의회가 WTO 농업 정책을 받아들일도록 로비했다.¹⁵⁰

IPC(국제식품농업무역정책위원회)라는 국제 로비단체도 있었다. 이 단체는 카길 및 애그리비즈니스와 손잡고 GATT 농업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IPC에는 카길, 신젠타(당시 노바티스), 네슬레, 크라프트, 몬산토, ADM, 병지, 윈드롭국제재단, 미 농업부, 미츠이(일본 최고 상사) 등의 고위 인사들이 들어있었다. 이 정도 강력한 단체의 입김은 아무도 무시하지 못했다.

WTO 체제에서는 4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EU)이 주도권을 가졌다. 이 넷은 비공개 회담을 통해 134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었다. 넷 속에서는 미국의 애그리비즈니스 재벌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가졌다. 결국 WTO는 사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었다.

WTO 농업협정 경우, 애그리비즈니스 기업들의 이익에 따라 국가별 법이나 셰이프가드 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협정을 작성한 것이 카길, ADM, 듀폰, 네슬레, 유니레버, 몬산토 등이었다.

¹⁴⁹ Eugene W. Plawiuk, "Background on Cargill Inc., the Transnational Agribusiness Giant", *Corporate Watch: GE Briefings*, <http://www.archive.corporatewatch.org>, November 1998.

¹⁵⁰ *Ibid.*

유전자조작 종자를 세계적으로 펼칠 준비를 마치다 - TRIPS 와 SPS
WTO 가 만들어지던 1994 년 당시 미 정부는 “유전자조작 식물”을 전략 분야로 지정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인터넷과 더불어 생명공학을 미 정부의 우선 지원분야로 정했다.

클린턴 행정부의 무역대표였고 훗날 상업장관이 된 미키 캔터는 “WTO 는 GATT 의 전원합의 원칙과 사실상 같다”고 거짓말함으로써 WTO 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게 만들었다. 캔터가 2001 년 정부를 떠나자 몬산토는 그를 이사회에 영입했다. 회전문은 잘만 돌아간다.

몬산토, 듀폰, 다우케미컬 등은 유전자조작 종자를 완성했고, 이 종자들이 세계 주식의 씨앗이 되게 할 야심이였다. 그들은 준비가 돼 있었다. WTO AoA(농업협정) 및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가 그 수단이 될 것이었다.

원래 식품은 로컬로 생산, 판매,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였다. WTO 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식품 “국제시장”을 만들어낼 것이였다. 식품에 국제가격이 붙고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은 애그리비즈니스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백년전 스탠더드오일 그룹이 독점을 통해 석유를 세계화한 것과 비슷했다.

암스투츠 계획은 거의 그대로 WTO AoA 의 근간이 됐다. 그 핵심은 자유롭고 통합된 농산물 국제시장을 만드는 것이였다. 식량안보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달성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이들은 거대 곡물재벌을 대변했다.

1992 년 부시행정부는 국민적 토론 없이 유전자조작 식품이나 작물은 일반 식품이나 작물과 “충분히 동일하다(substantially equivalent)”고 선언했었다. 따라서 GMO 에 대해 일반작물에 부과하지 않는 별도의 정부 규제는 필요 없다는 논리였다. 이 원칙은 WTO 에 그대로 들어온다.

즉,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하에서 각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우려하여 GMO 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무역관

행”이 되었다.¹⁵¹ WTO 의 다른 규정에 의하면 GMO 에 대한 라벨을 요구하는 법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이 되었다.¹⁵²

생물학적 다양성과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논의하던 175 개국은 1992 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서명했다. CBD 는 GMO 의 안전한 이동과 사용을 규정했다.

많은 국가(특히 개도국)들은 이 협약의 연장으로 GMO 의 잠재적 위험을 다루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미국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6 년부터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초안 작업이 시작됐고, 장장 7 년의 작업 끝에 138 개 유엔 회원국은 컬럼비아 카르타헤나에서 만나 이 프로토콜에 서명하고자 했다.

이들은 너무 낙관적이었다. 이들은 마이애미 그룹(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우루과이, 칠레)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GMO 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뒤집어서 “GMO 에 대한 바이오안전성 우려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무역장벽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¹⁵³ 회담은 결렬됐고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사장됐다.

라벨은 안되지만 특허는 된다 – 생명에 대한 특허의 개시

미국이 GMO 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내세운 것이 GMO 와 재래식물은 “충분히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충분히 변형된 (substantially transformed)” 식물에 대해서만 라벨을 붙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¹⁵¹ Edward A. Evans, "Understanding the W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EDIS document FE492*, Department of Food and Resource Economics, Florida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UF/IFAS,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FL., August 2004, <http://edis.ifas.ufl.edu>.

¹⁵² World Development Movement, *GMOs and the WTO: Overruling the Right to Say No*, <http://www.wdm.org.uk>, London, November 1999. See also, Edward A. Evans, *op. cit.*

¹⁵³ World Development Movement, *op. cit.*

그런데 특허 자체가 외부 유전자를 삽입하여 제조해낸 식물이 기존 식물에 비해 새로운 발명이 될만큼 달라야만, 곧 “충분히 변형돼야만” 부여되는 것이다. 적나라한 논리적 모순에도 이들은 아랑곳 없었다.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가 식물에 대한 특허를 다뤘다. TRIPS 하에 모든 회원국들은 식물에 대한 특허(지적재산권)를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했다. 다국적 종자회사는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었고, 심지어 어느 국가에 대한 특허 종자 수출을 거부할 수 있었다. 특허권은 식물의 경우 20 년이 보장됐다. 어느 비판적 과학자 말대로 “지식은 재산이 됐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것이지 농민 것이 아니었다.”¹⁵⁴

텍사스 소재 생명공학회사 라이스텍은 바스마티 쌀에 특허를 내고자 했다. 바스마티는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수천년 동안 주식이었다. 1998 년 라이스텍은 유전자조작된 바스마티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라벨을 금지한 미국법 덕에 유전자조작 사실을 숨기고 일반 바스마티 쌀로 판매했다.

원래 필리핀 소재 IRRI 는 바스마티 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IRRI 는 소중한 볍씨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어서 콜로라도 포트콜린스의 종자은행에도 보관했었다. IRRI 는 콜로라도 종자은행에서 볍씨를 라이스텍 과학자들에게 줬고, 이들은 여기 특허를 받은 것이다.¹⁵⁵ 물론 불법이다. 라이스텍은 IRRI 와 결탁하여 종자를 훔쳐서 특허를 받은 것이다. “지역농민을 위해 볍씨를 보호하겠다”면서 농민들의 씨앗을 받아간 IRRI(록펠러 재단이 설립)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2001 년 12 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J.E.M. Ag Supply vs. Pioneer Hi-Bred 사건에서 식물 및 기타 생물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는 역사

¹⁵⁴ Anup Shah, *Food Patents-Stealing Indigenous Knowledge?*, <http://www.globalissues.org>, 26 September 2002.

¹⁵⁵ IRRI 가 교묘하게 만들어놓은 규정에 의해, 종자은행에서 나온 씨앗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었지만, 과학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육종 작업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적 판결을 내렸다. GMO 식물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다수 법학자들에게 놀라움을 줬다.¹⁵⁶

미국 대법원 판결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애그리비즈니스는 약소국들에 대해 미국 GMO 종자에 대한 특허를 존중하라고 더 세계를 압박할 수 있었다.

4 대 GMO 및 화학 회사

2004 년이 되면 4 개 기업이 GMO 종자 및 농화학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1) 1 위는 몬산토였다. 글리포세이트 제조제로 대박을 친 이 회사는 90 년대부터 무려 80 억불을 들여 종자회사들을 합병해왔다. 이 회사의 비전은 “농업, 식품, 건강이라는 세계 3 대 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몬산토는 1901 년 설립 이래 화학제품들을 생산해왔다. 뇌손상, 기형, 암을 유발하는 극독 PCB 도 대부분 몬산토가 생산했다. 2007 년초 몬산토가 67 종의 화학물질(고엽제 부산물, 다이옥신, PCB 포함) 수천톤을 영국 매립지에 불법 폐기하여 지하수를 오염시켰음이 드러났다.¹⁵⁷

(2) 1999 년 10 월 듀폰은 77 억불을 들여 파이어니어하이브레드를 매입, 종자-화학 복합산업을 창설했다. 파이어니어하이브레드는 1930 년대에 헨리 윌러스가 설립, 80 년대부터 식물 유전학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었다.

(3) 다우 애그로사이언스는 66 개국에서 활동하는 34 억불 짜리 종자 및 농화학제품 재벌이다. 다우는 미시건 주의 공장에서 미드랜드 지역 전체를 다이옥신으로 오염시켰다. 여기는 티타바와시 강의 범람

¹⁵⁶ United States Supreme Court, *J.E.M. Ag Supply V. Pioneer Hi-Bred*, 122 S.Ct. 593,2001. Also for background, "CAFC Decision in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vs. J.E.M. Ag Supply, Inc. et al.", *Biotechnology Law Report*, April 2000, pp.281-289.

¹⁵⁷ John Vidal, "Monsanto Dumped Toxic Waste in UK", *The Guardian*, 12 February 2007.

지역도 포함됐다. 미시건 주 환경품질 부서 조사에 의하면 34 개 토양 샘플 가운데 29 개가 규정치보다 다이옥신이 높았고, 일부 샘플은 규정치의 100 배가 검출됐다. 다우는 또한 네이팜탄을 개발했다. 네이팜탄은 베트남전에서 별거벗은 어린이가 열기로부터 도망가는 사진으로 전세계에 알려졌다.

(4) 스위스의 신젠타는 2002 년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농업 부문이 합쳐지면서 68 억불 짜리 농화학 기업으로 탄생했다. 2005 년에는 세계 최대 농화학 회사이자 세번째 종자회사였다. 본부는 스위스에 있으나 신젠타는 여러 면에서 영국 회사였다. 의장이나 이사들 상당수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측에서 왔다. 독일 농부 고트프리트 클뢰크너는 신젠타의 GMO 옥수수 Bt-176 을 심어서 1997 년부터 5 년간 소에게 먹이면서 세밀한 기록을 남겼다. 3 년간 성공적인 재배 결과에 고무되어 소에게 먹이는 Bt 옥수수의 양을 늘리자, 소들은 점성의 하얀 똥을 싸거나 심한 설사를 했다. 우유에 피가 들어있었고, 어떤 소는 갑자기 우유 생산이 멈췄다. 70 마리의 소 대부분이 죽었다. 클뢰크너는 독립 연구소에 의뢰하여 Bt-176 옥수수의 독소가 소에게 전달되어 소가 죽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사료에는 Bt 독소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신젠타 주장 역시 거짓이었다.

고엽제, 계속되는 기형아

GMO 의 4 대 거인 가운데 셋이 미국에 본부를 뒀을뿐만 아니라 수십년 동안 미 국방부에 전쟁용 화학물질을 공급해왔다. 베트남전에 사용한 네이팜과 고엽제는 특히 악명높다.

2001 년초, 뉴질랜드의 인베스티게이트 지는 다우케미컬이 고엽제를 뉴질랜드 뉴플라이마우스에 덤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주민들은 빈 드림통을 와이레카 천 근처에서 발견했다. 다우는 이 사실을 20 년간 비밀로 했다.¹⁵⁸

고엽제는 지독한 물질이다.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 노출로 질병을 얻은 병사들의 미 정부 상대 소송은 종전 후 30 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었다.

¹⁵⁸ *Investigate*, New Zealand, January/February 2001.

1990년에 줘왈트 前 제독은 조사를 명 받고 다음 보고서를 제출했다. “1962-70년간 미군은 7200만 리터의 제초제(대부분 고엽제)를 베트남에 퍼부었다. 백만 이상의 베트남인, 십만 이상의 미군 및 우군이 이에 노출됐다.”

클래리 박사는 고엽제 살포탱크를 설계하고 살포작전에 관여한 인물이다. 그는 1988년 대של 상원의원에게 말했다. “우리 과학자들은 제초제를 만들 60년대부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군용이 민간용보다 다이옥신이 훨씬 높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제초제는 ‘적’들에게 쓰일 것이었기 때문에 ‘아군’이 노출되는 문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몬산토가 고엽제의 주 생산자였다. 몬산토 제품은 다우케미컬 제품에 비해 다이옥신 농도가 수배 높았다. 다이옥신은 인간에게 알려진 물질 가운데 최고 극독물에 속한다. 내수용 제초제의 TCDD는 0.05ppm이었으나 몬산토 제품은 50ppm이었다.

고엽제가 뿌려진 곳에서 약 5만명의 베트남 어린이들이 “끔찍한 기형”을 갖고 태어났다. 그와중에 몬산토의 화학물질팀의 매출은 기록적이었다.¹⁵⁹

1999년 케이트 젠킨스 박사는 캐나다 CBC 라디오 인터뷰에 응했다. 젠킨스는 EPA의 환경화학자였다. 그녀는 이렇게 발언했다. “몬산토는 참전용사들에게 고소당하는 것을 몹시 걱정했다... 몬산토는 다이옥신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물론 몬산토가 돈을 냈다. 그 결과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기형 아기들 모두 보상을 받지 못했다... 나는 그 연구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의 주장을 검토했는데, 나는 ‘조작됐다’는 말밖에 할 수가

¹⁵⁹ Cate Jenkins, "Criminal Investigation of Monsanto Corporation-Cover-up of Dioxin Contamination in Products-Falsification of Dioxin Health Studies", *USEPA Regulatory Development Branch*, November 1990. See also "The Legacy of Agent Orange", *BBC News, World Edition*, 29 April 2005, transcript in home.clara.net/heureka/gaial/orange.htm.

없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을 디자인했다.”¹⁶⁰

젠킨스는 이 인터뷰 이후 EPA 의 다른 부서로 보내졌고, 2 년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

1984 년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몬산토와 다우케미컬 등 고엽제 제조사들은 미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금에 1.8 억불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런데 10 년 뒤 이 동일한 회사들이 베트남인 희생자들에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2004 년에는 부시 행정부는 미-베트남간 합의됐던 “고엽제의 유전자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GMO, 사람들 속에 퍼지다, 생태계에 퍼지다

90 년대 중반이 되자, 몬산토, 다우, 듀폰, 신젠타 등은 자기들의 종자를 전세계에 뿌리기 시작했다.

1996 년, 몬산토는 미국산 대두 한 컨테이너를 유럽으로 수출했다. 여기는 유전자조작 식품 라벨이 없었고, EU 감독관들은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대두는 아르헨티나에 퍼져나갔던 바로 그 종자였다. 유전자조작 콩은 라벨도 없이 사람들 밥상으로 들어갔다. 97 년말 EU 는 GM 작물의 상업화를 금지하는 조치로 화답했다.

2003 년 이라크 전이 끝난 후, 부시가 GM 종자를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을 때, 이미 몬산토를 필두로 한 종자 카르텔은 자신들이 특허를 보유한 종자를 무서운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었다. 부시의 당면한 목표는 EU 의 97 년 GM 종자 상업화 금지 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었다. 유럽을 삼키기 위해서였다.

¹⁶⁰ Cate Jenkins, quoted in "Fields of Genes: The Battle over Biotech Foods", *This Morning*, CBC Radio, 3-7 May 1999. "Fields of Genes part 4", 6 May 1999, <http://www.nyenvirolaw.org/PDF/CBC-05-06-1999-FieldOfGenesTheBattleOverBiotechFoods.PDF>.

2004 년 ISAAA(록펠러 재단이 후원) 보고서에 의하면, 바로 전해에 비해 GM 작물 재배량은 무려 20 프로 증가했다. 1996 년 이래 거의 매년 두 자리수 성장을 해온 터였다. 17 개국에 8 백만 이상의 농민들이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고, **이들의 90 프로는 가난한 나라에 속해있었다.** 록펠러 유전자혁명이 정확히 의도한 바였다.¹⁶¹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은 GM 식품의 최대 생산국이었다.

ISAAA 는 GM 대두가 전세계에 심어진 대두의 56 프로, GM 옥수수는 13 프로, GM 면화는 28 프로, GM 카놀라는 19 프로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¹⁶² 카놀라 유는 인체에 유해한 기름임에도 광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캐나다 오일이란 뜻의 카놀라란 이름이 붙었다.¹⁶³

미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GM 식품을 국민들에게 먹였다. 라벨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애그리비즈니스는 더 활개를 쳤다. 2004 년 미국에서는 심겨진 대두의 85 프로 이상이 GMO 였고 대부분 몬산토 종자였다. 수확된 옥수수 총량의 45 프로가 GMO 였다.¹⁶⁴

옥수수와 대두는 사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곡물이다. 유전자 조작 곡물로 만들어진 사료가 미국은 물론 해외로 수출되었고, 그걸 먹고 자란 동물을 다시 사람이 먹었다. 미국인들은 물론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무엇을 먹고 컸는지 알지 못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숨기기 위해 혈안이 돼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전자조작 작물이 개방된 공간에서 자라게 되자 인근의 재래종 작물들에게 유전자 오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6 년만에 미국 농장의 67 프로가 유전자조작 식물에 의한 유전자 오염

¹⁶¹ Clive James,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 2004", /SAAA, No. 32, 2004.

¹⁶² *Ibid.*

¹⁶³ Sally Falon and Mary Enig, "The Great Con-ola", *Nexus Magazine*, <http://www.nexusmagazine.com>. August-September 2002.

¹⁶⁴ The Pew Charitable Trusts, *Genetically Modified Crops in the United States*, pewagbiotech.org, August 2004.

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됐다. 생태계로 한번 유입된 유전자를 빼낼 방법은 없었다.

GMO 종자 외에는 종자가 없게 하라

독립적 또는 로컬 종자업체들이 모두 몬산토, 듀폰, 다우, 신젠타, 카길 등 거대기업들에게 먹힘에 따라 농민들은 종자 재벌들의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다. 20세기 미국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농노제였다.

몬산토를 비롯한 GM 종자 회사들은 농민들에게 기술사용협정 서명을 요구했다. 농민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기술에 대해 매년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또 농민은 전해의 종자를 사용할 수 없고, 매년 새 종자를 구입해야 했다. 몬산토는 핑커튼 사설탐정들까지 고용해서 농민들이 이전 종자를 쓰는지 감시했다. 미국 어떤 지역에서 몬산토는 치졸하게도 묵은 몬산토 종자를 쓰는 농민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공짜 가죽잠바를 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¹⁶⁵

제조제 사업에서 종자 사업으로

잠깐 역사를 생각해보자. 몬산토, 신젠타, 다우, 듀폰은 모두 화학기업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강력한 화학기업이다. 이들은 살충제와 제조제를 제조하다가 유전자조작 종자 사업으로 들어왔다.

90년대초 제조제 거대기업들은 스스로에게 “생명과학” 기업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크고 작은 무수한 종자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운송업체들과 식품가공업체들과 제휴함으로써 수직통합을 실천했다.

2004년이 되면 2개사(몬산토와 듀폰의 파이어니어하이브레드)가 세계의 종자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은 3단계 전략을 구사했다. 하나, 다른 종자 회사들을 사들임으로써 그들의 종자 생식질을

¹⁶⁵ Andrew Kimbrell, "Monsanto vs. US Farmers", *The Center for Food Safety*, <http://www.centerforfoodsafety.org/Monsantovsusfarmersreport.cfm>, Washington DC, 2005, pp. 19-21.

소유한다. 둘, 다양한 유전자조작 기술 및 유전자조작 종자에 대한 특허를 받는다. 셋, 농민이 자가채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을 맺고, 농민이 매해 새 종자를 구입하게 한다.

종자기업이 된 화학기업은 화학기업 출신답게 자사 제초제에 대해 자사 종자들이 내성을 갖도록 작업했다.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대두는 몬산토가 특허를 가진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제품명 “라운드업”)를 견디도록 유전자조작된 것이다. 몬산토 종자를 사면 몬산토 제초제를 쓰게 됐다.

늘어나는 인구를 먹이기 위해 GMO는 필수... 라는 거짓말

록펠러 재단은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프로파간다에 돌입했다. 정밀한 논리를 만들어 대중을 설득하고 세뇌하기 시작했다. 고든 콘웨이 회장은 지속 증가하는 세계인구를 먹이기 위해선 **녹색혁명에 이은 유전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0년이 되면 인구는 20억이 더 늘어났을 것이고, 유전자조작 작물이 한정된 땅에서 높은 생산량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살충제와 화학비료 남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¹⁶⁶

이러한 논리가 만들어지자 유엔 FAO, 세계은행, IMF 등은 나팔수가 되어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제 유전자조작 종자에 반대하는 것은 세계빈민을 굶어죽이는 것이 되었다.**

게다가 유전자조작 작물은 생산성이 높다는 주장도 신빙성을 잃었다. 2004년 호주의 농민단체는 유전자조작 카놀라의 경우 수확량이 더 많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수확이 적다는 근거는 있다고 했다. 몬산토는 라운드업레디 카놀라는 소출이 40프로 높다고 했지만, 몬산토 웹사이트에 공개된 호주 실험 재배의 소출은 국가평균에 비해 17프로가 적다. 베이어 크롭사이언스 소출 역시 非 GM 작물에 비해 높지 않다.¹⁶⁷

¹⁶⁶ Gordon Conway,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Plant Biology*, speech, http://www.biotech-info.net/gordon_conway.html. 24 June 1999.

¹⁶⁷ Network of Concerned Farmers, *Will GM Crops Yield More in Australia?*, <http://www.non-gm-farmers.com>. 28 November 2004.

영국의 흙연합(Soil Association)은 2002 년 보고서에서 6 년의 GMO 재배 실험 결과, 제초제 내성 대두는 非 GM 콩에 비해 재배면 적당 손실이 더 크다고 밝혔다(아이오와 대학 경제학자 마이클 더 피).¹⁶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는 제초제에 내성을 지닌 “슈퍼잡초”가 등장했다. 이들을 죽이기 위해선 다른 종류의 제초제 성분을 섞어야 했다. GM 옥수수에 나타난 잡초는 글리포세이트 하나로 죽지 않고 아트라진을 첨가제로 써야했다. 아트라진은 알려진 제초제 가운데 최강의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¹⁶⁹

또 브라질 남부에 나타난 슈퍼잡초는 글리포세이트를 아무리 많이 살포해도 죽지 않았고, 듀폰의 제초제를 섞어야만 죽었다. 이제 듀폰과 같은 제초제 업체들에겐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첨가물로서의 제초제를 개발하고 특허를 받아 생산하는 것이 큰 사업이 됐다. 유전자 조작 작물을 기르면 제초제 사용이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¹⁷⁰

미국에서 실시된 유전자조작 Bt 옥수수 재배에 대한 연구 결과 1996-2001 년간 미국 농민들은 Bt 옥수수를 심기 위해 6.59 억불의 프리미엄을 지불한 반면, 5.67 억불 어치의 증산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0.92 억불의 순수실을 뜻한다(아이다호 북서과학환경정책센터, 찰스 벤브룩 박사).¹⁷¹ 여기에 다시 종자회사들에게 지불하는 “기술료”를 더하면 농민들의 손실은 더 증가한다.

¹⁶⁸ Gundula Meziani, and Hugh Warwick, "The Seeds of Doubt", *The Soil Association*, <http://www.soilassociation.org>. 17 September 2002.

¹⁶⁹ *Ibid.*

¹⁷⁰ Antonio Andrioli, Universidade Regional do Noroeste do Estado do Rio Grande do Sul, Brazil, *Private e-mail Correspondence*, 27 January 2007, provided on request by Friedel Kappes.

¹⁷¹ Charles M. Benbrook, "Biotech Crops Won't Feed Africa's Hungry", *The New York Times*, 11 July 2003.

보통 종자는 옥수수 생산비의 10 프로를 차지한다. GM 종자는 기술료가 붙기 때문에 훨씬 비쌌다. 이 연구에서 GM 종자는 非 GM 에 비해 24-40 프로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농민들이 전해의 종자를 다음해에 심는 것도 금지돼있었고, 이를 어길 시 무거운 벌금이 부과됐다.

몬산토와 종자업체들은 종자비용이 비싼 대신 수확이 많기 때문에 농민이 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몬산토 라운드업 레디 대두와 유채는 非 GM 종자에 비해 소출이 적었고, Bt 옥수수는 소출이 약간 높았으나, 높아진 생산비를 상쇄할 정도는 안됐다.¹⁷²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두 작기가 지나면 GM 작물들은 非 GM 에 비해 더 많은 제초제와 살충제를 필요로 했다. 벤브룩은 USDA 공식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1996 년 이래 미국에 5.5 억 에이커에 유전자조작 옥수수, 대두, 면화가 심겨졌고, 그에 따라 살충제 사용은 5 천만 파운드가 증가했다.¹⁷³

제초제 사용량이 느는 주된 이유는 작물은 유전자조작을 통해 제초제에 내성을 지녔기 때문에 일반 작물을 기를 때 비해 농민이 제초제를 맘놓고 훨씬 많이 뿌리게 된다는 점이었다.

많은 독립적 과학자들과 농민들은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잡초, 그리고 Bt 에 내성을 가진 해충의 등장을 경고했다.

GMO 콩을 먹인 어미쥐의 새끼들은 심각한 이상을 나타내다

러시아의 신경활동 및 신경생리학 연구소의 이리나 에르마코바 박사는 유전자조작 대두를 쥐에게 먹이는 실험을 진행했다. 유전자조작 대두를 먹이로 준 어미의 새끼들은 태어난지 3 주 이내에 절반 이상 (55.6 프로)이 죽었다. 이는 일반 사료를 먹은 어미쥐의 새끼 사망률 (9 프로)에 비해 6 배에 달하는 수치다.

¹⁷² Gundula Meziani, et al., *op. cit.*, pp. 19-20.

¹⁷³ *Ibid.*

유전자조작 대두를 먹인 어미쥐의 새끼들은 무려 36 프로가 심각한 저체중이었다. 대조군의 저체중률은 6 프로에 불과했다.

에르마코바 박사는 쥐는 인간과 매우 유사한 생리적 특징을 지녔다며, 이 실험은 결국 임신부들과 그 아기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¹⁷⁴

몬산토와 여타 GMO 회사들은 에르마코바 실험이 엉터리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간단한 실험을 그들이 말하는데로 “엉터리가 아니라 제대로 해보자”는 제의를 모두 무시했다.

아프리카의 가짜 슈퍼고구마

몬산토는 바이러스에 저항성을 가졌다고 하는 유전자조작 고구마를 케냐농업연구소(KARI)에 기증했다. KARI는 세계은행과 몬산토의 재정적 후원을 받는 곳이다.

KARI 의 플로렌스 완부구 박사는 전세계를 돌면서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고구마가 아프리카 기아를 해결했다고 강의했다. 몬산토와 USAID 가 보내준 출장이었다. 완부구는 몬산토에 근무하면서 USAID, ISAAA,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GMO 고구마를 개발한 인물이다. 완부구는 수확량이 헥타르당 4 톤에서 10 톤으로 늘 거라고 주장했었다.¹⁷⁵

2001 년 USAID 는 이 GM 고구마를 아프리카에 퍼뜨리기 위한 공세적 정책을 폈다. 포브스는 완부구를 “미래를 재발명할” 15 인의 하나로 뽑으며 맞장구를 쳤다.¹⁷⁶

문제는 현실이 이들의 선전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고구마는 바이러스 병에 걸렸다. 소출은 2.5 배 나오는 게 아니

¹⁷⁴ Geoffrey Bean, "Unborn Babies Could be Harmed by GMOs", *The Independent*, 8 January 2006.

¹⁷⁵ Gundula Mezziani, *op. cit.*

¹⁷⁶ Lynn J. Cook, "Millions Served", *Forbes*, 23 December 2002.

라 오히려 재래종 고구마에 비해 적었다.¹⁷⁷ KARI 일당은 거짓말을 계속 하려 했지만, 서섹스 대학의 아론 디그라시 박사는 이들이 통계치를 가지고 장난치는 내용을 폭로했다.¹⁷⁸ 이렇게 진실이 밝혀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과 몬산토는 완부구의 연구를 12 년 이상 편당했다.

¹⁷⁷ *Ibid.* See also, GM Watch, *Wambugu Wambuzling Again: Says GM Sweet Potato a Resounding Success?*, <http://www.mindfully.org/GE/2004/Wambugu-WambuzlingAgain17mar04.htm>, 17 March 2004. Also, "Monsanto's Showcase Project in Africa Fails", *New Scientist*, 7 February 2004. The article notes, "Three years of field trials have shown that GM sweet potatoes modified to resist a virus were no less vulnerable than ordinary varieties, and sometimes their yield was lower, according to the Kenya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Embarrassingly, in Uganda conventional breeding has produced a high-yielding variety more quickly and more cheaply. The GM project has cost Monsanto, the World Bank and the US government an estimated \$6 million over the past decade. It has been held up worldwide as an example of how GM crops will help revolutionize farming in Africa. One of the project members, Kenyan biotechnologist Florence Wambugu (see *New Scientist*, 27 May 2000, p. 40), toured the world promoting the work."

¹⁷⁸ GM Watch, *op. cit.*

제 5 부

인구를 줄이라

터미네이터, 트레이터, 정자 죽이는 옥수수

터미네이터 종자, 씨앗-식물-씨앗-식물의 순환을 끊다

WTO 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백악관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GM 종자 회사들은 80 년대말이 되면 세계의 식량공급을 자기들이 실제로 장악할 수 있다는 꿈에 한껏 부풀었다. 이들은 유전자사용금지기술(GURTs)이라는 신기술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기술은 곧 “터미네이터”란 이름을 갖게 됐다. 가장 큰 목표는 “양심없는” 농부들이 종자회사가 특허를 보유한 종자를 (자가채종함으로써) 돈도 내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종자는 원래 수천년간 농부들이 자가채종해서 재사용하고 서로 나뉘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변할 것이었다.

98 년 델타엔파인랜드(D&PL) 종자회사는 면화 종자의 최대 소유주였다. 미 농업부의 후원을 받아 이 회사는 GURT 에 대한 특허(미국 특허번호 5,723,765)를 미 정부와 공동으로 받았다.¹⁷⁹

1 년뒤 몬산토는 D&PL 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세계 식량생산 지배라는 애그리비즈니스의 꿈을 실현시켜줄 답으로 보였다.** 이 회사들은 더 이상 비싼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농부들이 씨앗을 다시 심는지 감시하지 않아도 됐다.

이 기술에 의하면 농부가 시판 씨앗을 심어서 식물을 키운 뒤에 그 식물에게서 다시 씨앗을 받으면, 그 씨앗은 발아하지 않는다. 터미네이터 옥수수, 콩, 면화 종자들은 성체가 된 뒤 씨앗을 맺지만 그 씨앗은 영글기 전에 내부 독소로 인해 파괴됐다.

¹⁷⁹ Melvin John Oliver et al., United States Patent, *Control of Plant Gene Expression*, Patent no. 5,723,765, 3 March 1998,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in <http://patft1.uspto.gov>.

누구 말대로 “인간은 드디어 씨앗-식물-씨앗-식물로 영원히 순환해 온 생명의 법칙을 깨뜨렸다. 이제 이 순환은 돈-씨앗-식물의 단절로 대체됐다.”¹⁸⁰

밀, 벼, 대두, 면화는 대개 하이브리드 종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농부들은 흔히 자신이 지은 농사에서 씨를 받았다가 다음 작기에 심는다. 이렇게 되면 농부는 수십년이 지나도록 종자회사에게 손을 벌릴 일이 없을 수 있다. 종자회사가 좋아할 리가 없다. D&PL 는 자신들이 터미네이터 기술을 최초 개발한 이유가 인도, 파키스탄, 중국의 벼와 밀 생산자들에게 종자를 팔기 위해서라고 밝힌바 있다.

트레이터 종자, 유전자를 끄고 켜는 기술

또다른 2 세대 기술로 T-GURT 라는 것이 있었다. 트레이터 (Traitor)라는 별명으로 불린 이 기술은 스위치를 통해 식물의 특정 유전자를 켜는 것이었다. 트레이터 종자는 터미네이터에 비해 간단하고 저렴하게 생산 가능했다.

예컨대, 유전자조작 벼나 옥수수가 특정 질병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더라도, 그 저항성은 “외부의 특정 화학물질”이란 자극을 받아야만, 곧 스위치를 켜줘야만 유전자가 발현된다. 물론 이 특정 화학물질은 트레이터 식물에 대한 특허를 가진 회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농민들이 “불법적으로” 종자를 획득한 경우 이 화학물질을 구할 수 없어서 식물의 내병성이라는 형질을 켤 수가 없게 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신젠타가 보유한 11 개의 특허는 결국 “주식 작물에 대한 유전자조작을 통해 (특정 화학물질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질병에 잘 걸리는 식물을 만들 수도 있고, 식물이 정상적 씨앗을 생산하게 하거나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식물이 언제 꽃피울지도 통

¹⁸⁰ Geri Guidetti, "Seed Terminator and Mega-Merger Threaten Food and Freedom, Food Supply Update: June 5,1998", *The Ark Institute*, <http://www.arkinstitute.com/98/up0606.htm>, 5 June 1998.

제할 수 있고, 언제 싹이 틀지도 통제할 수 있고, 식물이 노화되는 방식도 통제할 수 있다.”¹⁸¹

미 정부가 강력한 추진세력이었음을 잊으면 안된다. 이들은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한 특허를 사기업(D&PL)과 공유, 순수익의 5 프로를 가져가도록 돼있었고, 사기업과 더불어 무려 78 개국에 특허를 신청했다. 미 정부의 공식 후원을 받으며 이 사기업과 이 기술은 인류의 식량생산에 핵폭탄 같은 사건이 되었다.

점점 세상은 3-4 개의 다국적 종자회사가 세계 식량생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해갔다.

터미네이터 종단을 선언한 기만 전술

터미네이터 기술을 이용해 소수 다국적 종자회사가 세계식량을 지배한다는 적나라한 음모에 대해 사람들이 가만 있을리 없었다. 터미네이터의 윤리성이 공론화됐고, 농민들은 시위를 이어갔고, 정부도 공청회를 열었다.

1998 년 5 월 몬산토가 터미네이터 기술 특허를 가진 D&PL 를 인수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저항의 불길은 더 크게 타올랐다.

거세지는 저항은 유전혁명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었다. 이때 장막 뒤에 숨어있던 록펠러 재단이 나섰다. 1999 년 9 월 록펠러 재단 고든 콘웨이 회장은 몬산토 이사회에 개인적으로 출석하여 요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몬산토에게 터미네이터 종자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일을 멈추라고 했다.¹⁸²

몬산토는 콘웨이 말을 충실히 따랐다. 1999 년 10 월 4 일 몬산토 CEO 로버트 B. 샤피로는 터미네이터 기술의 상업화를 멈춘다는 기

¹⁸¹ Hugh Warwick, *Syngenta: Switching off Farmers' Rights?*, Genetics Forum, Bern, October 2000, <http://www.mindfully.org/GE/Syngenta-Switching-OffRights.htm#exec>.

¹⁸² USA Today, "The Seeds of Warning for Biotech Companies", *USA Today*, 10D, 29 June 1999.

자회견을 했다. 그는 같은 달 록펠러 재단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D&PL 인수를 취소한다는 발표가 잇따랐다.

10 월 4 일 콘웨이 회장은 몬산토가 터미네이터 기술을 상업화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¹⁸³ 터미네이터 기술은 농민들의 채종이 불가능해지는 점에서 농민의 주권을 적나라하게 빼앗는 농업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폭발적인 반대를 몰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¹⁸⁴ 이들은 전술적 후퇴를 하지 않으면 유전자 혁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¹⁸⁵

다수 언론들은 정의의 승리라고 떠들었지만, 사실은 록펠러 재단이 기획한 기만전술에 불과했다. 몬산토의 발표문을 분석하면 터미네이터 기술의 “상업화”를 당분간 멈춘다는 내용에 불과했으며, 이 기술을 원천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터미네이터 기술이 상업화되려면 최소한 2007 년이 돼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몬산토로서는 여론을 유리하게 돌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샤피로가 덧붙인 단서에 의하면 몬산토는 “현재로서” 기술개발을 멈춘 것이고 미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신젠타 역시 같은 시기에 터미네이터의 상용화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트레이터 기술개발은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터미네이터 논란은 불이 꺼졌다. 언론의 보도 횟수와 강도도 줄어들었다. 기만전술은 성공적이었다.

콘웨이는 몬산토가 너무 공세적으로 터미네이터 기술을 추진할 경우 세계식량 지배라는 자기들 목표에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¹⁸³ Dr. Gordon Conway in a speech to Directors of Monsanto,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Plant Biotechnology", 24 June 1999, in http://www.biotechinfo.net/gordon_conway.html.

¹⁸⁴ Rockefeller Foundation, "Terminator" Seed Technology Dropped, Press Release, New York, 4 October 1999.

¹⁸⁵ 3. John Vidal, "How Monsanto's Mind was Changed", *The Guardian*, 9 October 1999.

간과한 것이다. 1999 년이면 아직 GMO 종자들이 미국 종자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하지도 못한 때다.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개도국에서는 GMO 종자들이 차지하는 몫은 미미했다. EU 는 GMO 식물에 대한 허가를 중단한 상태였고, 브라질, 멕시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GMO 수입 또는 재배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몬산토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략은 큰 역효과를 낼 수 있었다.

세상이 GMO 종자의 위험성을 깨달아가는 중에 이들과 싸울 이유가 없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록펠러 재단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몬산토에 개입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 터미네이터 기술개발은 1999 년 이후에 멈춘 적이 없다. 몬산토는 1999 년말 D&PL 와 합병을 포기했지만, D&PL 과 미 농업부는 터미네이터와 트레이터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했다. 이들은 한번도 물러서거나 늦춘 적이 없었다.

미 농업부는 D&PL 와 더불어 터미네이터 기술 특허의 공동 보유자였는데 1999 년 몬산토와 신젠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당시 미 정부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다. 이전부터 미 정부는 터미네이터 기술의 목적이 제 2, 제 3 세계에 미국 종자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록펠러 재단이 1984 년 시작한 벼 게놈 프로젝트,¹⁸⁶ 더 멀리는 1974 년 키신저의 NSSM 200 개도국 인구통제 정책의 연장선이다.

2001 년 8 월 미 농업부는 드디어 D&PL 의 터미네이터 면화 종자 상용화 허용 계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반대여론이 거의 들리지도 않았다. 이미 빛바랜 이슈가 된 데다, 결정적으로 9.11 이 터지면서 그 누구도 미 농업부 발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2003 년 6 월이 되자 이제 몬산토는 터미네이터 기술이 “생태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선전을 하기 시작한다. 이 기술로 인해 바람이나 기

¹⁸⁶ Willard Phelps, USDA spokesman, *Interview with RAFI* (now ETC), 10 March 1998, cited in <http://www.cropchoice.com/leadstry7f4c.html?recid=694>.

타 수정에 의해 GMO 종자가 확산되어 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저들에게 GMO 를 먹이라!

2002 년 미 국무부는 정부 아래 있는 모든 원조기관들이 국제경찰 역할을 할 것을 지시했다. USAID 는 이들에게 수원국 내 GMO 식품 수입을 반대하는 모든 동향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미 정부는 사안을 WTO 에 회부하거나, 가난한 수원국에 WTO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었다.¹⁸⁷

미 국무부와 농업부는 GMO 종자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긴급 기아 구호에 유전자조작 제품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수원국의 지역 농경제를 파괴하는 동시에 몬산토와 그 일당들을 위해 시장을 열어주는 기능을 했다. EU 는 공식 항의까지 발표했으나¹⁸⁸ 미 정부는 이를 간단히 무시했다.

예컨대, 2003 년초 인도 정부는 미국산 대두-옥수수 혼합물 1 천톤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이유는 사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함유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 식량원조기구 CARE 와 카톨릭구호서비스가 추진한 이 수입은 불허됐음에도 불구하고 USAID 는 이를 추진했다.¹⁸⁹

원래 식량 원조의 관행은 국제구호단체들이 개방된 시장에서 식량을 사는 것이었다. 이때 가능하면 수원국, 그게 안되면 이웃 국가 농민들에게서 식량을 구입했다. USAID 는 미국에 본부를 둔 식량원조단체들은 USAID 가 승인한 곡물만을 제공하도록 규제했다. 이는 곧 미

¹⁸⁷ Ashok B. Sharma, "US Aid Agencies Instructed to Report Anti-GM Nations to USAID", *The Financial Express* (India), <http://www.mindfully.org/GE/2003/USAID-Report-AntiGM14jan03.htm>, 14 January 2003.

¹⁸⁸ European Commission, *WTO and Agriculture: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More Market Opening, Less Trade Distorting Support and a Radically Better Deal for Developing Countries*, Press release, 16 December 2002.

¹⁸⁹ Ashok B. Sharma, *op. cit.*

국산 유전자조작 곡물을 먹인다는 것을 뜻했다. 공여국 가운데 자국의 잉여식량을 원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국가는 미국뿐이었다.

2002년 10월 런던의 가디언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미 정부는 심각한 가뭄이 왔을 때 아프리카 남단의 6개국에 대해 2.66억불 어치의 구호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당시 시장에는 재래종 옥수수 공급이 충분했음에도¹⁹⁰ 미국은 구호품을 모두 유전자조작 식품으로만 공급하려 했다. 잠비아, 말라위, 짐바브웨는 모두 GMO 옥수수를 거부했다. EU와 다른 공여국들은 이 국가들에게 현금을 쥐서 각국이 알아서 곡물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USAID 행정관 앤드류 나치오스는 GMO 옥수수가 아프리카에 확산되는 우려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굶주린 사람들은 씨앗을 심지 않는다. 먹을 뿐이다.”란 명언으로 답했다.¹⁹¹

2001년 IMF와 세계은행은 말라위 정부에게 “국가비상식량을 팔아서” 2002년까지 갚아야 할 외채를 갚으라고 압력을 넣었다. USAID는 미국산 GMO 옥수수 25만톤을 말라위에 수입했던 차였다. 이에 대해 “대대적 인체실험”이라는 비판부터 “농민을 소수 다국적 종자회사의 특허 받은 종자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까지 일어났다.¹⁹²

관련하여 부시는 2003년 G8 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럽에 압력을 가했다. 유럽의 비합리적 공포 조장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생명공학에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었다.¹⁹³ 이는 EU의 1997년 GMO 금지법을 겨냥한 것이었다.

¹⁹⁰ John Vidal, "US Dumping Unsold GMO Food on Africa", *The Guardian*, 7 October 2002.

¹⁹¹ *Ibid.*

¹⁹² Mark Townsend, "Blair Urges Crackdown on Third World Profiteering", *The Observer*, 1 September 2002.

¹⁹³ BBC News, *Bush: Africa Hostage to GM Fears*, 22 May 2003, <http://news.bbc.co.uk/2/hi/americas/3050855.stm>.

아프리카만 GMO 종자 확산 전략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몬산토는 고위 정부인사에게 5 만불의 뇌물을 먹인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검사 절차를 생략하는 대가였다. 이는 미국의 몬산토 본부에서 승인된 조치였고, 나중에 몬산토는 벌금을 내야 했다.¹⁹⁴

유럽 내 가장 속도 가운데 하나인 폴란드에서 몬산토와 그 일당들은 불법적으로 GMO 작물을 심고 있었다. 브라질에서는 몬산토 스스로 자사의 콩 종자를 불법 밀수해 들여와 대대적으로 심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2005 년에 이르면 브라질 정부는 GMO 콩이 이미 너무 퍼져서 확산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금지법을 철회했다.¹⁹⁵

식량의 지배, 그리고 식량의 지배를 통한 지배

몬산토, 다우, 듀폰 등은 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 GMO 종자를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다. 특히 빛이 많고 취약한 아프리카와 기타 개도국들을 중점적으로 노리고 있었다.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처럼 정부 통제가 약하고 관리들의 부패가 심한 곳도 파고 들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전략적 거부(strategic denial)” 능력이었다. 에너지나 식량처럼 생사가 걸린 물자에 대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든 뒤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물자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정자를 죽이는 옥수수

핵심적 질문을 던져보자. 이러한 전개는 세계 인구 감소를 추구하는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등의 거국적 전략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2001 년 9 월 샌디에고에 위치한 에피사이트라는 작은 생명공학 회사가 기자회견을 했다. 이 회사는 “궁극적” GMO 작물을 개발하는데

¹⁹⁴ Jonathan Birchall, "Indonesia: Monsanto Agrees to US \$1.5 Million Over Crop Bribe", *Financial Times* (London), 7 January 2005.

¹⁹⁵ Andrew Hay, "Environmentalists Fear Brazil's Lifting of GMO Ban", *Reuters*, 7 March 2005.

성공했다고 밝혔다. 바로 불임 옥수수였다. 이들은 면역불임이란 희귀증상을 가진 여성으로부터 불임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를 분리, 이를 옥수수 씨앗에 삽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에피사이트 회장 미치 하인은 “정자를 파괴하는 항체로 가득한 옥수수를 대량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했다. 이들은 지구의 인구과잉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¹⁹⁶

에피사이트는 다우와 전략공동연구 및 면허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에피사이트의 독보적 기술과 다우의 유전공학 인프라를 결합하려는 시도였다. 이들은 특히 유전자조작 작물의 “항체”에 큰 관심을 가졌다. 에피사이트는 노바티스(신젠타) 등과도 제휴하여 항체에 기반한 피임 물질을 개발하고자 했다.¹⁹⁷

2002년 10월 6일 CBS 뉴스는 미 농업부가 전국 32개 실험장에서 약 성분을 가진 작물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실험에는 에피사이트의 殺정자(spermicidal, 정자를 죽이는) 옥수수도 포함돼 있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농업부가 실험 결과를 국방부에게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⁹⁸

에피사이트는 살정자 옥수수가 2006-7년경 상업화되리라 예측했지만, 2004년에 피츠보로라는 기업에 합병됐다. 바이올렉스가 에피사이트 계약을 인수했다.¹⁹⁹ 그뒤로 정자를 파괴하는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는 보도되지 않았다.

¹⁹⁶ Robin McKie, "GMO Corn Set to Stop Man Spreading His Seed", *The Observer*, 9 September 2001.

¹⁹⁷ "Epicyte: Company of the Month", *The San Diego Biotech Journal*, June 2001, <http://www.biotechjournal.com/Journal/Jun2001/juneartA2001.pdf>.

¹⁹⁸ Wyatt Andrews, "In Coming Harvests, Farm-aceutical Corn", *CBS News*, <http://www.muhammadfarms.com/News-Oct6-12-2002.htm>. 8 October 2002.

¹⁹⁹ *Biolex Acquires San Diego Based Epicyte Pharmaceutical*, Company Press Release, 6 May 2004. See <http://www.biolex.com> and <http://www.epicyte.com>.

소문에 의하면 이들은 이 연구를 비공개리에 진행하기로 했다. 먹기만 하면 정자를 죽이고 남자를 불임으로 만드는 옥수수라면, 그 사안이 갖는 폭발력이 가히 상상이 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자들은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국무부, 농업부, 국가안전이사회(NSC), IMF, 세계은행, WHO, FAO 등으로서 이들은 하나의 세력임을 알아야 한다.

여성 불임을 만드는 파상풍 백신, WHO 와 미국 정부의 후원

멕시코, 니카라과, 필리핀, 그리고 그밖의 가난한 개도국에서 록펠러 재단은 유엔 WHO 에 돈을 대주어 혁신적 파상풍 백신을 개발했다.

1990 년대초 세계백신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WHO 는 니카라과, 멕시코, 필리핀에서 대대적인 파상풍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였다. 코미테 프로비다 데 멕시코라는 카톨릭 단체는 WHO 의 의도에 의심을 품고 백신 여러 개의 샘플을 가져와 분석했다. 그 결과 백신에는 hCG(인간융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 임신부에게 나오는 호르몬)가 들어있었다. 녹슨 못이나 토양 속 박테리아와 접촉에서 오는 질병인 파상풍에 대한 백신에 들어있기에는 아주 이상한 물질이었다. 파상풍 자체도 상당히 희귀한 질병인데 그토록 대대적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인 것도 이상했다. 필리핀과 니카라과에서도 백신에 hCG 호르몬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잇따랐다.²⁰⁰

hCG 는 임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천연 호르몬이지만 (백신에 들어있는) 비활성화된 파상풍 균과 결합하면 hCG 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여성의 임신이 중단된다.

더 수상한 사실은 WHO 백신 프로그램에서 파상풍 백신이 15-45 세 가입기 여성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남성이나 어린이들은 접종 받지 않았다.²⁰¹ 보통 파상풍 접종은 1 회 접종으로 최소 10 년

²⁰⁰ James A. Miller, "Are New Vaccines Laced With Birth-Control Drugs?", *HLI Reports*, Human Life International, Gaithersburg, Maryland; June-July 1995.

²⁰¹ *Ibid.*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달의 간격만 두고 여성들에게 3 차례나 접종했다.

프로비다가 더 조사한 결과 록펠러 재단, 인구위원회, 세계은행, UNDP, 포드재단 등은 모두 불임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20 년간 WHO 와 협력해왔다. hCG 를 사용한 과상풍 백신 외에도 다른 백신들도 개발하려 했다.²⁰²

WHO 연구에 가담했던 일당들을 더 나열하면 쏘인도의료과학연구소, 스웨덴의 옅살라, 헬싱키 대학, 오하이오주립대학, 미 정부의 아동건강 및 인간발달 국립연구소(NIH 부속) 등이 있다. 특히 마지막의 이 미 정부기관은 불임백신 실험에 hCG 호르몬을 제공한 바 있다.²⁰³

1993 년 중반에 이르면 WHO 는 연구비 가운데 무려 3.65 억불을 “성건강”이라는 선량하게 들리는 분야에 투입했다. 하지만 그 실상은 hCG 를 과상풍 백신에 삽입하는 류의 짓들을 했다. WHO 는 백신을 맞은 여성이 왜 反 hCG 항체를 보유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거부했다.²⁰⁴ 오히려 WHO 는 프로비다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답하지 않고, 프로비다가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카톨릭 세력”이라며 비열하게 인신공격에 치중했다.

필리핀에서는 마닐라에 소재한 세인트 루크 루터 의료센터에서 과상풍 백신 4 병을 분석했는데 모두 hCG 가 검출됐다. 그러자 WHO 는 필리핀에 있던 직원들을 전근 보내고, hCG 가 제조과정 중에 섞여들어왔다고 변명했다.

²⁰² *Ibid.* 그외 아래 참조 "Vaccines for Fertility Regulation", Chapter 11, pp. 177-198, *Research in Human Reproduction, Biennial Report, 1986-1987*, WHO Special Programme of Research, Development and Research Training in Human Reproduction, WHO, Geneva, 1988.

²⁰³ James A. Miller, *op. cit.*

²⁰⁴ James. A. Miller, *op. cit.* Also World Health Organization, "Challenges in Reproductive Health Research", *Biennial Report, 1992-1993*, Geneva, 1994, p. 186.

백신은 캐나다의 코너트 래보러토리, 인터백스, 호주 CSL 래보러토리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코너트는 세계 최대 백신 생산자 중 하나로, 프랑스의 Rhône Poulenc 제약그룹의 일부였다. 코너트는 유전자 조작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생산하는 일도 했다.

세계인구 급감이 큰 전략이었고, 백신이나 유전자조작도 모두 그 전략에 속했다. “세계 기아문제의 해결”이라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세계 인민에 대한 생화학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유전자조작 병균을 통한 인종청소

미국과 영국 정부가 유전자조작 종자를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은 1930 년대에 록펠러 재단이 나치의 우생학 연구를 후원한 것과 맥락이 같다. 즉 인구를 대대적으로 줄이고, 앵글로색슨 백인 엘리트들이 피부가 어두운 인종들을 지배하고자 함이었다. 일부 엘리트는 인구 감소의 수단으로서 전쟁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1925 년 윈스턴 처칠(그는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다)은 작물과 가축과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생물학전에 대한 로망을 표현한 바 있다.²⁰⁵

1990 년대에 미 공군은 생물학전쟁 수단으로서 유전자조작 식물에 대해 논했다. 카들렉 대령은 GMO 생물학 무기들이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량살상무기라고 평했다. (1) 다른 대량살상무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2) 생물학 무기는 자연상태에서 발생한 질병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공격하고 나서 공격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가 있다.²⁰⁶

²⁰⁵ Winston Churchill, quoted in Robert Harris and Jeremy Paxman, *A Higher Form of Killing*, Noonday Press, New York, 1982. See also George Rosie, "Churchill's Anthrax Bombs: UK Planned to Wipe out Germany with Anthrax", *Sunday Herald*, London, 14 October 2001.

²⁰⁶ Robert P. Kadlec, *Biological Weapons for Waging Economic Warfare and Twenty-First Century Germ Warfare*,

선샤인 프로젝트에 의하면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의 과학자들은 생물학 무기들에 대해 유전자조작을 감행하여 훨씬 더 치명적인 균들을 만들었다. 박테리아로 하여금 항생제나 백신에 대한 저항을 갖게 할 수도 있고, 독성을 한층 강화시키거나 탐지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²⁰⁷

1980년대 록펠러 재단이 벼에 대한 본격적 유전자조작을 개시하면서 유전혁명의 도래를 알렸을 때 미 국방부는 조용히 유전공학의 군사적 활용을 탐색하고 있었다. 물론 소련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이때 추진했던 프로젝트 가운데는 유전자조작을 통해 만드는 아편과 유사한 성분이 있었는데, 이 성분은 미량만 들어가도 잠이 오거나 불안해지거나 복종적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다.

부시 행정부가 기후온난화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교토의정서를 거부했을 때 사실 생물학 무기개발금지 협약도 거부했었다. 언론은 충실하게도 전자에 대한 보도만 하고 후자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는 법적 구속력 있는 생물 및 독성 무기의정서(BTWC)를 지지하기를 거부했다.

2004년 영국의료협회 연구에 따르면 수년 내에 “특정한 인종집단만을 죽이는 생물무기”가 개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븐 블록 교수는 미 국방부와 정부의 생물무기 연구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무기를 사용할 리가 없다”고 말하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요.”²⁰⁸

<http://www.airpower.maxwell.af.mil/airchronicles/battle/chp10.html>, and...
[chp9.html](http://www.airpower.maxwell.af.mil/airchronicles/battle/chp9.html).

²⁰⁷ Sunshine: Biological Weapons and Genetical Engineering, *Genetic Engineering is Regularly Used to Produce Lethal Bacteria*, <http://www.sunshine-project.org/bwintro/gebw.html>.

²⁰⁸ Steven Block, quoted in Mark Shwartz, "Biological Warfare Emerges as 21st Century Threat", *Stanford Report*, news-service.stanford.edu/news/2001/january17/bioterror-117.html, 11 January 2001.

조류독감과 유전자조작 닭

바이러스-제약회사-국방부

2005년 11월 1일 부시는 메리랜드 베데스다 소재 NIH 를 방문하여 아주 특별한 기자회견을 했다. 그 자리에서 391 쪽이나 되는 “판데믹 인플루엔자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NIH 기자회견의 면면을 보면 미 정부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알 수 있다. 부시는 국무장관, 국토안보장관, 농업장관, 보건장관, 교통장관, 보훈장관 등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백악관은 제네바로부터 WHO 사무총장을 불러 동석시켰다.

부시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현재는 미국이나 세계에 판데믹 인플루엔자가 없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우려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미국과 세계는 인플루엔자 판데믹을 3 차례 겪었는데, 3 차례 모두 **새들에게서 온 바이러스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부시는 H5N1 바이러스 또는 조류독감을 위협요소로 지목했다.

이어서 부시는 그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71 억불 짜리 긴급펀딩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선제적 전쟁(pre-emptive war)을 내세운 부시가 이번엔 조류독감을 적으로 삼은 것이다.

부시가 의회에 요청한 긴급조치들 가운데 특이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개발한 타미플루라는 약을 꼭 집어 그 약에 대해 10 억불을 배정해달라는 것이었다. 미 정부와 WHO 는 나란히 이 약을 일반 또는 계절성 인플루엔자 증상을 줄이면서 조류독감의 증상을 줄일 “수도” 있는 유일한 약이라며 선전하고 있었다. 스위스 거대 제약회사 로체는 타미플루에 대한 독점생산을 갖고 있었고, 조류독감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주문이 몇달치 밀렸다.

부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타미플루가 캘리포니아 생명공학회사 길레드 과학 주식회사가 개발 및 특허를 보유한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도널드 럼스펠드는 1988년부터 길레드 이사회에 속해있었고, 1997년엔 이사장이었고, 국방장관이 되던 2001년까지 그곳에 있었다.²⁰⁹

2004년 11월 럼스펠드 국방장관 아래 보건차관보는 타미플루가 조류독감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발표함으로써²¹⁰ 세계적 타미플루 사재기에 기여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럼스펠드는 국방장관으로 있으면서 길레드 주식을 1800만불 어치 사들였다고 한다. 그 정도면 최대주주였을 수 있다. 로열티 수입과 주가 상승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²¹¹

비슷한 부패 사례로 딕 체니의 할리버튼을 들 수 있다. 체니는 부통령이 되기 전에 이 회사의 CEO 였는데 할리버튼은 이라크를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 수십억불 어치의 건설 계약을 따냈다.

조류독감 역시 국방부의 또하나의 사기일까?

유전자조작을 통해 바이러스를 무기화

1968년으로 돌아가보자. 키신저는 세균전과 인구감소를 위해 유용한 생물무기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고, 보고를 받아보았다. 당시 미

²⁰⁹ Gilead Sciences, *Donald H. Rumsfeld Named Chairman of Gilead Sciences*, Press Release, Foster City, CA., 3 January 1997, http://www.gilead.com/wt/sec/pr_9331901S7/.

²¹⁰ William Winkenwerder Jr., *Department of Defense Guidance for Preparation and Response to an Influenza Pandemic caused by the Bird Flu (Avian Influenza)*,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geis.thp.osd.mil/GEIS/SurveillanceActivities/Influenza/DoD_Flu_Plan_040921.pdf, 21 September 2004.

²¹¹ F. William Engdahl, "Is Avian Flu another Pentagon Hoax?", *Global Research*,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iewArticle&code=%20EN20051030&articield=1169>, 30 October 2005.

정부 특수바이러스 암 프로그램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재조합 조류바이러스를 막 만들어낸 시점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플루엔자 또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성백혈병 바이러스와 결합되었다. 독감처럼 누가 기침하는 것만으로 암을 퍼뜨리고자 한 것이다. AIDS 연구자 레오나드 호로위츠 박사에 의하면 이 과학자들은 암이 퍼지는지 보기 위해 조류암(sarcoma) 바이러스를 수집하여 사람과 원숭이에게 접종하였다.²¹²

미 정부 과학자들은 조류바이러스의 발암 역량을 증폭시키기 위해 방사선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학연구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2003 년에 치명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갑자기 등장한다면 충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볼 필요가 있다.

조류독감과 애그리비즈니스의 이익

미국, 영국, 기타 정부들이 타미플루를 대량 사들이면서 럼스펠드가 직접적 수혜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애그리비즈니스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어떤 이익을 보았을까?

세계적 애그리비즈니스 거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양계장들은 초거대규모, 비위생적, 개체밀도가 몹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H5N1 을 비롯한 다른 병균의 출처로 전혀 조사받지 않았다. 다수의 동물건강 전문가들에 의하면 공장형 축사야말로 H5N1 같은 새로운 질병과 바이러스의 출처였으나, 오히려 아시아의 자립농과 가족농들, 10-20 마리 정도 닭을 가진 소농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다. 타이슨식품, 퍼듀농장, 콘아그라 등과 같은 미국의 주요 양계공장들은 아시아의 방사식 양계장에 비해 자신들의 양계장은 외부와 단절돼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2003 년, 아시아에서 첫 조류독감 사례가 보고될 때, 미국에서는 5 개 거대 다국적 기업이 닭고기 생산과 가공을 독점하고 있었다.²¹³ 이 다섯은 타이슨 식품(세계 최대), 골드 키스트, 필그림스 프라이드,

²¹² Leonard G. Horowitz, *Emerging Viruses: AIDS & Ebola, Nature, Accident or Intentional?*, Sandpoint, Tetrahedron Publishing Group, Idaho, 2001, pp. 410-411.

²¹³ WATT Poultry USA, *WATT Poultry USA's Rankings*, October 2006.

콘아그라, 퍼듀였다. 2007년 1월 필그립스 프라이드는 골드 키스트를 인수, 최대가 되었다. 이들을 합하면 매주 3.7억 파운드의 닭고기였고, 이는 미국 닭고기 수요의 56프로를 차지했다. 공장형 양계장은 미국에서 2005년에 90억 마리의 육계를 생산했다.

이들 공장형 양계장의 안전 및 보건 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2005년 1월 미 정부(GAO)의 상원에 대한 보고서에서 육가공업은 가장 높은 부상 및 질병률을 가진 산업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화학물질, 피, 분변, 부실한 환풍, 극단적 온도, 소음, 위험한 기계, 날카로운 도구 등에 노출되는 것이다.²¹⁴

비영리단체 비바 USA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식 축사의 닭들은 그 어떤 시대의 닭보다도 빠르고 크게 자란다. 1940년대에 육계는 시장에 팔 수 있는 무게인 4.4파운드가 되는데 12주가 걸렸는데 오늘날에는 6주밖에 걸리지 않는다.²¹⁵

성장촉진제도 심각한 문제였다. 근육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호르몬과 백신이 투여됐다. 근육이 자라는 속도를 빼가 따라가지 못해 닭들은 골격 특히 다리뼈에 이상을 겪었다. 이들은 걷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의 분변에 온몸을 부비며 살았고 피부에 끔찍한 염증이 생겼다. 심장이나 폐 같은 장기도 몸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흔히 기능장애를 일으켰다. 이런 닭들은 몸속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체액을 가지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렀다.²¹⁶

그런데 미국법에서는 특수한 예외조항에 의해 닭은 연방동물복지법에서 배제돼 있었다.

²¹⁴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Safety in the Meat and Poultry Industry, While Improving, Could Be Further Strengthened*, Washington, D.C., January 2005, GAO-05-96.

²¹⁵ Viva! USA, *Chicken/Broiler Industry Media Briefing*, <http://www.vivausa.org/campaigns/chickens/media.html>, 2005.

²¹⁶ USDA, *Animal Welfare Issues Compendium. A Collection of 14 Discussion Papers*, September 1997. <http://warp.nal.usda.gov/awic/pubs/97issues.htm>. Accessed on 30 September 2005.

타이슨 식품은 독보적 1 위였다. 일주일에 1.55 억 파운드의 닭고기를 생산, 이는 2 위 업체 생산량의 거의 3 배에 달했다. 조류독감 공포가 한창이던 2005 년 하반기에 타이슨 식품의 매출은 49 프로, 닭고기 수익 마진율은 40 프로 증가했다.²¹⁷ 조류독감이 거대 공장형 양계 업체들에게는 호재였음이 틀림없었다.

미국의 거대 닭고기 업체들이 눈독 들인 곳은 아시아의 큰 시장이었다. 만일 아시아 각국 정부들이 WHO 와 국제적 압력을 받아 양계에 있어 케이지 도입을 의무화한다면, 소농들을 파산시키고 기업농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거대 공장형 양계장이 있는 곳에서 거의 예외없이 조류독감이 발생했다.²¹⁸ 태국 소재 거대 양계 기업인 CP 그룹은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비위생적 밀집적 폐쇄적 환경에서 닭을 키웠고 이는 병균을 키우기 최적의 조건이었다. 바로 이 CP 그룹의 닭고기 제품들이 공중 또는 철도로 수송되어 나간 경로를 따라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2006 년초에는 멀리 터키 아나톨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까지 퍼져나갔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닭 생산량은 1971 년 30 만톤에서 2001 년 244 만톤으로 무려 8 배 증가했다. 중국은 연 생산량이 900 만톤으로 90 년대 동안에만 3 배가 늘었다.²¹⁹ 이 증산은 사실상 전량이 공장형 축사에서 이뤄졌다. 이 시설들은 H5N1 같은 병균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었고, 대개 대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므로 사람에게 옮겨갈 위험도 컸다.

닭똥은 바이러스를 보유했을 수 있다. 그런 닭똥이 넓은 지역의 농토에 뿌려지고, 심지어 비료로 수출됐다. 계분은 야생조류들이 마시고 쉬는 물로 쉽게 흘러들어갔다. 계분은 물고기 사료로 쓰이기도

²¹⁷ Tyson Foods, Inc., *Annual Report*, 2006, <http://www.tyson.com/Corporate/>.

²¹⁸ GRAIN, *Fowl Play: The Poultry Industry's Central Role in the Bird Flu Crisis*, <http://www.grain.org/go/birdflu>, February 2006.

²¹⁹ *Ibid.*

하는데 그 경우 바이러스는 직접적으로 수원지를 오염시켰다. 아시아, 터키, 나이지리아에서 죽은 야생 새들이나 가금류는 공장형 축사에서 비롯된 조류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됐던 것으로 보인다.²²⁰

북반구의 철새들은 늦가을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이주한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남북 축선을 따라 퍼져야 하는데, 실제로 조류독감은 동서 축선을 따라 퍼졌다. 하지만 WHO 와 미 정부의 CDC 관리들은 이 사실을 덮어버리고 야생 새들에 대한 공포를 부추겼다.²²¹

태국의 CP 그룹은 아시아 최대의 양계업체였다. 회장인 다닌 체아라바논트는 1964 년 당시 세계 최대 양계공장이던 미국의 아버에이커즈 농장(벨슨 록펠러 투자)에서 수직통합에 대해 배운 뒤 그룹을 설립했다. 체아라바논트는 조지 부시의 동생인 닐 부시와 사업파트너였고, 회사 부사장인 사나신 비라폴(前 태국 외교 부장관)은 데이빗 록펠러의 삼극위원회에 선택받은 인물이다.²²²

2006 년초가 되면 5 개의 미국, 1 개의 태국 거대 양계업자들이 세계 닭 생산을 독점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그러한 기반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는 유전자조작 닭 도입이 되려 했다.²²³

유전자조작 닭, GMO 동물 시대를 열다

조류독감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퍼진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2005 년 10 월 29 일 런던의 타임즈는 H5N1 바이러스에 저항을

²²⁰ Beyond Factory Farming Coalition, *Fact Sheet: Avian Flu*, http://www.beyondfactoryfarming.org/documents/Avian_Flu_Fact_Sheet.pdf. Cited in GRAIN, *op. cit.* See also, World Health Organization, *Bird Droppings Prime Origin of Bird Flu*, 17 January 2004, Geneva.

²²¹ Walter Sontag, "Der Fluch der Vögel", *Wiener Zeitung*, 5 November 2005.

²²² Trilateral Commission, *The 2005 Trilateral Commission Membership List*, New York, May 2005.

²²³ Roslin Institute, *Research Reviews, Practical Environmental Enrichment to Improve Poultry Welfare*, pp. 55-60, <http://www.roslin.ac.uk/research/hostResponse.php>.

가진 닭을 유전자조작으로 만들어내는 데 거의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스코틀랜드의 로즐린 연구소가 캠브리지 대학의 바이러스학 교수 로렌스 타일리와 함께 수행한 연구였다.²²⁴ 로즐린 연구소는 그 유명한 복제양 돌리를 만든 곳이다.

타일리는 타임즈 인터뷰에서 “법적 승인만 받으면 전세계 닭을 모조리 GMO로 대체하는 데 4-5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남짓 지속된 작업으로 인해 쌀, 옥수수, 콩, 밀 같은 인류의 주곡은 유전자조작 당하고 특허가 부여되면서 소수 GMO 회사들에게 넘어갔다. 2006년 조류독감 공포가 조장되면서 이제 닭에 대한 유전자조작과 뒤이은 독점이 진행되고 있었다.

²²⁴ Mark Henderson, "Scientists Aim to Beat Flu with Genetically Modified Chickens", *The Times*, 29 October 2005.

아마겟돈이 열리다 - 터미네이터 기술부터 돼지에 대한 특허까지

몬산토가 드디어 D&PL(터미네이터 기술)을 인수하다

2006 년 8 월 대부분 사람들은 휴가지에서 피서를 즐기고 있을 때 역사적인 기업 인수가 이뤄졌다. 이는 인류를 지배하겠다는 록펠러 재단의 야심을 실현시킬 결정적 한걸음이었다.

2006 년 8 월 15 일 몬산토는 D&PL 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매입가격은 현금 15 억불이었다.²²⁵ 1999 년에 같은 시도가 있었을 때는 성난 군중 때문에 물러섰지만, 이번에는 관심 갖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1999 년에 터미네이터 기술을 강렬하게 비판하던 NGO 들도 보이지 않았다.

주류언론의 보도 방식은 “몬산토, 미 최대 면화종자 공급자 D&PL 인수”라는 제목을 뽑고는 기사의 마지막 꼬트머리에 “D&PL 가 불임 종자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했다”로 달아두는 식이었다(뉴욕타임즈).

1999 년 전면에 나섰던 록펠러 재단은 이번엔 조용했다. 질문을 제기하자 비로소 재단 대변인 코스티글리오는 “이 건에 대해 우린 성명서 같은 것은 없다… 우리 재단은 여전히 개도국에서 터미네이터 기술 사용에 반대한다.”라고 짧게 답했다.²²⁶ 선진국에서는 반대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²²⁵ Monsanto Corporation, Monsanto Company to Acquire Delta and Pine Land Company for \$1.5 Billion in Cash, Press Release, 15 August 2006, in <http://monsanto.mediaroom.com/index.php?s=43&item=211>.

²²⁶ Peter Costiglio, 저자에게 보낸 이메일, 12 February 2007, and 9 February 2007.

월스트리트는 이 소식을 크게 환영했다. D&PL 주가는 27 불에서 40 불로 며칠만에 50 프로 이상 뛰었다.

몬산토의 경쟁자인 듀폰과 신젠타는 몬산토의 D&PL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로비했다. 이들은 “농민, 농업, 소비자에 대한 파급효과를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사실은 터미네이터 기술을 라이벌인 몬산토가 독점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리라.

EU 특허당국, 터미네이터를 승인하다

1999 년 몬산토의 D&PL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뒤로 D&PL 은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자사의 터미네이터 기술(GURTs)에 대한 특허권을 확대해갔다. 2005 년에 D&PL 은 미 농업부와 공동으로 EU 의 특허당국으로부터 중대한 신탁허를 획득했다(특허번호 EP775212B). 이로 인해 유럽의 25 개국에서 특허를 인정받게 됐다. 여기는 독일, 폴란드, 이태리, 프랑스 등 농업강국들이 포함돼있었다.

며칠 안 지나 D&PL 와 미 정부는 캐나다에서도 터미네이터 기술의 특허를 획득했다(CA 2196410). UN 이 몇 년전에 터미네이터 기술을 금지했음에도 이 기술의 세계적 상업화는 가속화됐다.²²⁷

90 년대초 GMO 특허 종자의 상업화가 시작됐고, 몬산토, 듀폰, 다우 등 화학회사는 종자회사를 겸하게 됐다. 1983 년 이래 미 정부의 집요한 노력 끝에 전세계 농부들이 매 작기마다 새 종자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2006 년 페루 농민들은 터미네이터 종자 기술에 대한 우려를 UNEP 생물다양성 회의에 공식 문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통적 토착 농민들로서 삶이 종자에 의존함을 알고 있으며, 삶을 지키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1) 터미네이터 작물에 의한 재래작물 및 야생식물의 유전적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터미네이터 작물 유전자가 섞인 종자를 받아서 다음해에 심은 농부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그 결과 자가채종 씨앗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터미네이터

²²⁷ Cited in Lucy Sharatt, "The Public Eye Awards 2006: Delta & Pine Land", *Ban Terminator Campaign*, http://www.evb.ch/cm_data/NOM-DELTAPINE.pdf.

종자에 더 의존하게 된다. 특히 페루는 2 천개가 넘는 감자 품종을 보유, 생물다양성의 보고인데, 이곳에 유전자조작 감자가 도입되면 (신젠타가 2004.3 월 터미네이터 감자에 미국 특허 6,700,039 를 요청) 감자 원산지에 대한 불가역적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몸집을 불리는 몬산토

D&PL 을 인수하기 전에 몬산토는 14 억불 이상을 들여 세미니스사를 매입했다. 세미니스는 캘리포니아 소재 거대 종자회사였다. 세미니스는 미국의 채소 씨앗의 40 프로, 세계 채소 씨앗의 20 프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미국 슈퍼에서 판매하는 상추의 55 프로, 토마토의 75 프로, 고추의 85 프로가 세미니스에서 왔다.²²⁸

몬산토는 세미니스를 매입함으로써 경쟁자 듀폰을 밀어내고 채소와 과일 종자에서 세계 최대, 주식 작물 종자에서 둘째, 농화학 제품에는 셋째 회사가 됐다. 하지만 뒤이어 2007 년 D&PL 을 인수함으로써 몬산토는 진정한 의미에 세계의 씨앗을 장악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이제 동물의 씨앗을 유전자조작하여 특허를 받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정액에 특허

2005 년 8 월 몬산토가 유럽에 제출한 특허 신청이 드러났다. 몬산토는 돼지의 특정 유전자를 유전자조작을 통해 식별해내는 기술이라고 했다. 이 유전자 자체는 몬산토가 유전자조작하고 특허를 받은 수탉에게 온 것이다.²²⁹

²²⁸ Matthew Dillon, "And We Have the Seeds: Monsanto Purchases World's Largest Vegetable Seed Company", *The Seed Alliance*, <http://www.seedalliance.org/index.php?page=SeminisMonsanto>, 24 January 2005.

²²⁹ Carey Gillam, "Crop King Monsanto Seeks Pig-Breeding Patent Clout", *Reuters*, 10 August 2005.

대변인은 몬산토가 단지 몬산토는 돼지를 교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허를 얻은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혔지만, 실제로 특허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방식으로 태어난 돼지 새끼들, 그 방식으로 생산된 돼지 무리, 특정 유전자의 빈도가 높아진 돼지들”에 대해서도 특허를 신청했던 것이다.²³⁰

몬산토 대변인 호너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 생식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모든 돼지는 특허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1980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 생명에 특허를 허용하다

미 연방대법원은 1980년 다이아몬드 v. 차크라바티에서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석유슬러지를 먹는 유전자조작 박테리아에 대한 특허 관련이었다. 1987년 미 특허당국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아닌 다세포 생물에 대해 특허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 다음에는 암에 잘 걸리도록 유전자조작된 “하버드 쥐”에 대한 특허가 발부됐다.²³¹

동물 유전자를 지배하려는 것은 몬산토만이 아니었다. 2006년 7월 카길은 미 당국에 특허를 요청했다(US 2007/0026493 A1). 동물의 유전형 정보에 따라 동물생산을 최적화하는 기술이었다.²³²

몬산토, 신젠타, 듀폰, 다우는 키신저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석유를 지배하면 국가를 지배하고, 식량을 지배하면 인류를 지배한다.”

²³⁰ Jeff Shaw, "Monsanto Looks to Patent Pigs Breeding Methods", *New Standard*, 18 August 2005, <http://newstandardnews.net>.

²³¹ Max F. Rothschild, *Patenting of Genetic Innovations in Animal Breeding and Genetics*, Center for Integrated Animal Genomics, Iowa State University, Ames, Iowa, <http://www.poultryscience.org/pba/1952-2003/2003/2003%20Rothschild.pdf>, 2003.

²³²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 Patent Application Publication, *Systems and Methods for Optimizing Animal Production using Genotype Information*, Pub. No. US 2007/0026493 A1, Washington, D.C., 1 February 2007.

마치는 글

유럽을 무너뜨린 미국의 공격

2003년 5월 부시 미 대통령은 “GMO에 대한 유럽의 사실상의 금지 조치”에 대해 WTO에 소를 제기했었다. 2006년 9월 WTO 판사들에 따르면 EC는 그동안 다양한 GMO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해왔기 때문에 부시가 문제 삼은 금지 조치(moratorium)는 사라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²³³

이 건에 대한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은 WTO의 특수 3인 법정에서 나온 것으로, EU는 1999년 6월에서 2003년 8월까지 GMO 제품 허가에 대해 “사실상의” 금지를 적용했다고 했다. 3인 법정은 또한 EU 정부가 특정 GMO 식물을 심기로 허가해놓고 27건 중 24건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 법정의 권고는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EU에게 “SPS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었다. 바로 악명높은 SPS가 애그리비즈니스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자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주권을 짓밟는 순간이었다. WTO 요구를 거절했다가는 매년 수억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었다.²³⁴

²³³ World Trade Organization, *Various EC Member State Safeguard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 and/or Marketing of Specific Biotech Products (hereafter the “Member State Safeguard Measures”)*, WTIDS291-3/R, p. 343,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291r_4_e.pdf.

²³⁴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Brussels, *General Overview of Active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Involving the EC as Complainant or Defendant and of Active Cases Under the Trade Barriers Regulation*, 23 February 2007.

이를 두고 EU 위원회는 분열돼있었다. 덴마크인 농업위원장은 강력 한 친 GMO 론자였고, 그리스인 EU 환경장관은 반 GMO 였다. EU 농민들은 GMO 반대가 거세지고 있었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럽 시민은 대개 60프로 이상이 GMO 에 대해 부정적이었다.²³⁵

교황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2006 년 4 월 14 일 교황 베네딕트 16 세는 “신인 착하는” 유전공학자 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하느님이 기획하고 의도한 생명의 근본적 법칙을 바꾸려는” 시도를 경고했다. 유전공학자 들의 “신이 아니면서 신이고자 하는 광적이고 위험한 시도들”을 공격했다.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막으려는 록펠러 재단 시도들(록펠러 3 세의 인구위원회, 키신저의 NSSM 200, 파상풍 백신 비밀접종 등)에 대해 교회는 그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견지해왔다. 그리고 이번 교황의 성명은 그때까지 교회에서 나온 중에 유전공학에 대한 가장 강한 비판이었으나, 주류언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²³⁶

이 책을 쓰는 지금 GMO 괴물이 멈춰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부시 행정부와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2007 년 2 월 그녀의 내각은 기존의 조심스러운 정책 노선에서 GMO 를 “미래의 기술”로 진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전 슈뢰더 정부는 “GMO 를 심은 농부는 자신의 GMO 식물로 인해 GMO 가 없는 지역에 유전오염을 일으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입법을 했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GMO 법과 정반대인 이 법은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 EU 지역에 GMO 가 널리 퍼지지 못하게 막는 주요 장벽이었다.²³⁷

²³⁵ Friends of the Earth of Europe, *What Europeans Think about GMOs*, http://www.foeeurope.org/GMOs/What_Europeans.htm.

²³⁶ Ruth Gledhill, "Pope Condemns Geneticists 'Who Play at Being God'", *The Times*, 14 April 2006.

²³⁷ BUND, Deutschland,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entechnikgesetzes, <http://www.bund.net>.

저항이 희망이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GMO 마피아들이 저렇게 견고해보여도 진실과 정의의 목소리에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글뢰크너, 캐나다의 슈마이저, 스코틀랜드의 과학자 푸츠타이 등의 목소리는 이 세력에게 강한 타격을 입혔다. 우리에게겐 주류언론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사적 통신수단 등이 있고, 그 점에서 사이버 공간은 희망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 공간마저 검열과 감시, 지배와 처벌의 손길이 뻗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용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밝힌 진실의 등불을 이어갈 책임이 있다.

GMO 는 동물실험에서 밝혀졌듯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었다. GMO 가 고수확을 보장하고 제초제를 줄여준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이 기업들은 자사의 특허받은 GMO 종자를 다른 나라에 보급하여 그 나라의 식량 생산을 자사 종자에 의존케 하려 했고, 그 기술의 완성을 위해 터미네이터와 트레이터 기술까지 획득했다.

인구를 줄여 없애겠다는 저들의 오랜 구상과, 유전자조작 프로젝트는 동일한 하나의 전략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름다운 말 아래, 실제로는 인류를 상대로 제노사이드가 기획되었던 것이다.

키신저의 말을 잇으면 안된다. “석유를 지배하면 국가를 지배한다. 식량을 지배하면 인류를 지배한다.”

2006 년 부시 행정부는 세계적 차원에서 석유와 식량 둘다 장악해가고 있었다. 남겨진 질문은 과연 우리, 일반 백성들이 이를 두고 볼 것이냐는 점이다.

2007 년 7 월
F. 윌리엄 앵달



저자 윌리엄 앵달



역자 최이

비매품/무료

05300



9 791196 811143

ISBN 979-11-968111-4-3 (PDF)